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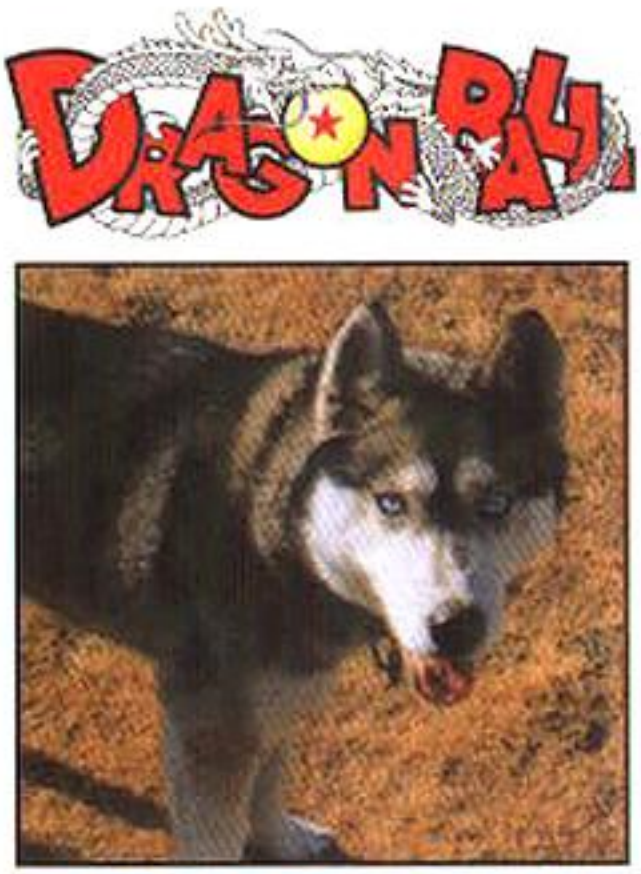
13

손오공의 역습!?



AKIRA TORIYAMA

anned by rapr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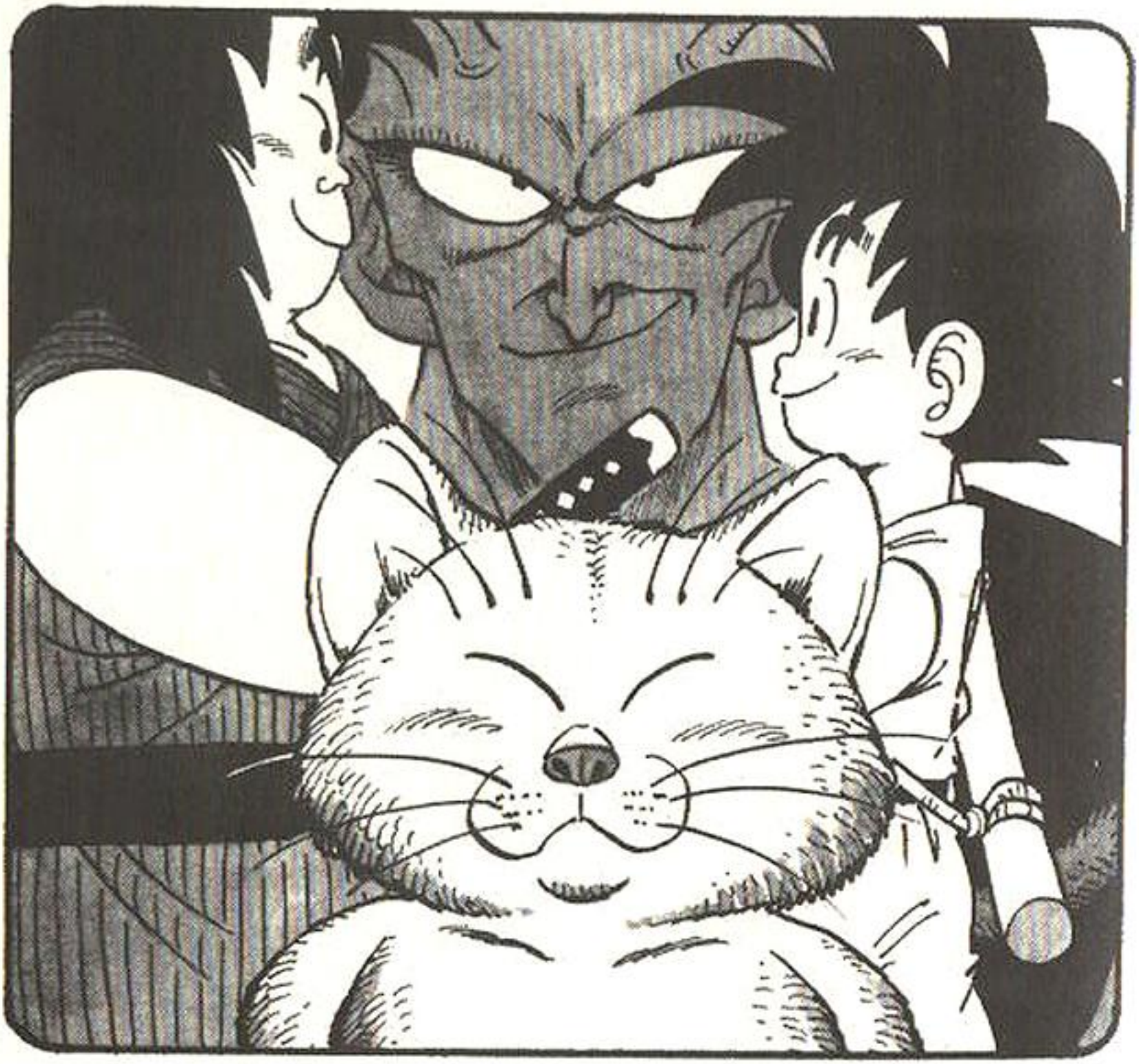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우리집 애견 매트료시카입니다. 이 이름은 러시아의 민예완구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매번 매트료시카라고 부르는 것도 귀찮아서, 통칭은 매트로 통합니다. 시베리아견이기 때문에 역시 추위에는 엄청 강해서, 추위를 잘 타는 내 입장에서 봐선 너무 부럽기 한이 없습니다. 암놈이기 하지만 엄청 기운이 넘쳐서, 아들 정도는 항상 부딪쳐 날려버려서,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놀아주고 있습니다.

ned by raprnb

SCO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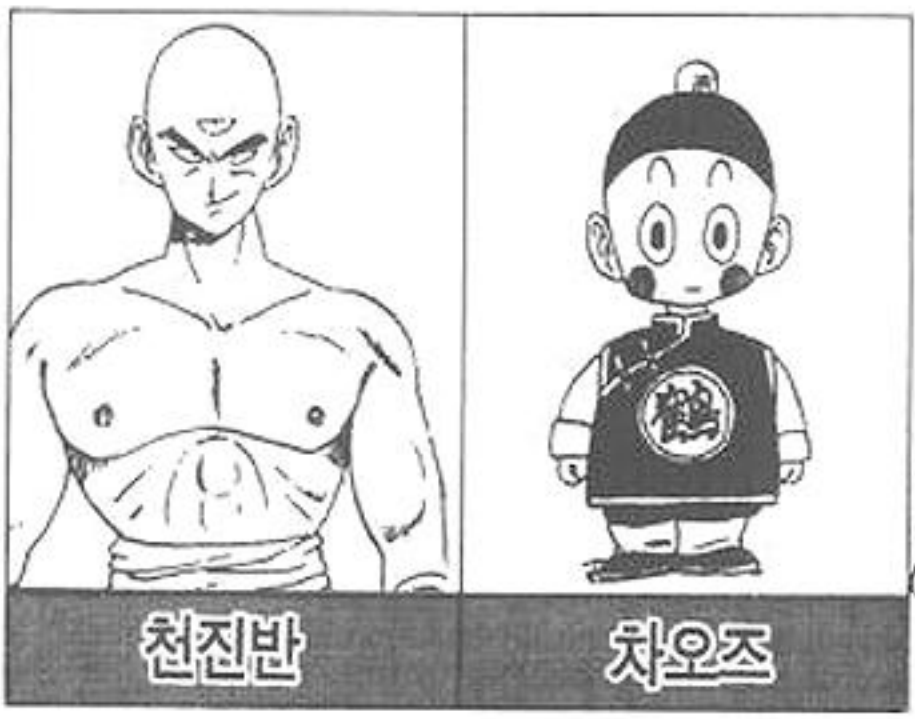
제13편 손오공의 역습!?

AKIRA TORIY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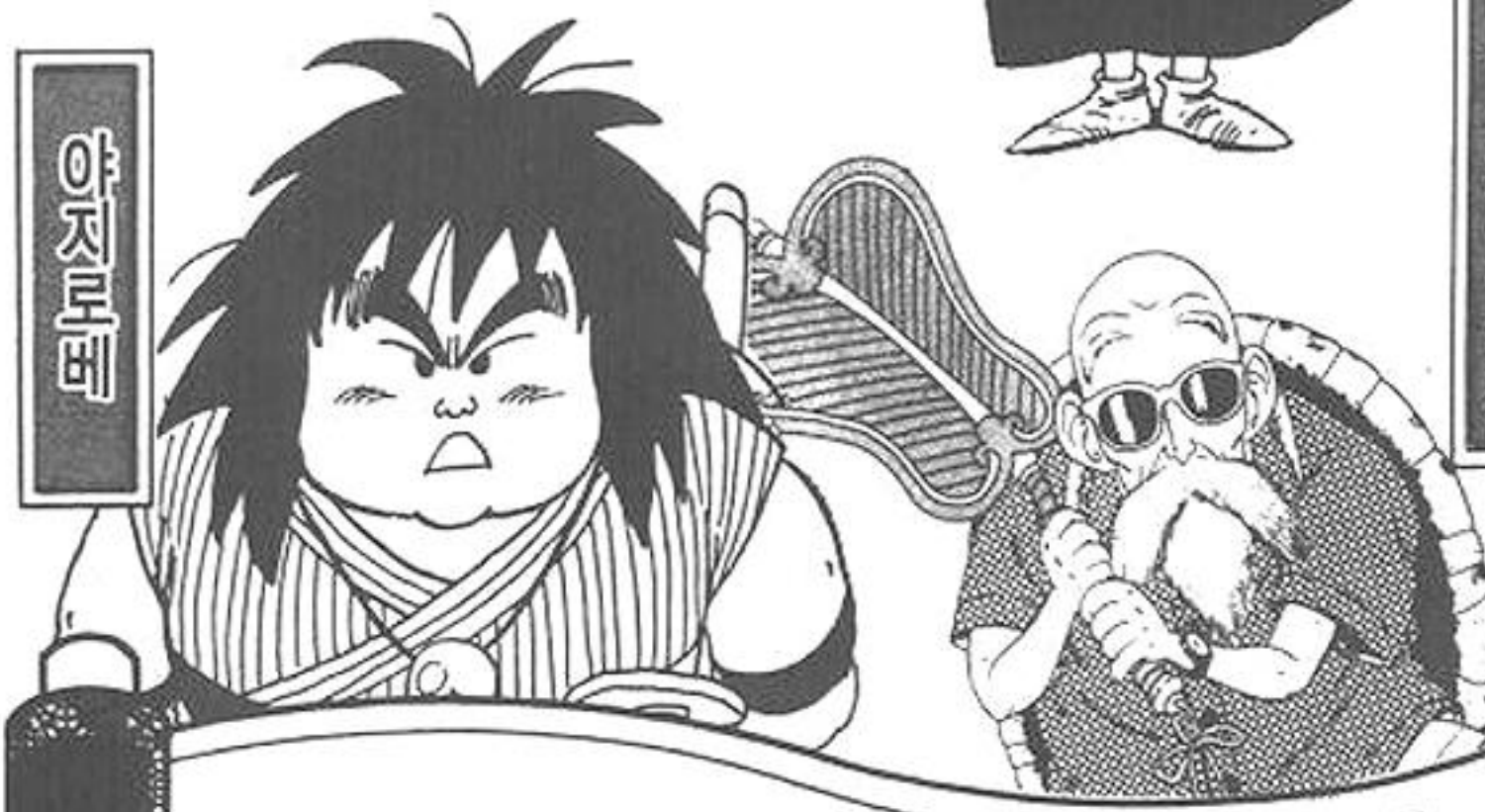
scan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악당 피라후가 못된 소원을 빌려 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모험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알게 된 우파의 아버지를 용신의 힘으로 되살려준 오공은, 다시 수련을 쌓아 3년 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친구 크리링을 피콜로 대마왕의 부하가 살해해 버린다. 분노한 오공은 피콜로에게 도전하는데…!!

DRAGON BALL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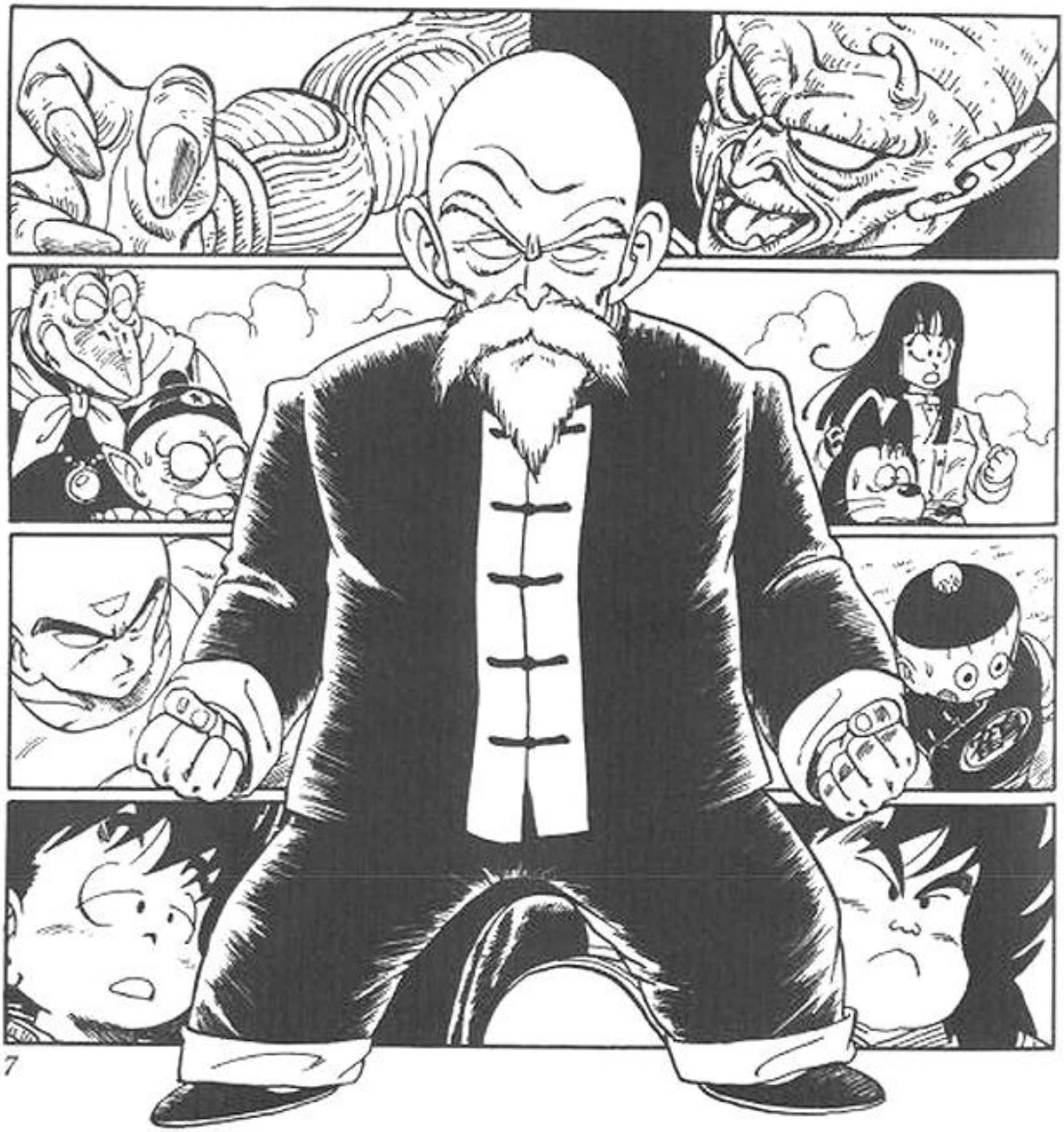
손오공의 역습!?



제145화 무천도사의 결심 …… 7
제146화 거북신선 최후의 마봉파!! …… 22
제147화 젊어지는가!? 피콜로 대마왕 …… 36
제148화 카린 님을 만나라!! …… 50
제149화 세계 정복 …… 64
제150화 카린 님의 고민 …… 79
제151화 초신수!! …… 94
제152화 손오공, 마침내 발진!! …… 108
제153화 천진반의 결의!! …… 122
제154화 천진반의 오산 …… 135
제155화 손오공의 역습 …… 150
제156화 분노!! …… 165
표지 페이지 대특집 XII …… 181

DRAGON BALL

제145화
무천도사의 결심



후후후…

PIL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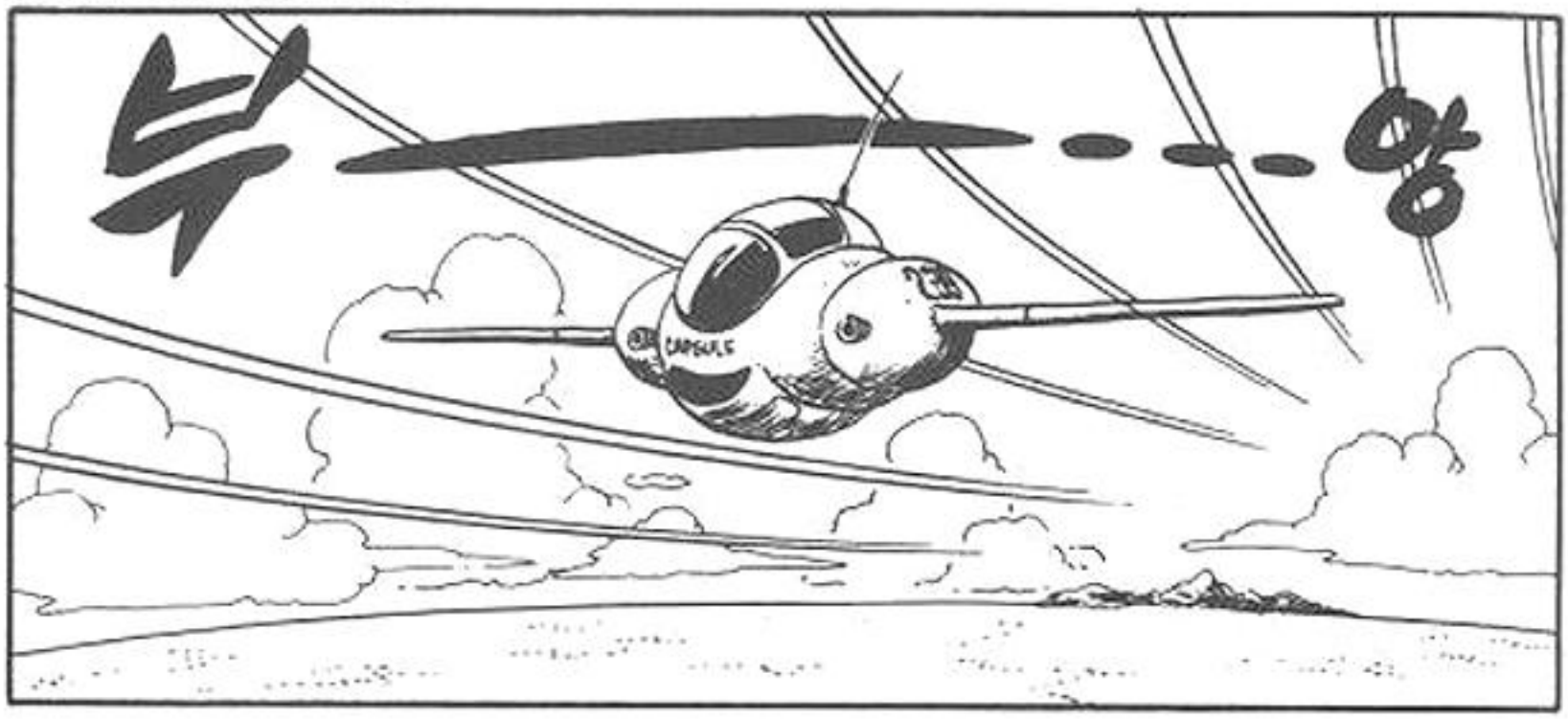
상대편의
다섯 개도
우리쪽으로
오고 있어요!

삑

삑

후후후…!
어떤 놈들인진
모르지만,
정말 주제 파악도
못하는 놈들이군….

하긴, 설마
나머지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이 피콜로
대마왕님이란 걸
알 턱이 없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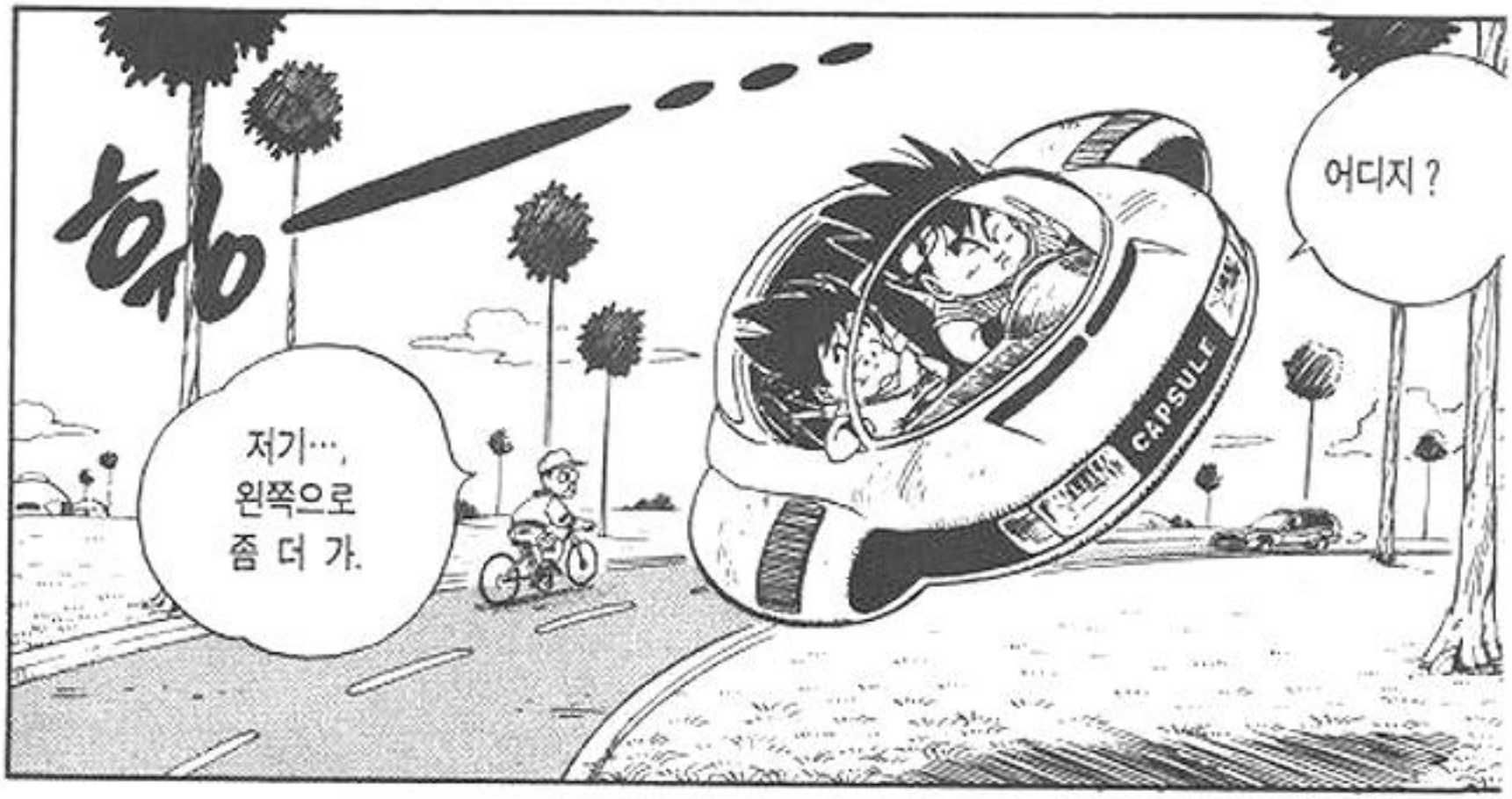

누---앙


빈틈을 노려서
상대의 두 개를 빼앗아,
우리 쪽 5개를 합쳐서
용신을 불러내야 해!
알겠지?
싸워도
승산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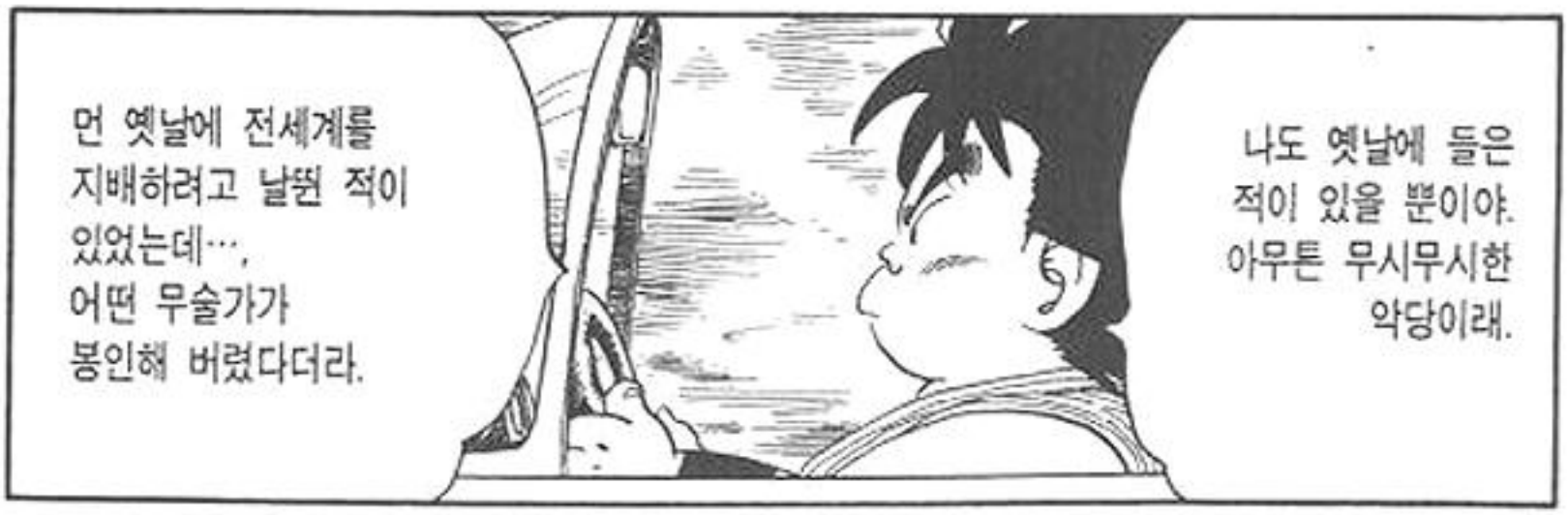

온다!
이쪽을 향해
오고 있어!


「피콜로 대마왕
일당을 이 세상에서
없애주세요」라고….


알았습니다….


CAPSULE
어디지?
저기…, 왼쪽으로 좀 더 가.


야지로베, 네 차 참 좋다.
그치? 슬쩍 한 거야.
그나저나, 그 피콜로 대마왕이란 놈한테는 다신 덤비지 마! 상대를 잘못 골랐다구.
근데, 넌 그놈에 대해 아니?


나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을 뿐이야. 아무튼 무시무시한 악당이래.
먼 옛날에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뛴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무술가가 봉인해 버렸다더라.


대단한데! 그런 놈을 어떻게 처치했지!?
그건 나도 잘 몰러.

정말이야.

어떤 소원이든?
에이, 뻥쟁이!

그런데 그 빼앗긴 드래곤 볼 이란 걸 일곱 개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용신이란 드래곤이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딱 한가지를 들어주지.

그러면 그놈은 그렇게 강한데 무슨 소원이 더 있을까?

아, 좀 더 왼쪽으로!

이제 곧 내 손에 젊음이 들어오는 거야!

찰칵

젊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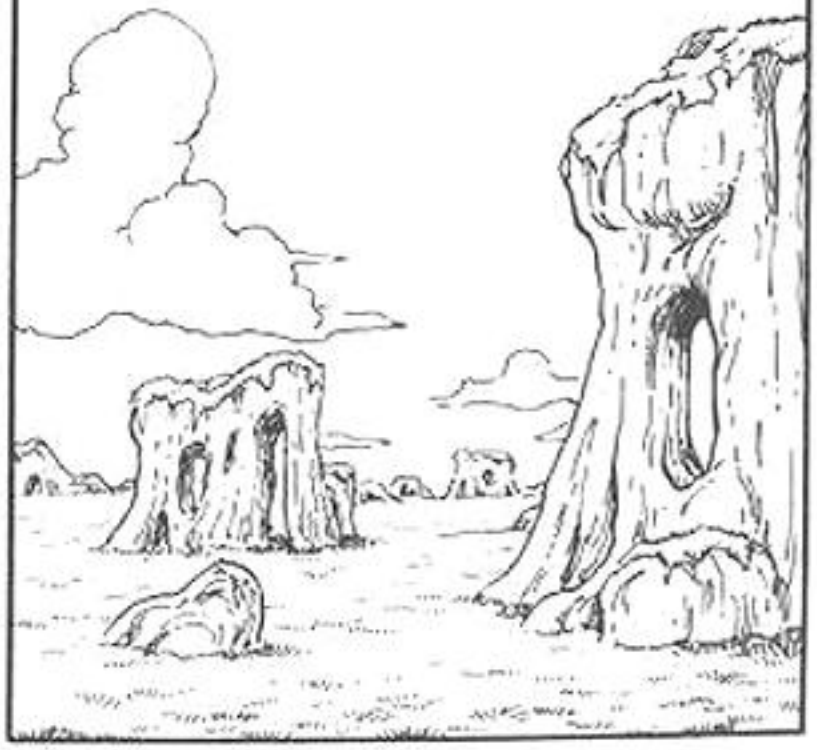
부아앙 · · · ·

푸하하하하!!


비행기를
다시 캡슐로
되돌려.
알았어요.
CAPSULE


됐어!
이 근처가
좋겠다.
내리자.
어떡할
거죠?


파
차앗!




탁
탁


그,
그런가?
이러면 금방
못찾으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
툭
둑


이 구덩이에
드래곤 볼을 넣고
숨기는 거야.
으, 응!

빼앗은 그 구슬 2개를 던져줄 테니, 잡아서 바로 여기 묻혀있는 나머지 5개와 합쳐서 용신을 불러내는 거야!

좋아, 잘 들어! 차오즈는 저 바위 뒤에 숨어라. 나하고 천진반은 피콜로가 구슬을 찾고 있는 틈을 노려 놈의 구슬을 빼앗는다!

아, 알았어!

그렇구나 …

「나와라, 드래곤」 하고 말이야, 그리고 재빨리 소원을 말해!

숨어!

지금 이 근처에 와있다!

좋아!

상관없어.
그대로
그 위까지
가라!

흐흐흐….
날 마중
하겠다는
건가…?

앗!
상대쪽 구슬이
저기서
멈췄습니다!

하늘이다!
놈들
비행선이!

하늘
이라고!?

부아아앙….

앗!

온다!


피콜로 대마왕님!
도착했습니다! 드래곤 볼 반응이 있는 곳 바로 위입니다!
좋아!
찾으러 가자.


부아앙!!!

착륙하지 않는데요….

두 개의 구슬은 그냥 비행선 안에 놔둘 생각인가 봐요….

그러면 눈치채지 못하게 올라가서 빼앗을까…?

숨겨 뒀겠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겠군.

상대방도 당연히 이 두 개를 노리고 올 거야.


끌끌
후후후…
쩝…


그, 그렇다면
놈을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다…!
제, 제길~!
여우 같은
놈…!
드, 드래곤
볼을
삼켰어…!
저, 저놈이
피콜로
대마왕…!?
아니,
저런!


넌 숨어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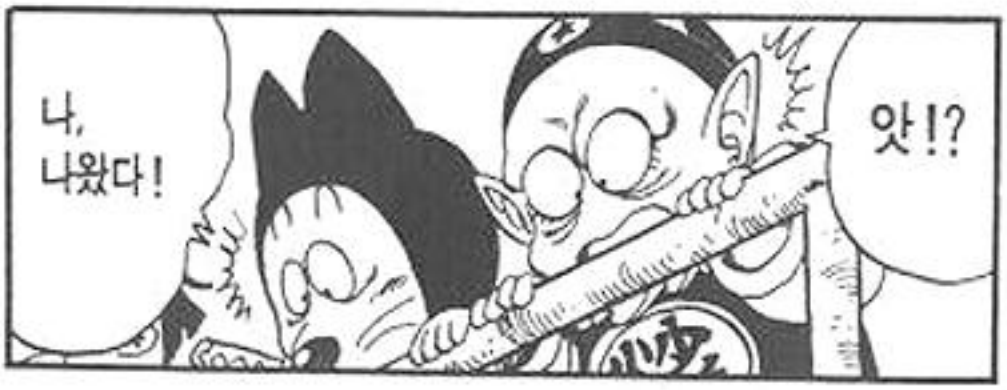

없겠네요.
싸울
수밖에….


불로불사의
물을
마셨으니까….
난 죽진
않아!


—— 악
그럼 난 여기 뭐 하러 온 거죠!?
말도 안 돼요!
어….
난 싸우겠어요!
미안하지만, 넌 자고 있어.
만약…, 내가 죽으면 손오공도 없는 지금 대마왕을 쓰러뜨릴 사람은 너뿐이야….
불로불사의 물 따윈 없어…. 거짓말이지.


아,
알았어.
으, 응!
아까 그 작전은
취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숨어있어야 해!
차오즈,
들리니?


……
모두들…,
잘 있거라….


나,
나왔다!
앗!?




드래곤
볼은
여기
있다!
내려와라!
피콜로!!

그렇지만 피콜로 대마왕이란 걸 알면서도 싸우겠다고 덤비다니. 머리가 좋은 놈은 아니야….

호호…. 날 알아보다니! 기특하군!

탁

휘

용기만은 대단하구나!

내가 모은 드래곤 볼은 여기 묻혀있다!

날 쓰러뜨릴 수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보시지.

풋!

이하하!

재밌는 영감 이군!

지금 실컷 웃어라…!

자… 자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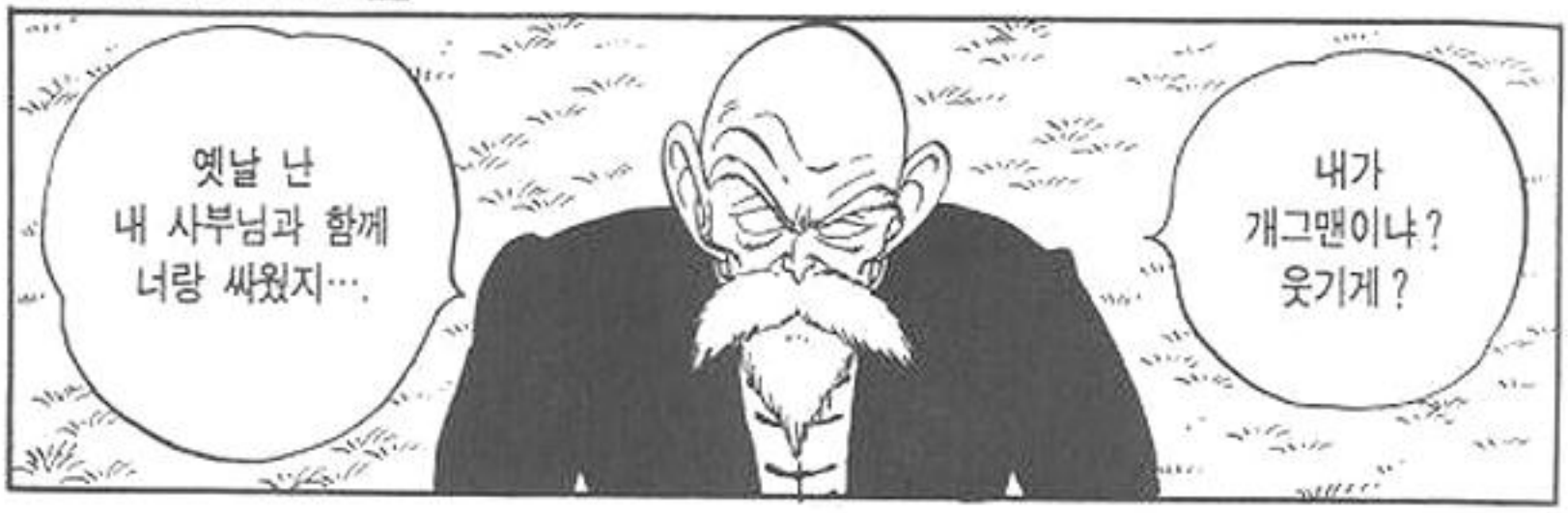
다음은, 제146화 거북신선 최후의 마봉파!!


모르는 놈….
소문으로만
해 알 테니
도 아니지.
하하하…!
아무래도 너 진짜
나랑 싸울 결심이구나.


너랑
만나는 건
이게
처음은
아냐.


하하하
하하하!
저 멍청이 놈!
어슬렁 어슬렁
기어나와서는
피콜로 대마왕과
싸울 생각인가봐!


크흐흐흐…!


옛날 난
내 사부님과 함께
너랑 싸웠지….
내가
개그맨이냐?
웃기게?


사부님의
성함을
가르쳐
줄까…?


뭐라고!?


무태두
님이라고!

찰칵

싹

휙 휙

BOM!

뭐…!

뭐야!?

엑!
전기밥통!

으…!
아니…!

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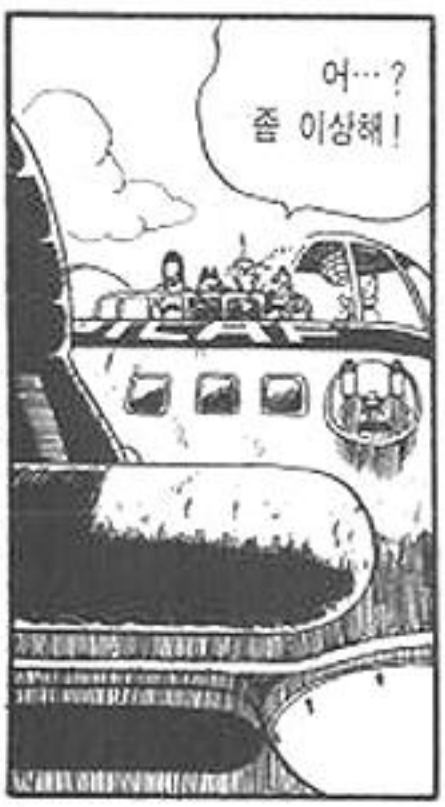
魔


역시
무천도사 님은
마봉파를 알고
있었어…!
죽을
각오야…!
마봉파다!
마봉파를
쓸 생각
이야…!


!!


그 옛날 무태두 님이
네놈을 전기밥통에
봉인하여 세계를
마수에서 구하신
기술 말야…!!
기억이
나나?
물론 기억하고
있을 테지!!


서…,
설마!
설마…!
왜
저러지?


어…?
좀 이상해!


으…!
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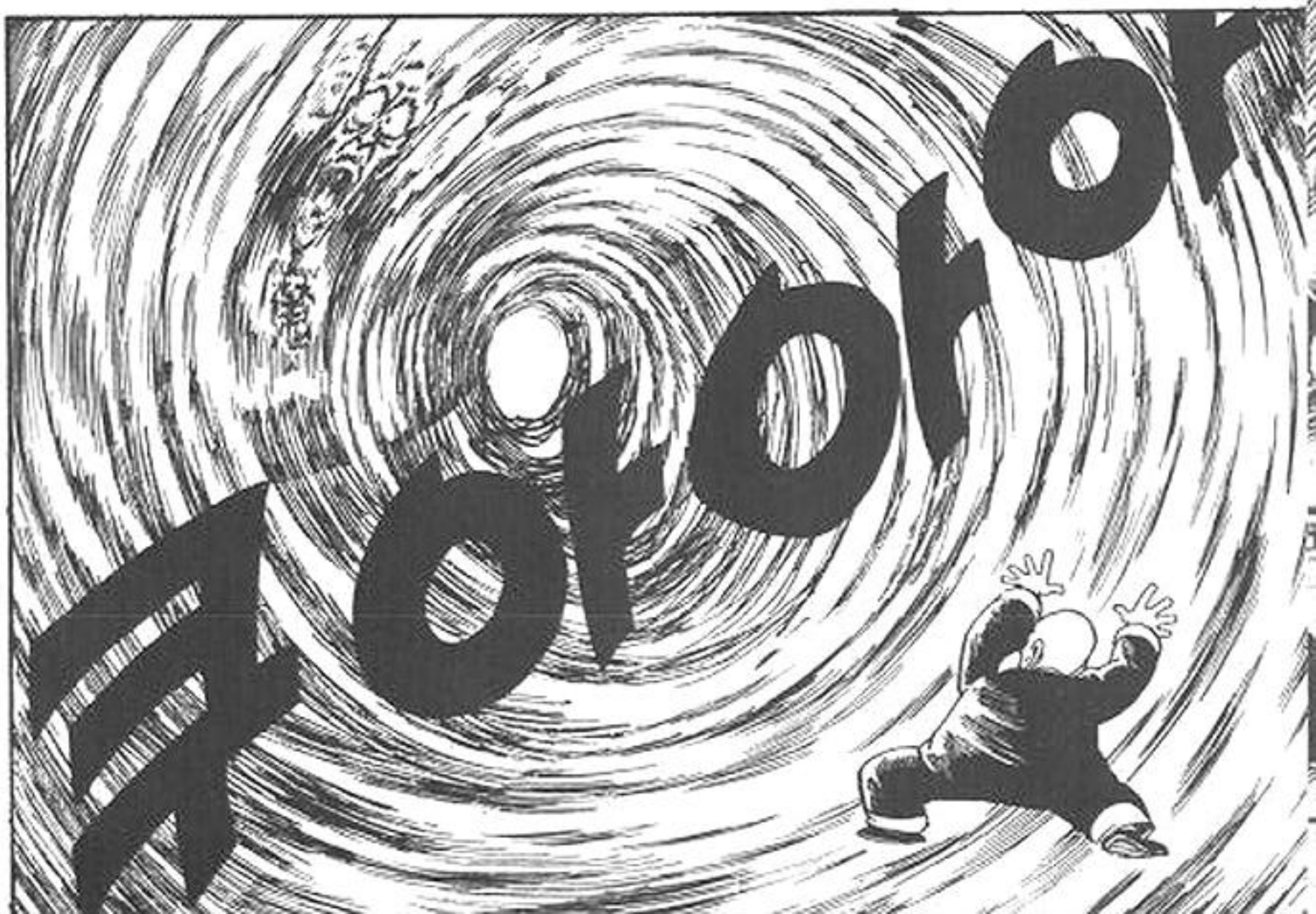

와—앗!!
마봉파!!
파파


ㅎㅎㅎㅎ


아아앗!


저건… !!
!!


크으으으… !


HOHOHOH


ZO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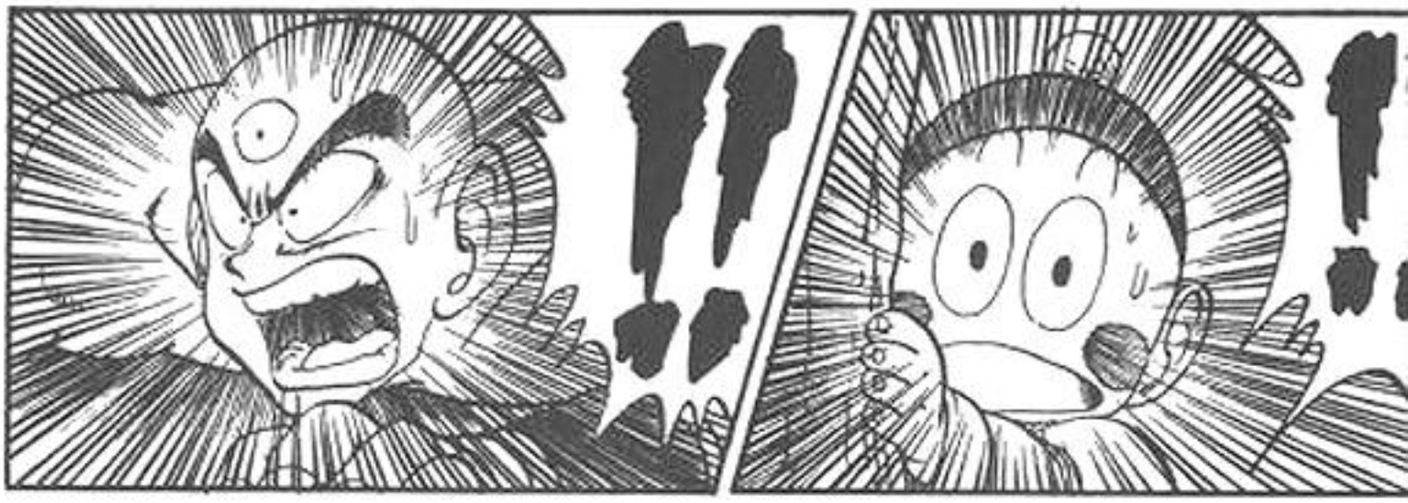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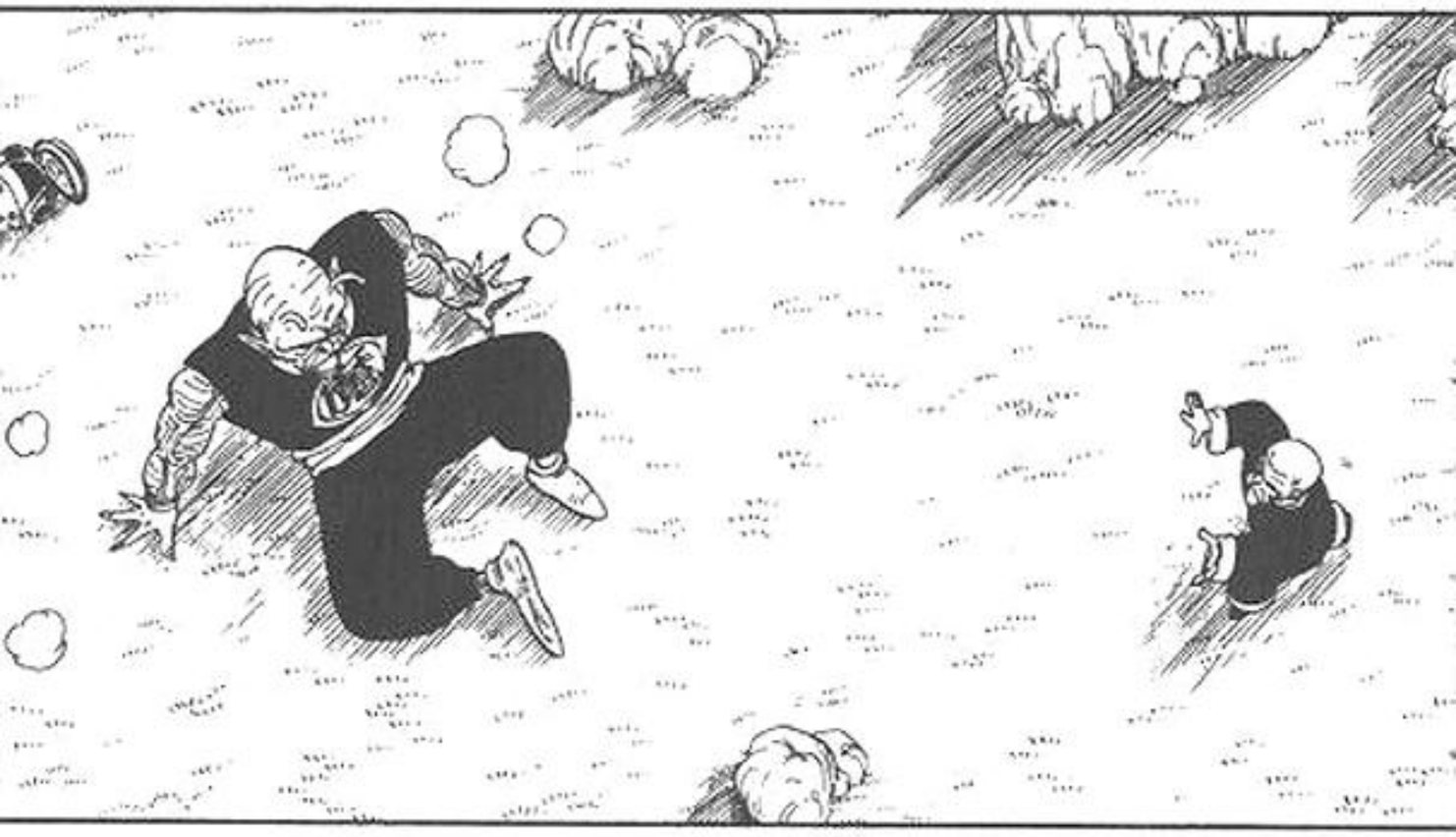

차아앗!!

하앗!!

이런…!

빗나갔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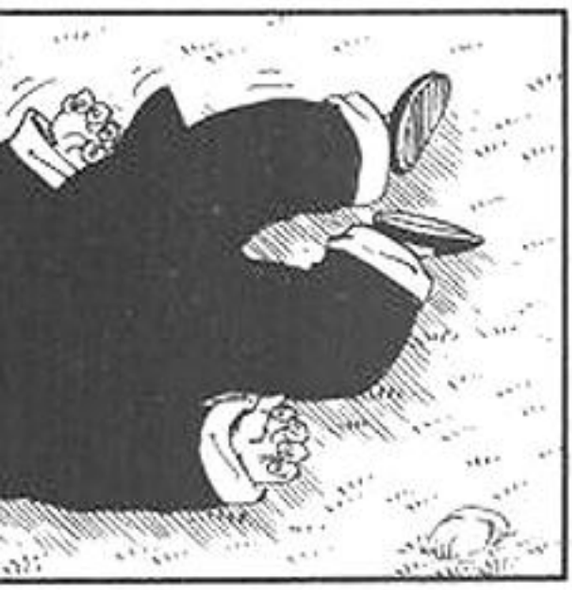





이… 이런 실수를…. 아… 아깝다….
트…, 틀렸어.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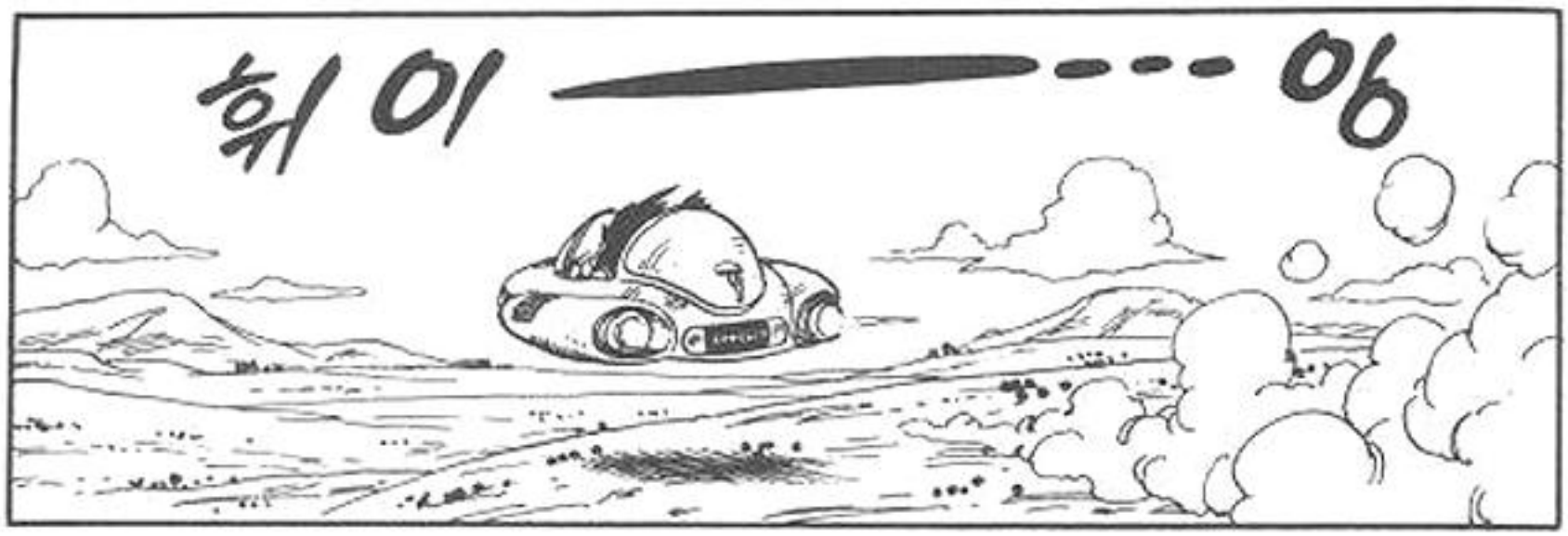

그… 그렇지만
이걸로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으….


하…!


……!


휘이 ——— 06


……
왜,
왜 그래?
쉬 마려?


앗!


너,
맞은 데가
아파서
그러니?
정말 묘한
녀석이네….


잘…
모르겠어
….
무…
무언가….


죽었어!
멍청한
놈—!!
으하하하!
죽었다!!

이,
이겼다!
하하하!

그렇지만
그놈도
죽었어!

설마
마봉파를
쓰는 놈이
있을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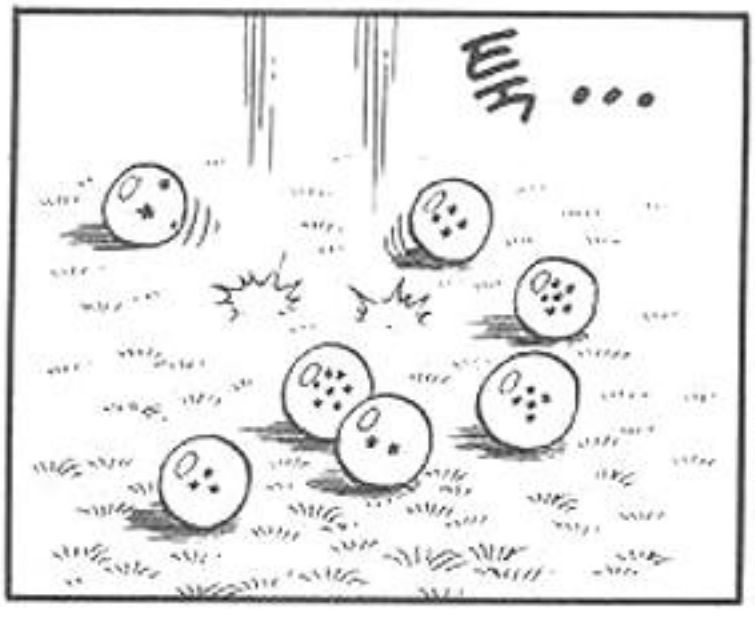
근데
정말
위험했어…!

퍽

꾸욱

게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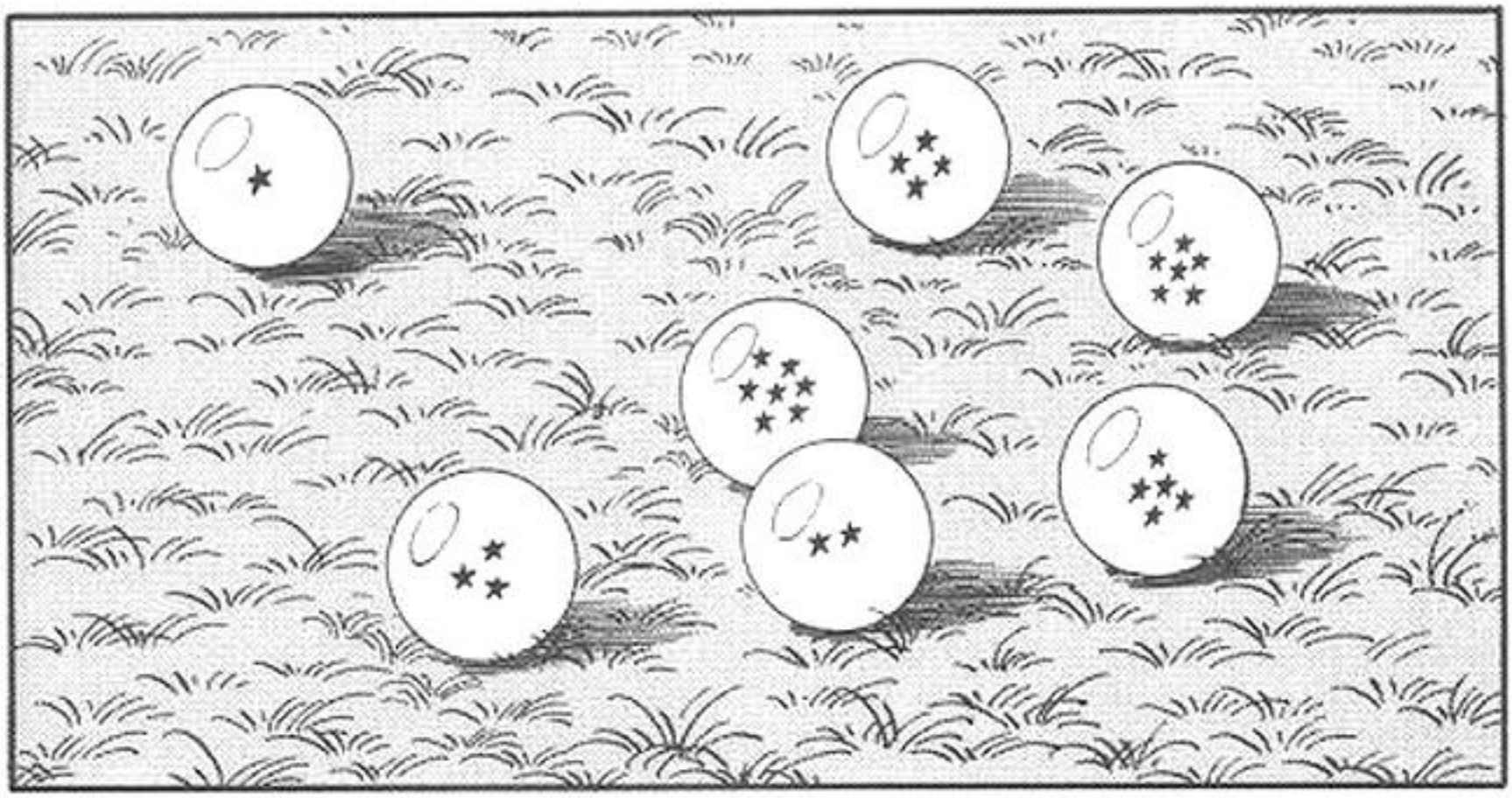








다음은, 제147화 젊어지는가!? 피콜로 대마왕



이제
드래곤 볼을
7개 모두 다
모았다!

드디어
젊은 시절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






노…. 놈의 목적은 젊음 이었구나….
그… 그러…!


팟
!
魔


용신 이란 거!!
자, 나와라!
界


가. 갑자기 어두워 졌네!
앗!

이, 이제
피콜로
대마왕님은
진짜 천하무적
이야!

드, 드디어
용신이
나타난다!

그…
그러면
이 세상은
끝장이다…!

아…, 안 돼!
녀… 녀석이
젊어지면 더더욱
처치하기 힘들어져….

파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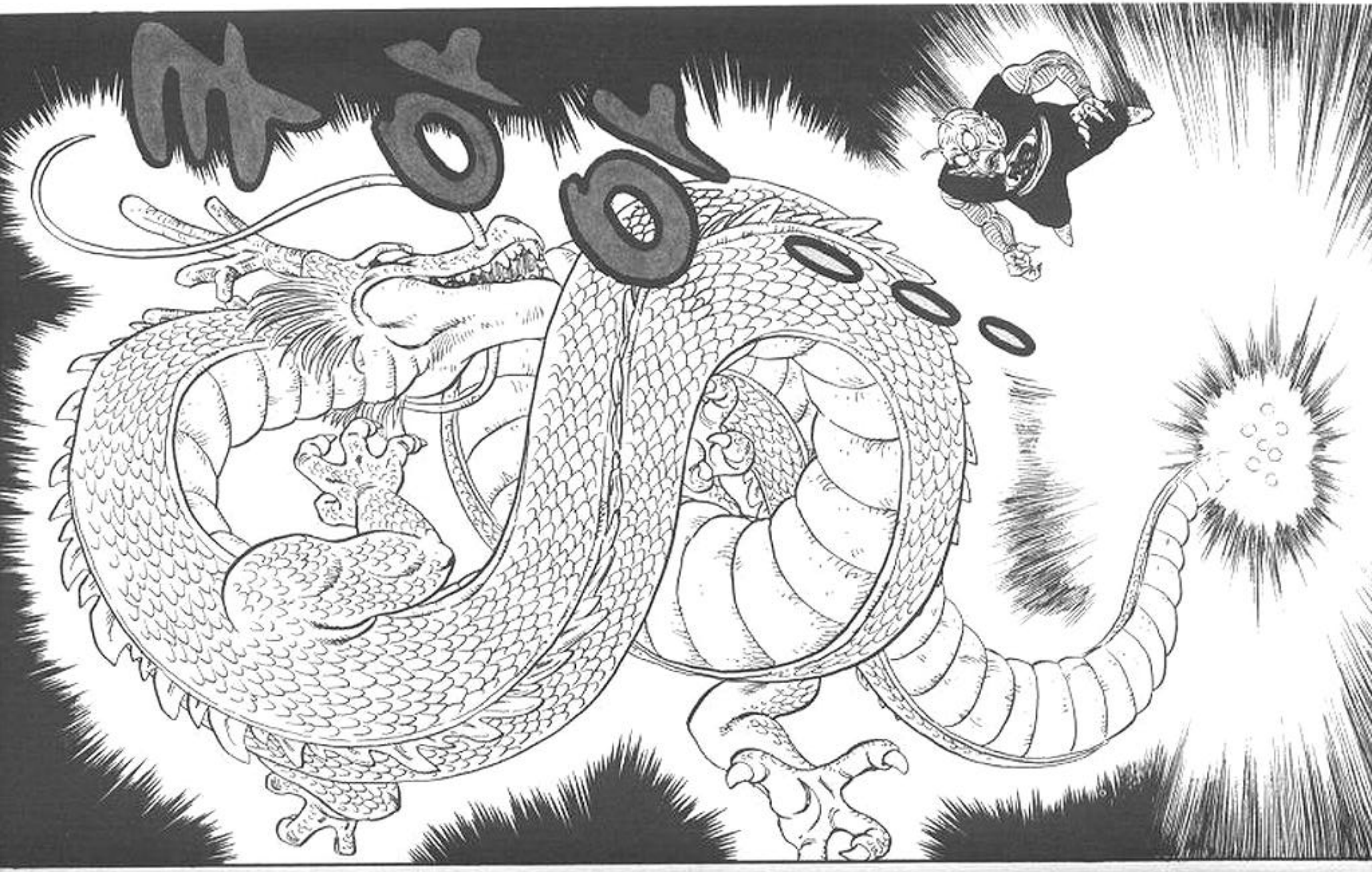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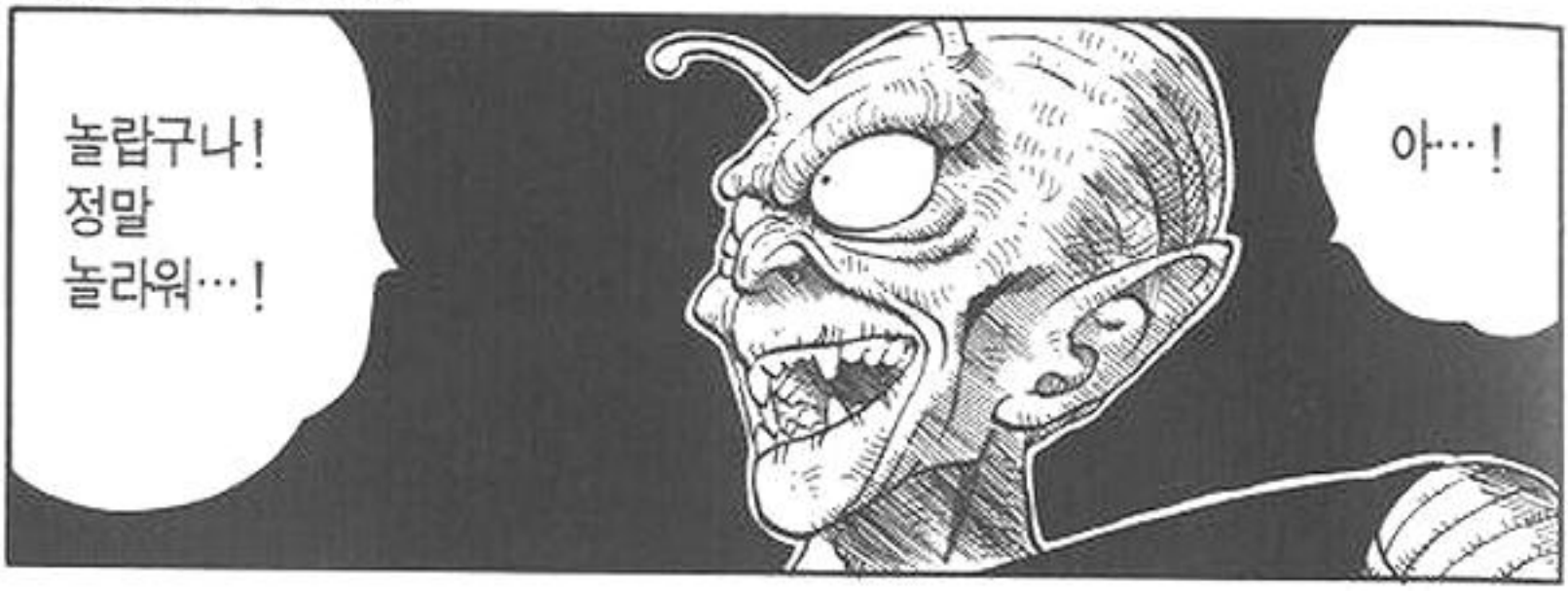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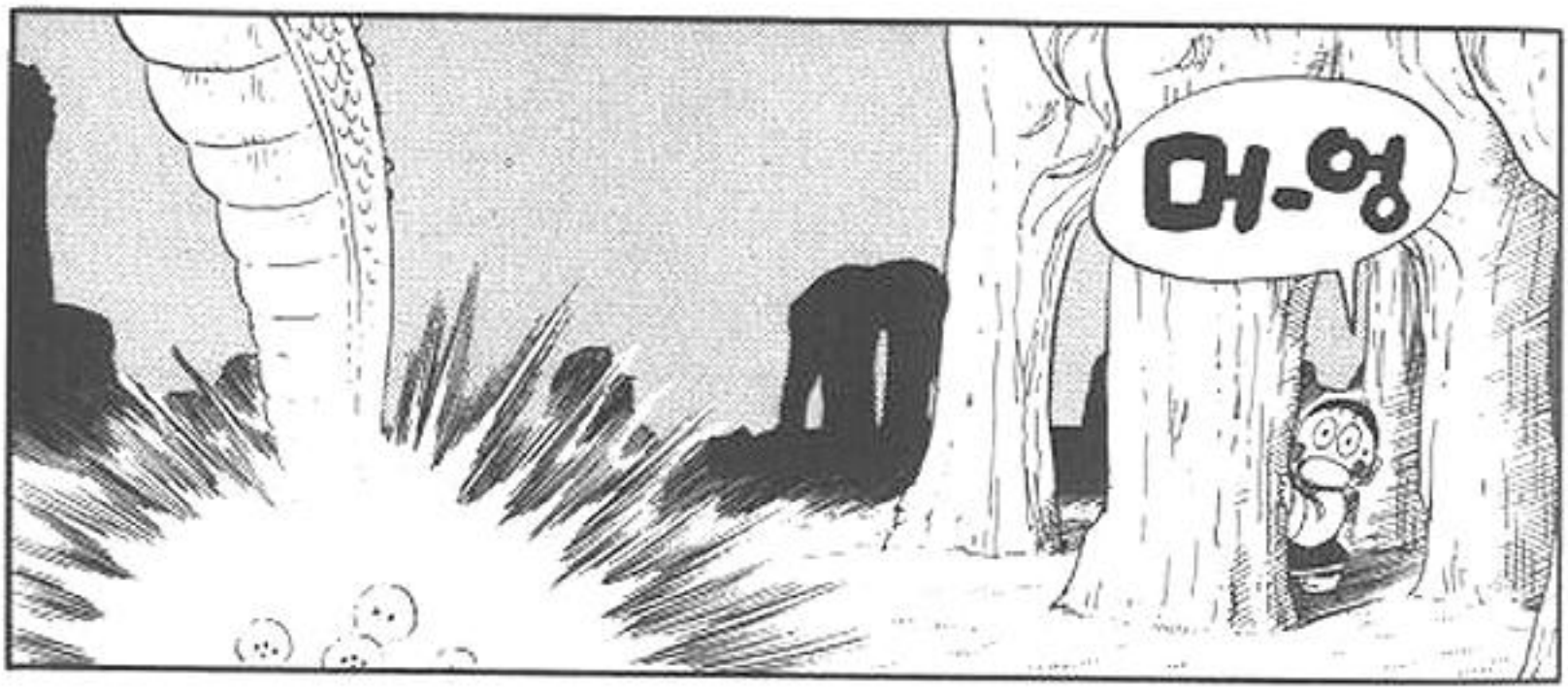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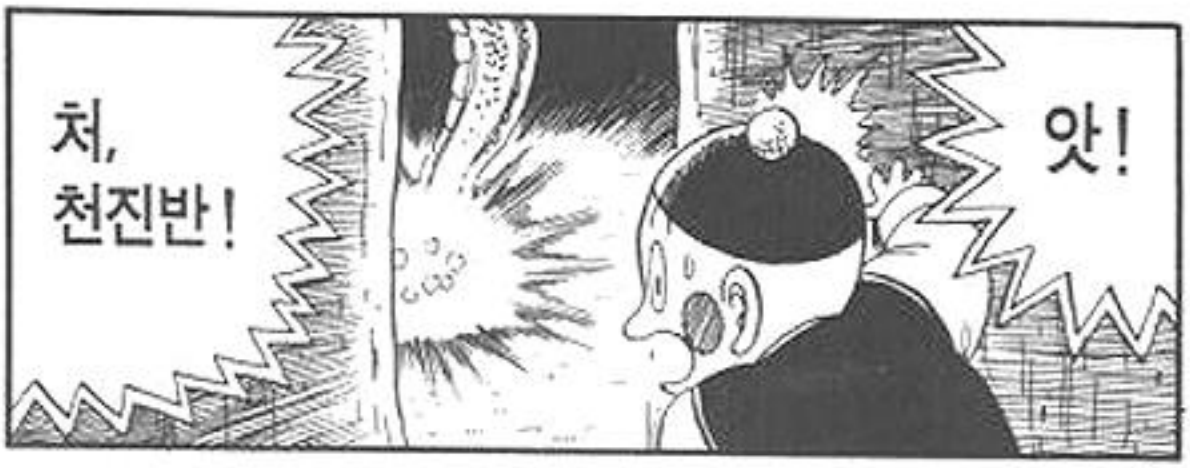

나왔다!


카오오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아…!


머-엉


처,
천진반!
앗!


차오즈!
들리니?


부…부탁이다!
저…저놈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소원을
말해버려…
자, 잘 들어…!
난 무천도사 님이
이상한 약을 뿌려서
의식이 몽롱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피…
피콜로
대마왕을….

알았어…!

그,
그래!

어떤 소원이든
하나만
들어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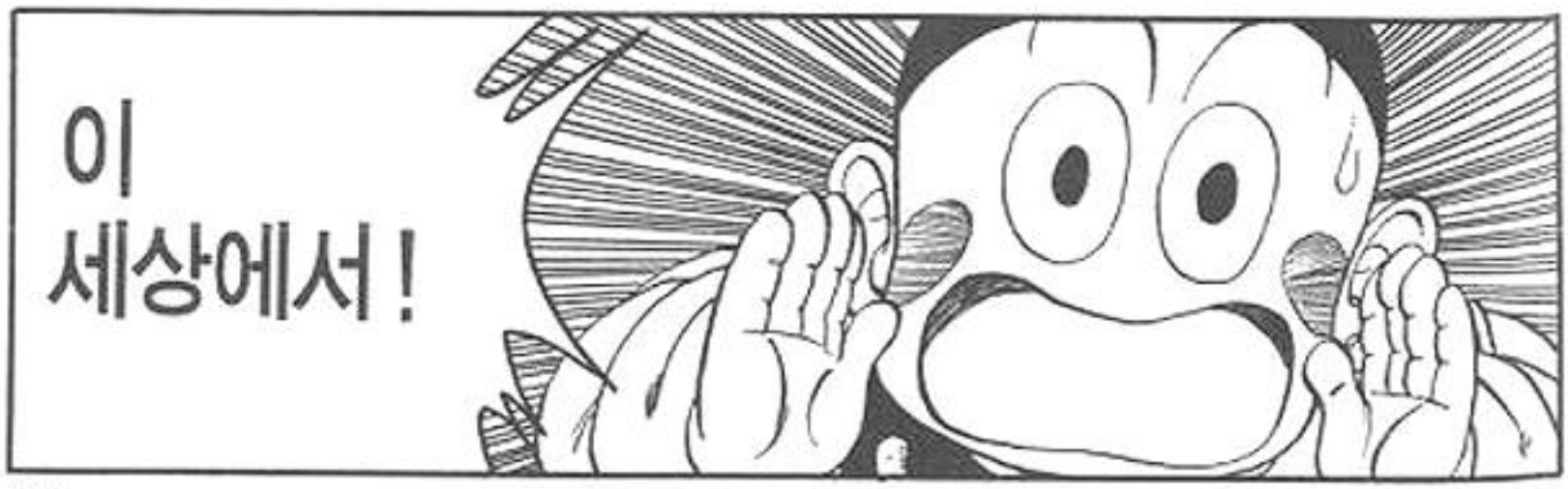
자,
소원을
말해라!




그럼
말하지.
나에게….


피, 피콜로
대마왕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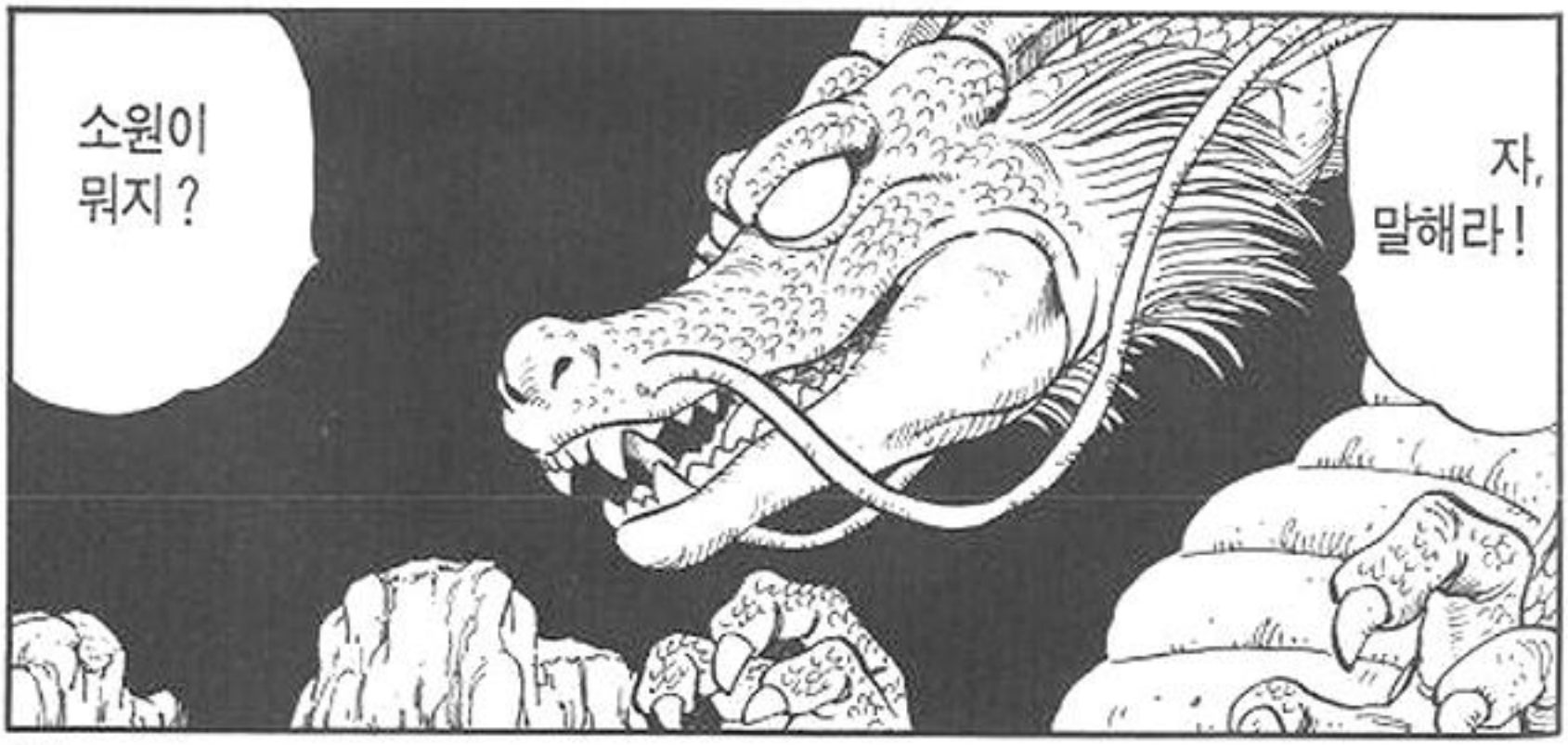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카—앗!!
없…!
!!


이런 제길…!
빌어먹을…!!


차…
차오즈!


후우…!
한패거리가
있을 줄이야…,
위험했다….


소원이
뭐지?
자,
말해라!

힘이 가장
넘치던
그 시절로!

魔

다시 나를
젊게 만들어
다오!

거야
식은 죽
먹기라네!

어때?
가능하지?

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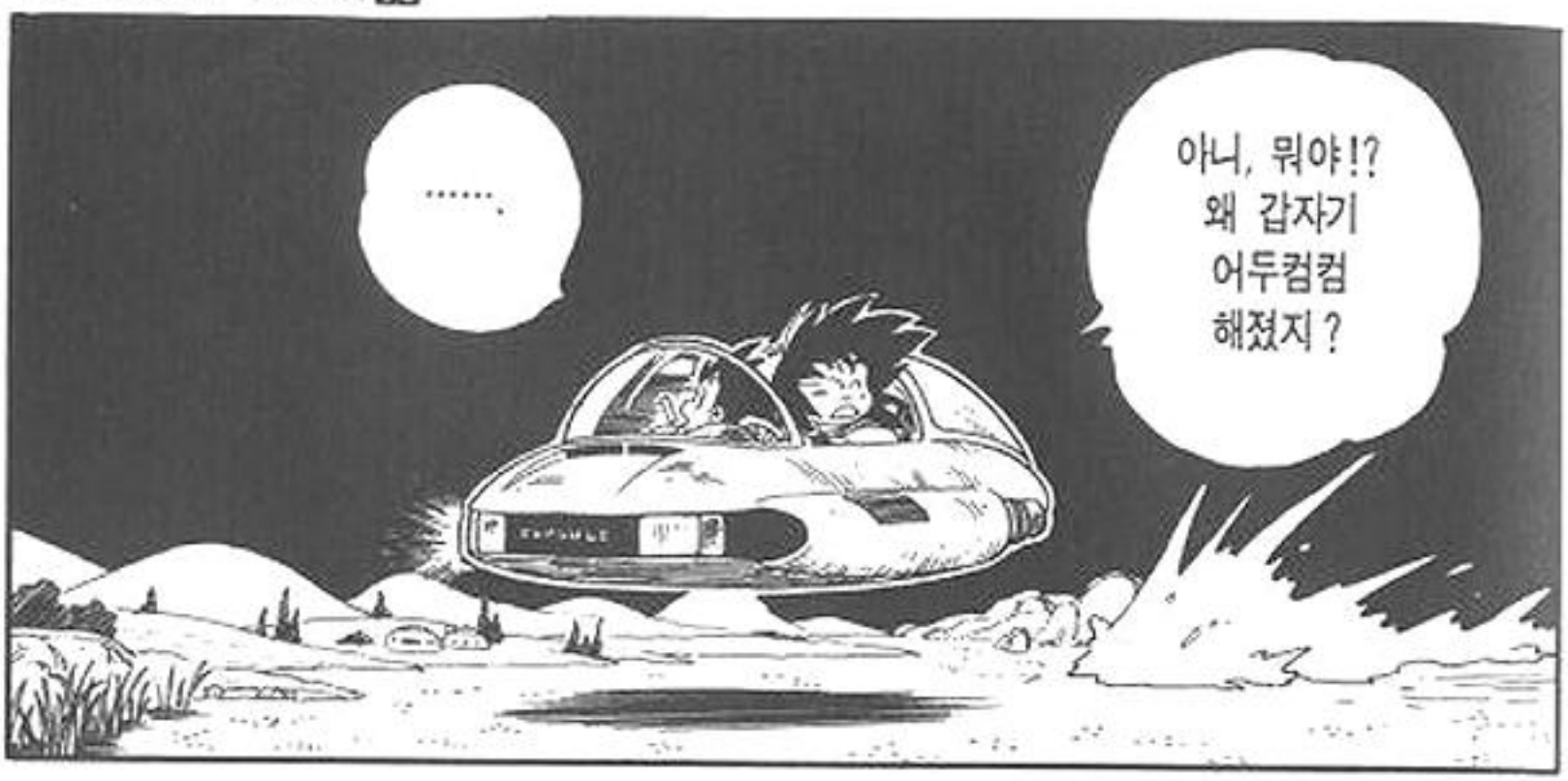

구우우우……
魔
아앗…!
구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
아아!

그래, 이 맛이야!
이 넘치는
파워의 느낌!!

하하하
하하하!

魔

내가
다시
젊어졌다!









다음은, 제148화 카린 님을 만나라!

힘이 솟아 오른다구 — !

으하하하하 ! 젊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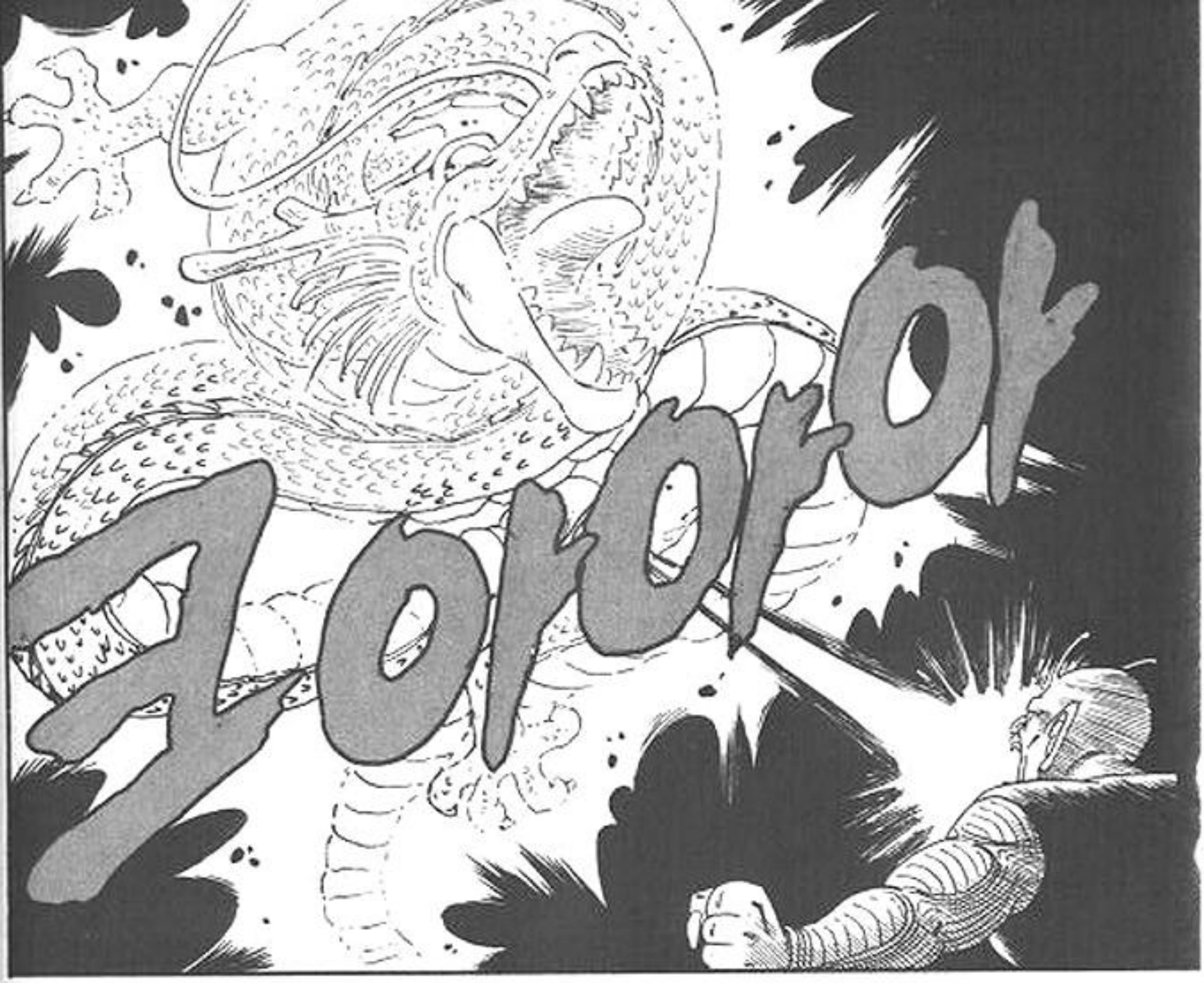
대마왕님 ! 만만세 — !

만세 ! 젊어졌다 !


그럼
이만!
소원은
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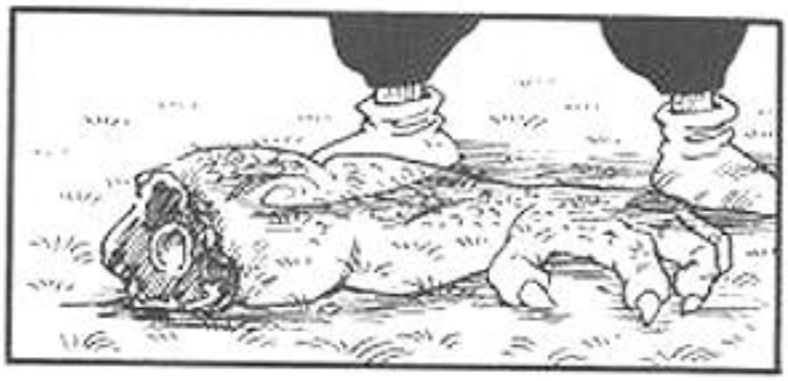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크흐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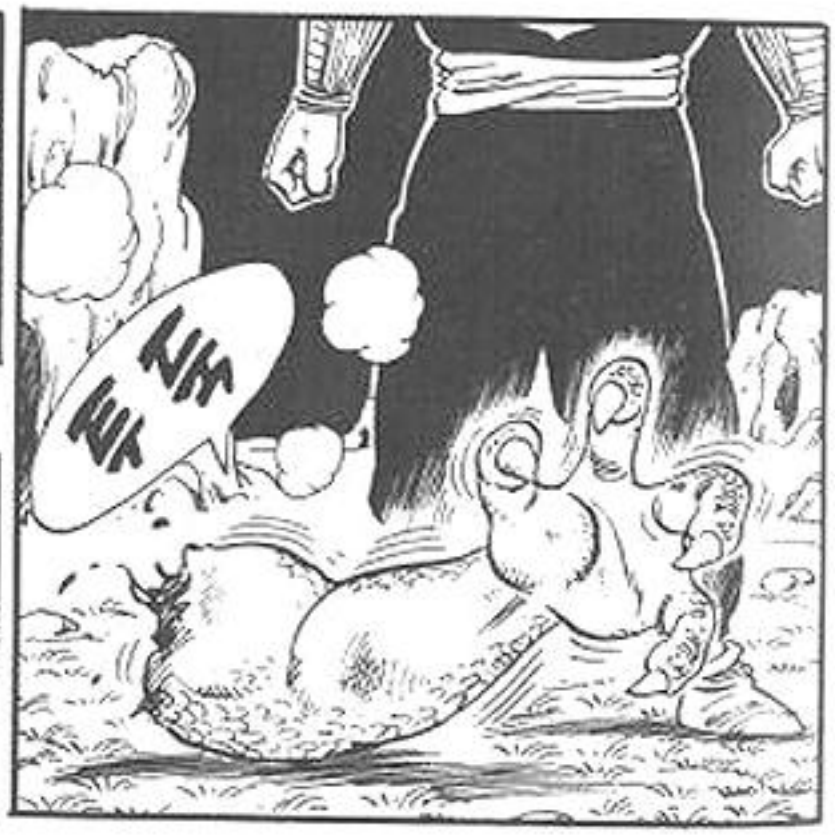

퍼억
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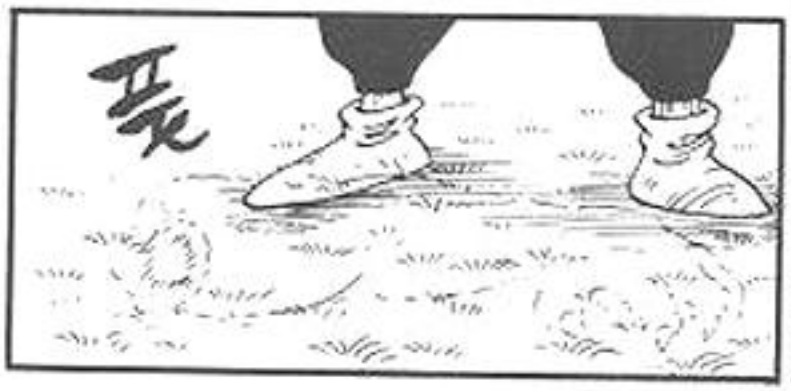

AOFOF


IFOF


아앗!!




냐하하




마인

용신은 죽었어!
이제 어느 누구도
나 피콜로 님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다구!

우하하!
시시껄렁한
돌멩이가
돼버렸구나!

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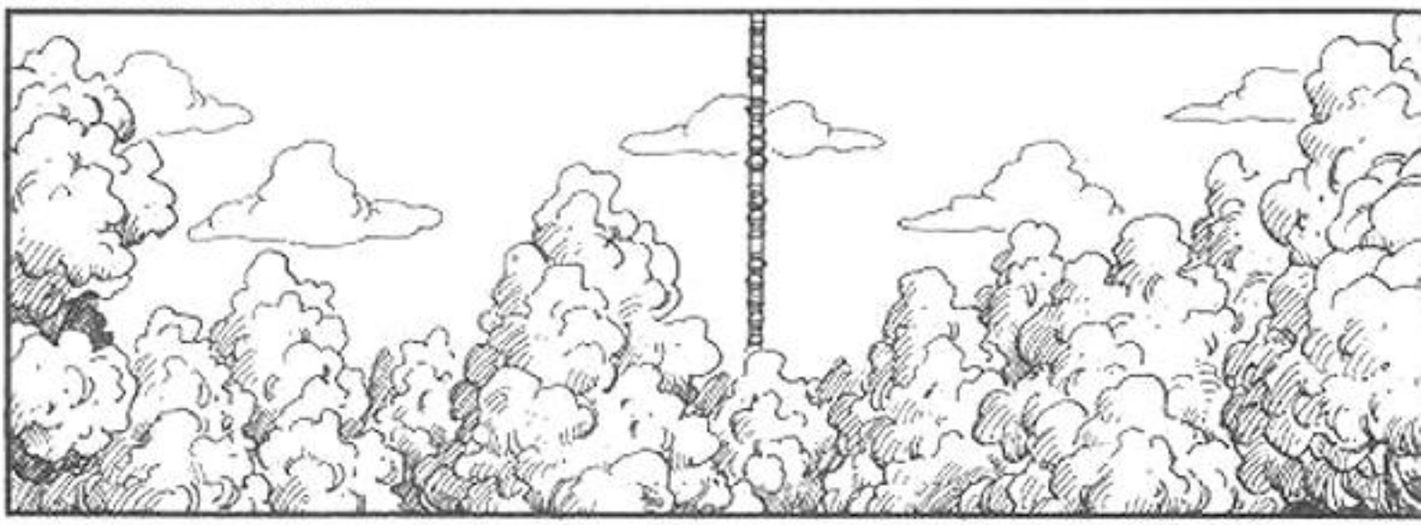
덜컥...

이런...,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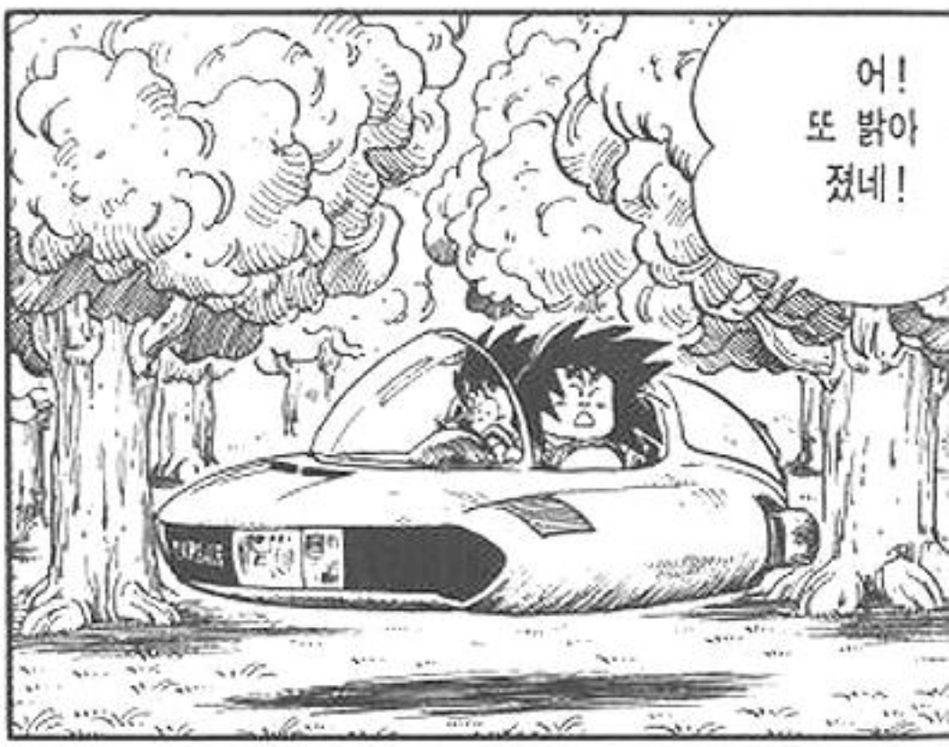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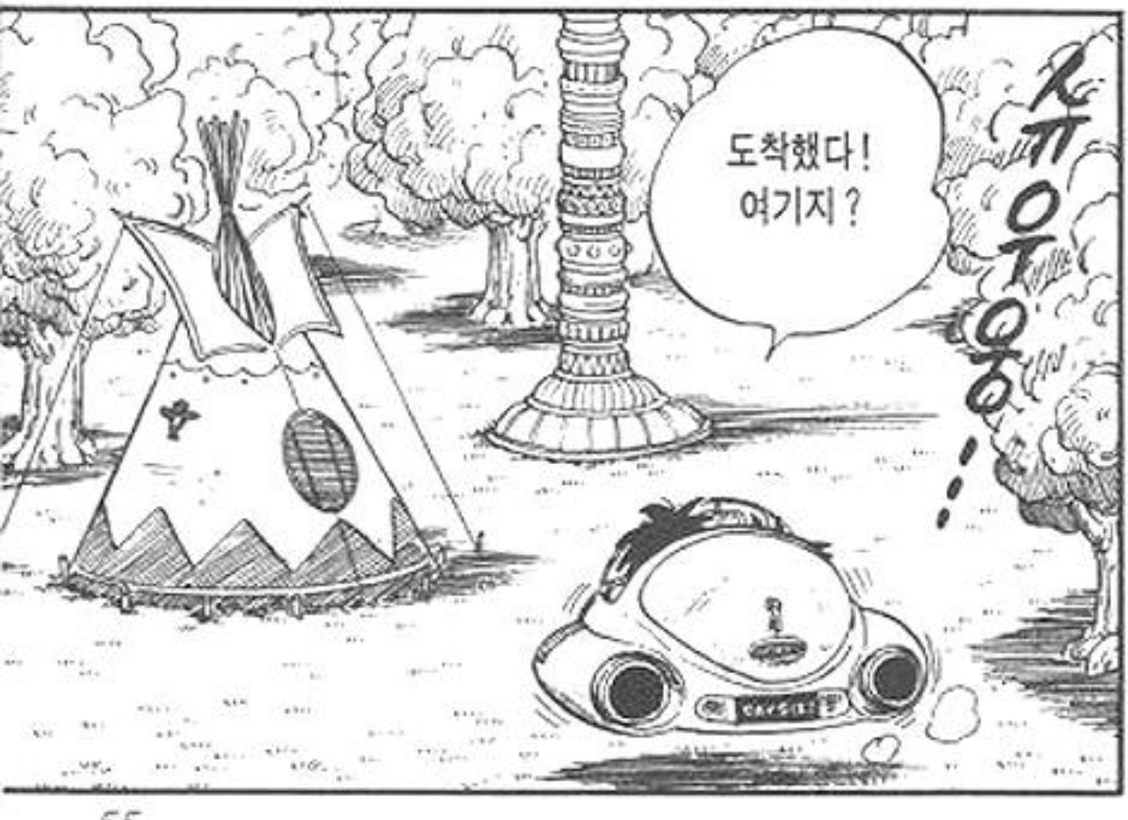
크하하!
캡이다!
기분
죽인다구!

魔




역시 그놈이 용신을 나타나게 한 거야…!
드래곤 볼 반응이 없어졌어!


어! 또 밝아졌네!


도착했다! 여기지?
우우웅…


그… 그렇게 대단한 놈이 무슨 소원을 말했을까…?

이런 데 무슨 볼 일이 있는 건데?

CAPSULE

정말 오랜만에 오는구나 …

CAPSULE

오공 형!

우파!

어라? 형!

오공
형이야!
오공 형이
왔어-!

아버지!
아버지-!

잘 있었니?
키가 많이
컸구나!

우와-!
반가워!
정말 오랜만
이네!

아,
손오공!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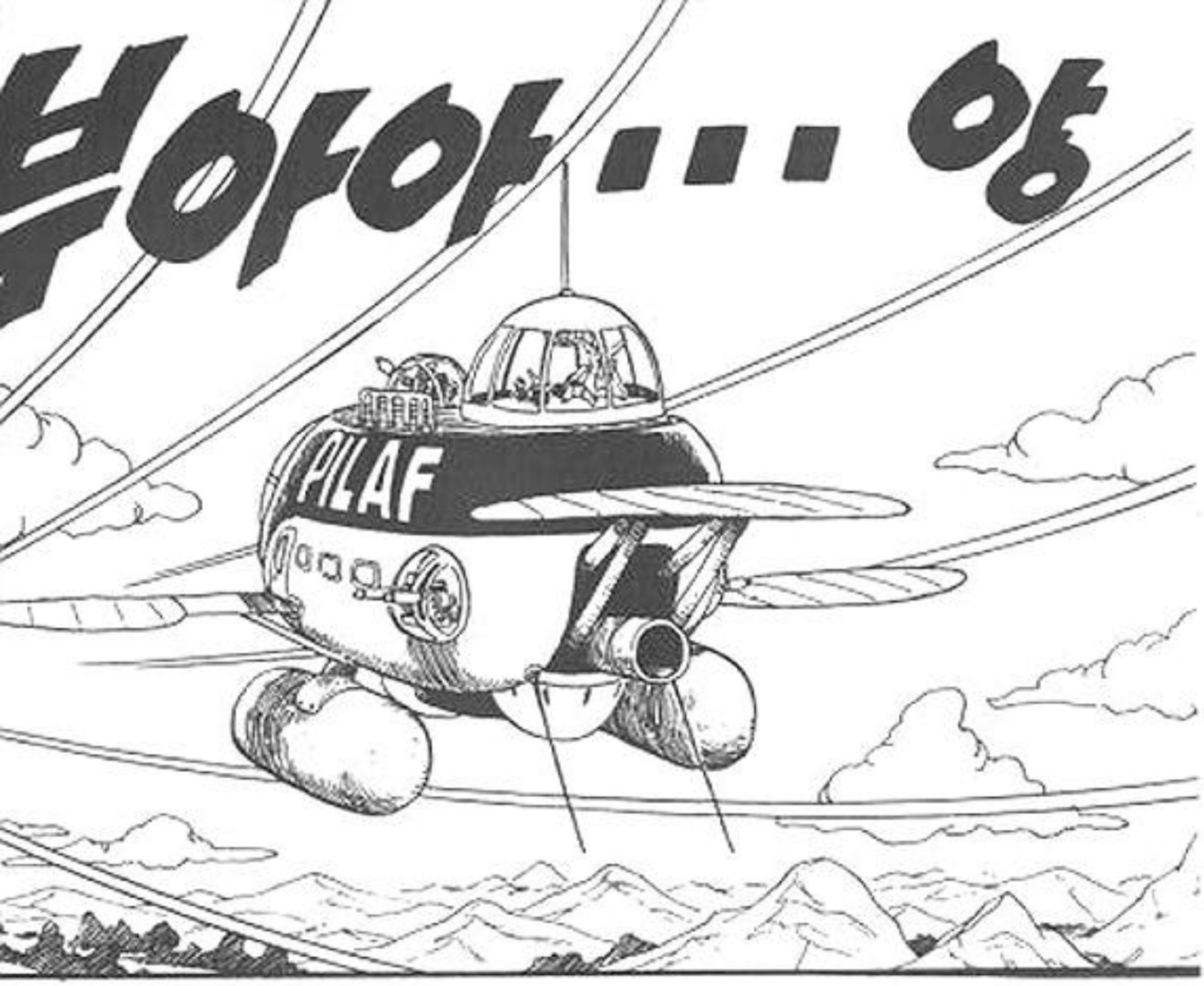
잊지는 않았지?
맛있는 걸 먹게
해준다고
약속한 거.

다리가
후들거려.

응….
무쟈게
맛있거든.

무슨 일이니,
손오공!?
왜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

어?


PLAF


드디어
온 세상이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
魔

새로운 세계의 국왕은 나 피콜로 대마왕님이시다!

국왕의 숨통을 끊어놓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테다!

이 세상을 악이 넘치는 멋진 세계로 바꿔주마!

으하하하!!

……

으하하 하하…!!

저기…, 저어…. 세계의 왕이 되신 피… 피콜로 대마왕님….

우… 우선 축하 드립니다….

그…, 근데 지난번 약속 말씀인데…. 이 세상의 어느 정도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5분의 1…, 아니 10분의 1이라도 좋습니다만….

후후후! 그랬지….

피아노, 저 두 사람과 조종을 교대하고 이리 보내도록 해라.

예!

아자!

가, 감사합니다!

어이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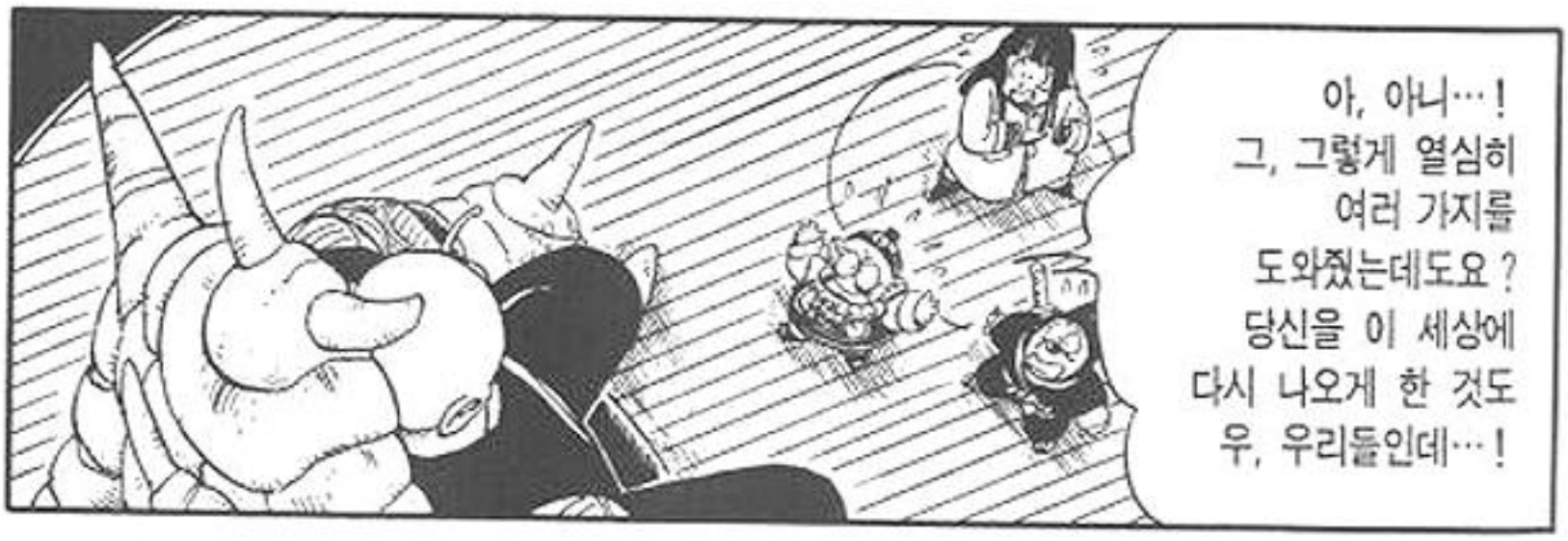
저… 저기…. 그런데 어느 곳을 주시겠습니까?


예?


이젠
너희들이
필요없어!
당장
꺼져라!


알았어?
난 농담
싫어해!


노,
놀리지
마셔요….
에이~!
또… 또 무슨
농담을….
하하….


아, 아니…!
그,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를
도와줬는데도요?
당신을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한 것도
우, 우리들인데…!


히익!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느냐?
지금
당장
꺼져.

그래…?

그렇게 무서운 놈이?

그래서 키린 님에게 날 더 강하게 수련시켜 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야.

으아아 아악!

그렇지만 그 부상 당한 몸으론 키린 탑을 올라갈 수 없어.

야지로베가 데려다줄 거야!

워라 고라!?

야지로버 라면….

올라 갈 수 있어.


뭐!?
먹을 건 저 카린 탑 꼭대기에 있걸랑.


미쳤니? 농담 마! 내가 왜 올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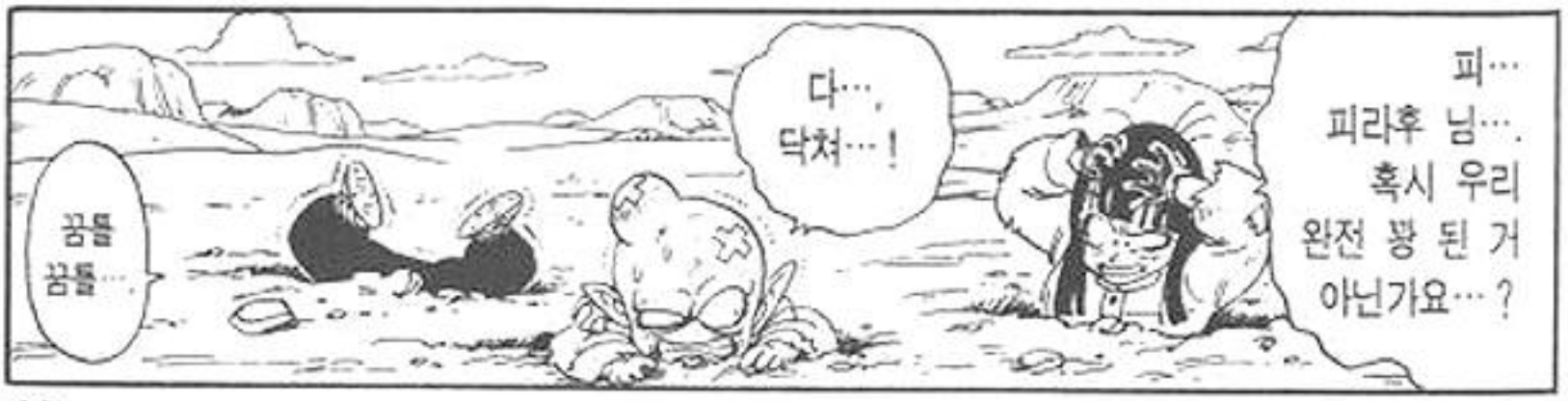

근데 무쟈게 높은 탑이네.
할 수 없군. 올라 가보자.


이름 한번 이상한 음식이네….
선두?


정말이야! 선두라는 건데.
정말? 거짓말 아니지…?


나도 도와줄게.


미안해.
꽉 잡아!
떨어져도 난 몰라! 투덜투덜….


꿈틀 꿈틀….
다…, 닥쳐…!
피… 피라후 님…. 혹시 우리 완전 꽝 된 거 아닌가요…?

DRAGON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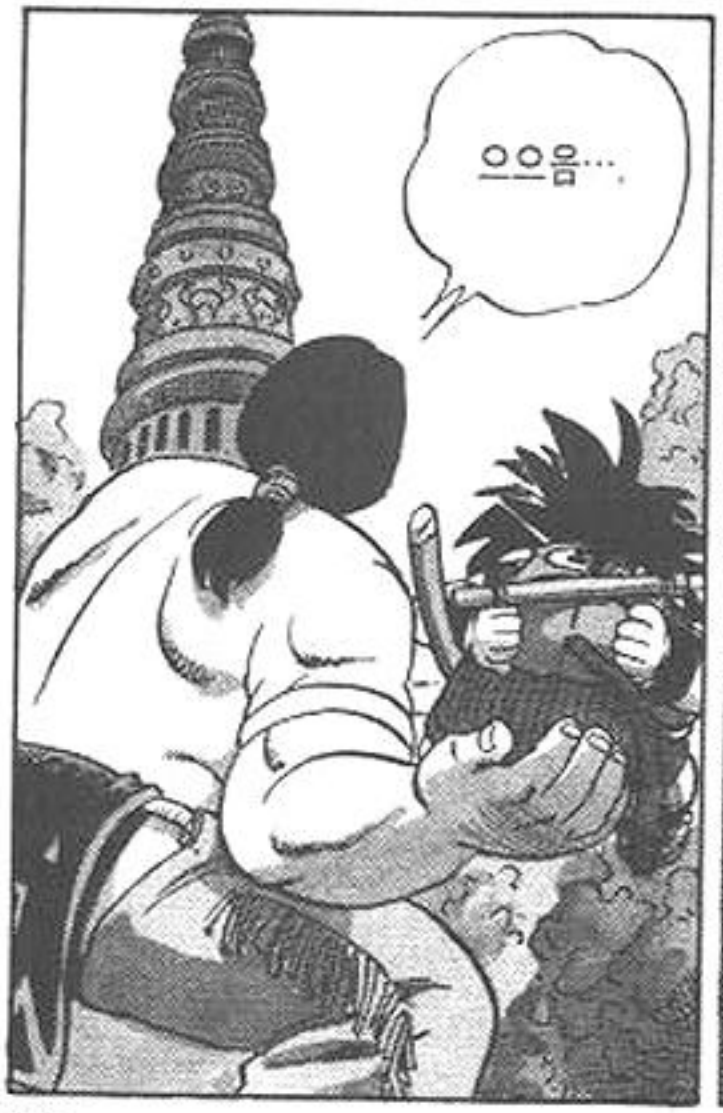
제149화
세계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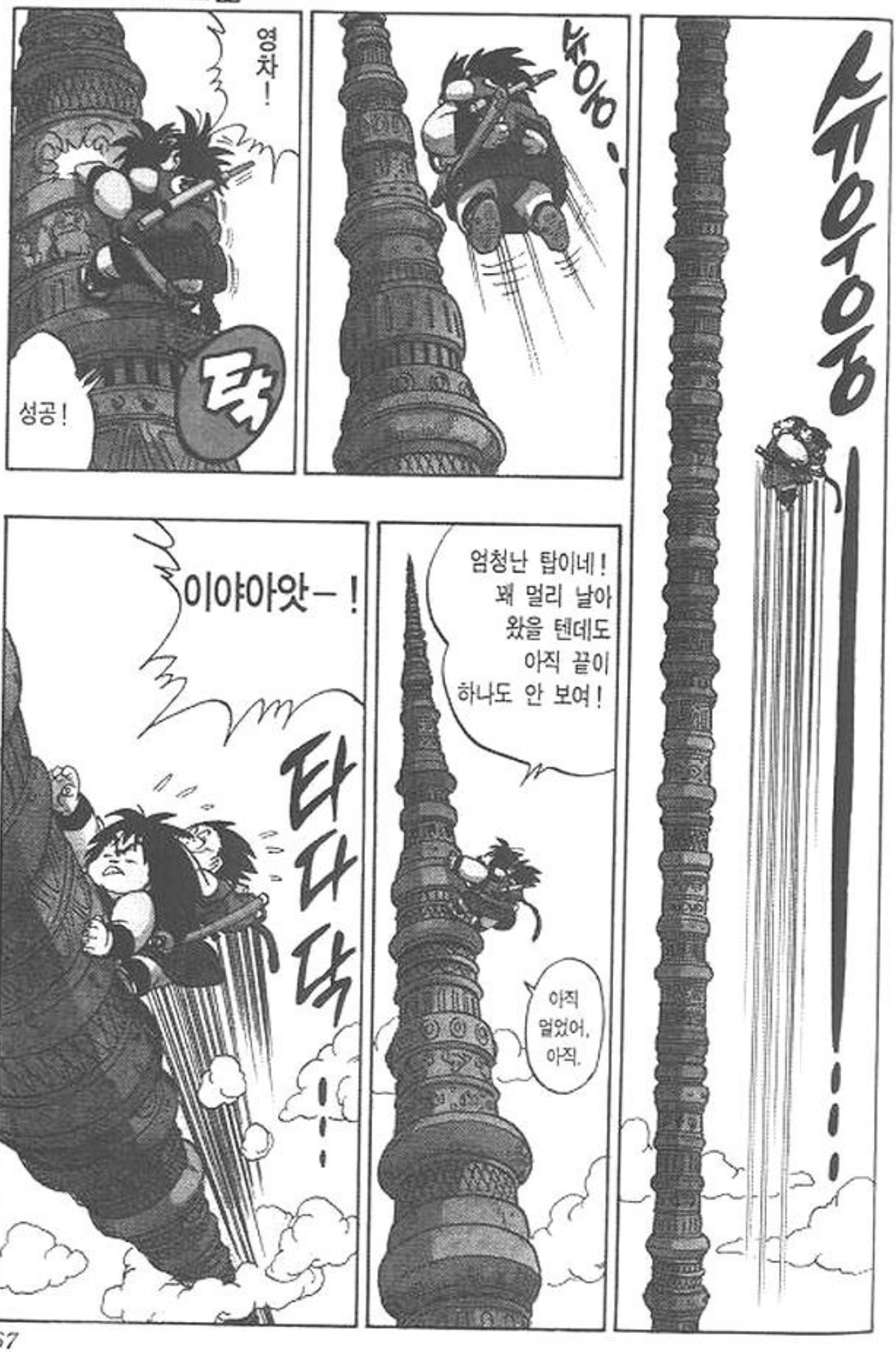

성지 카린….


오공 형도,
야지로베
형도
잘 해야
돼!


땡큐!
자,
간다!
괜찮을까…?


으으음…


이야아압!!
아아아아
아아아아!
HHOH
OHO


슈우웅
영차!
성공!
탁
슈웅..
이야아앗-!
타다닥
엄청난 탑이네! 꽤 멀리 날아 왔을 텐데도 아직 끝이 하나도 안 보여!
아직 멀었어, 아직.

세계의 왕이 사는 곳,
킹 캐슬.

후후후….
쓸 만한걸!

여기가
내 성이
되겠군….

뭐, 뭐야? 당신들! 여긴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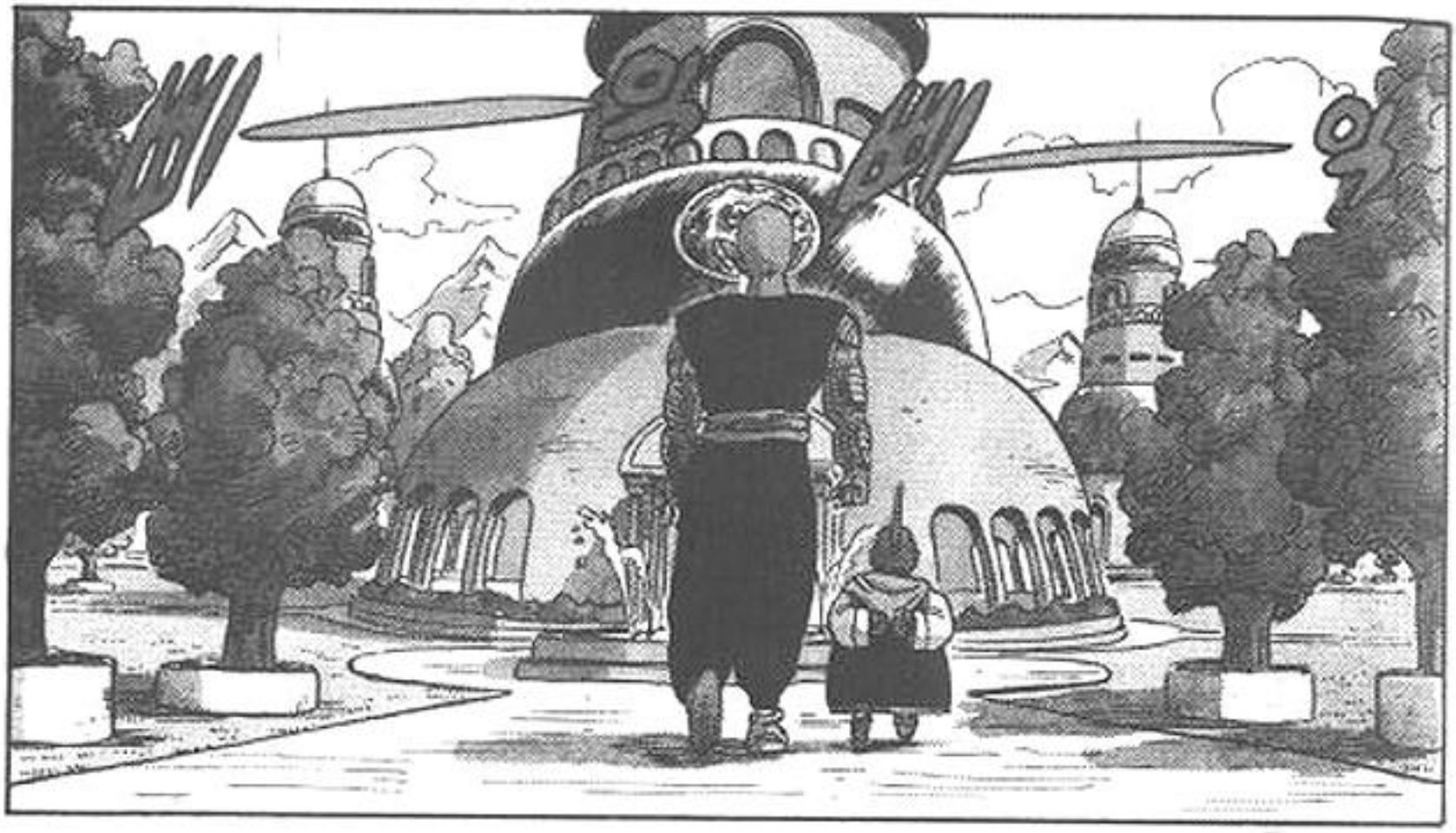
탕탕탕

저, 저놈이!

퍼엉

난 국왕이야!


아…
아…!
파
퍼
우지
끝




웬놈
이냐!?
이봐!!
으르르--


귀찮은
개미들이군.

이… 이런 제길…! 그만 좀 나타나라…!

헉

헉

아무리 올라가도 꼭대기가 전혀 안 보여!

조금만 더 가면 돼!

시끄! 너, 아까부터 계속 그 소리만 지껄였잖아!

이젠 내려갈 수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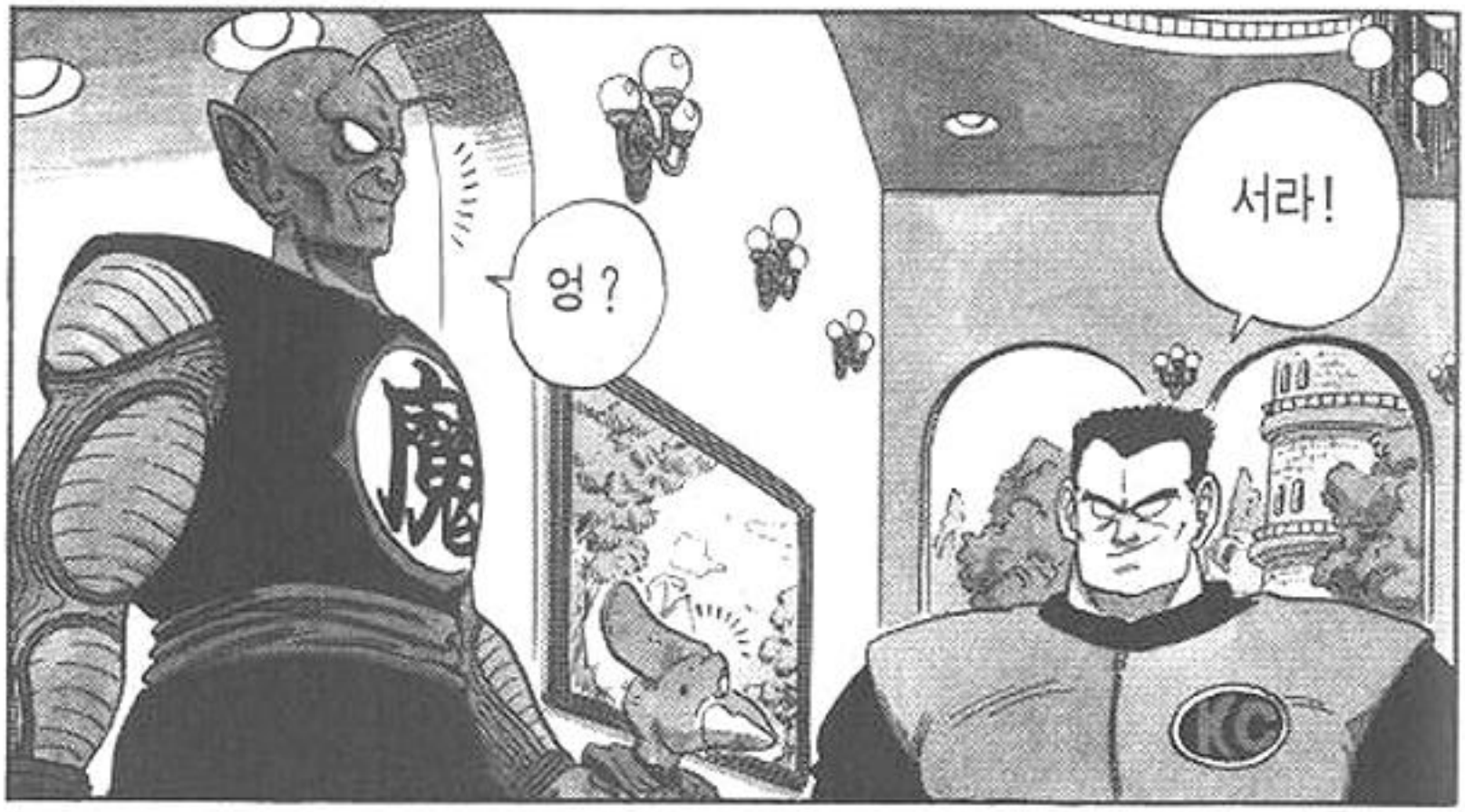
힘 내, 야지로베.

닥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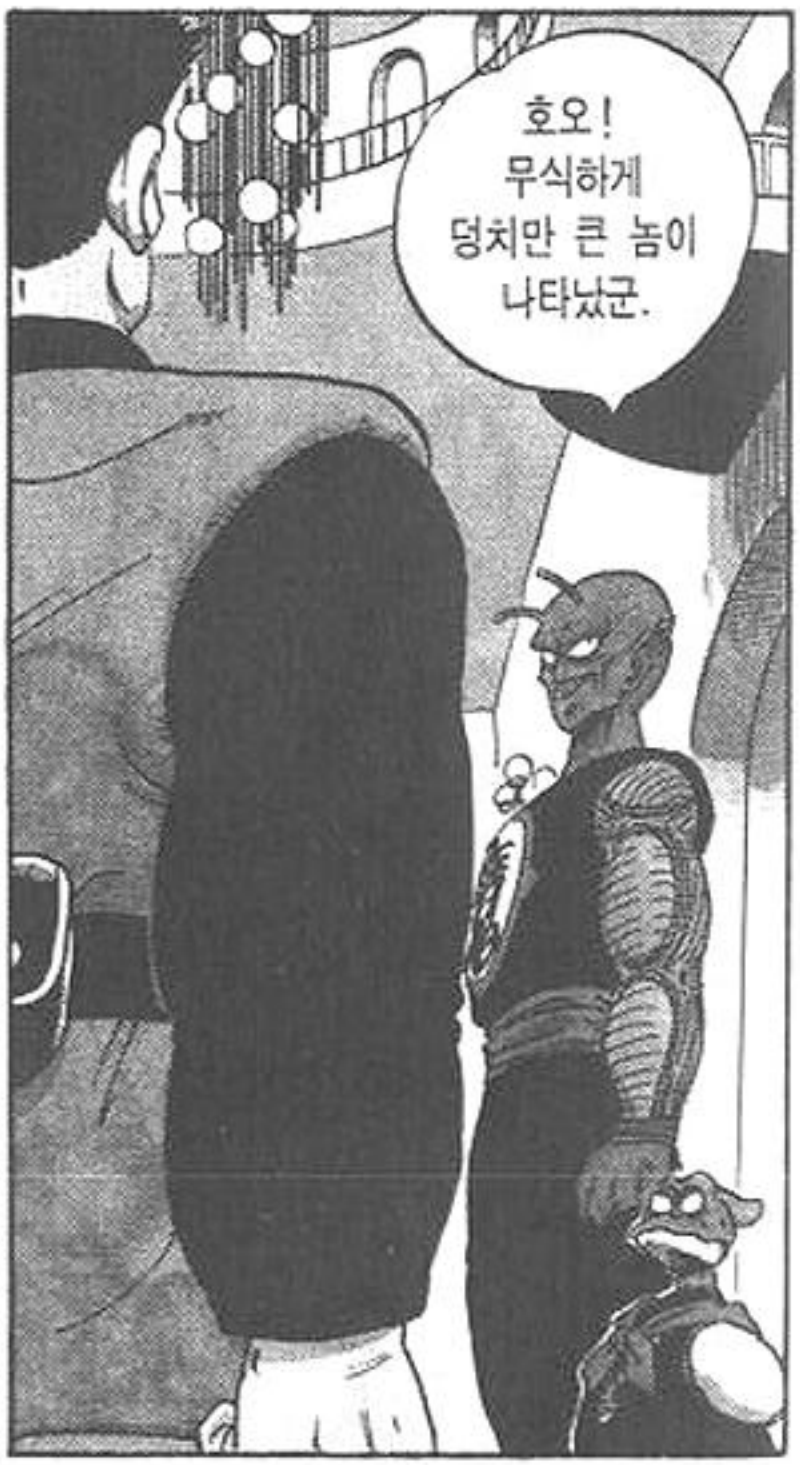
에잉…! 정말 재수없이 말려들었네!

B

ㅠㅇㅇ…!


서라!
엉?
魔


그래서 내가 등장한 거라구.
이상한 요술을 쓰나 본데…. 더구나 총도 안 통하다니….
뚜둑!!!


호오! 무식하게 덩치만 큰 놈이 나타났군.


내 전용 구두닦기 정도는 시켜 주지.
헛소리 말고 내 부하가 돼라.

어디서 감히!
암전히 항복
하는 게
좋을걸!

항복?
내가 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몰리는 건
너희들 쪽
아냐?

파

보자보자
하니까
어디서!!

이놈
자슥이!

흑시
이게
네 펀치란
거냐?

으…,
우욱…!


욱…, 우욱!
덥썩
히힉!
나…, 난 말 못한다….
현재의 국왕이란 놈은 지금 어딨지?



퍼억
털썩…
힐끔…
히익!
으악!!
말해! 국왕은 어디 있지?
서… 서쪽 탑 맨 위에요…!

쉬이잉···

대마왕님!
국왕놈이 소형
비행정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흐흐흐!

야,
손오공!
저기니?

저기가
꼭대기야!?

Yoh

야, 임마!

뭐 이런 놈이 있어! 일어나! 꼭대기야!

!!

쿨ㅡ 쿨ㅡ

안뇽!

아앗!!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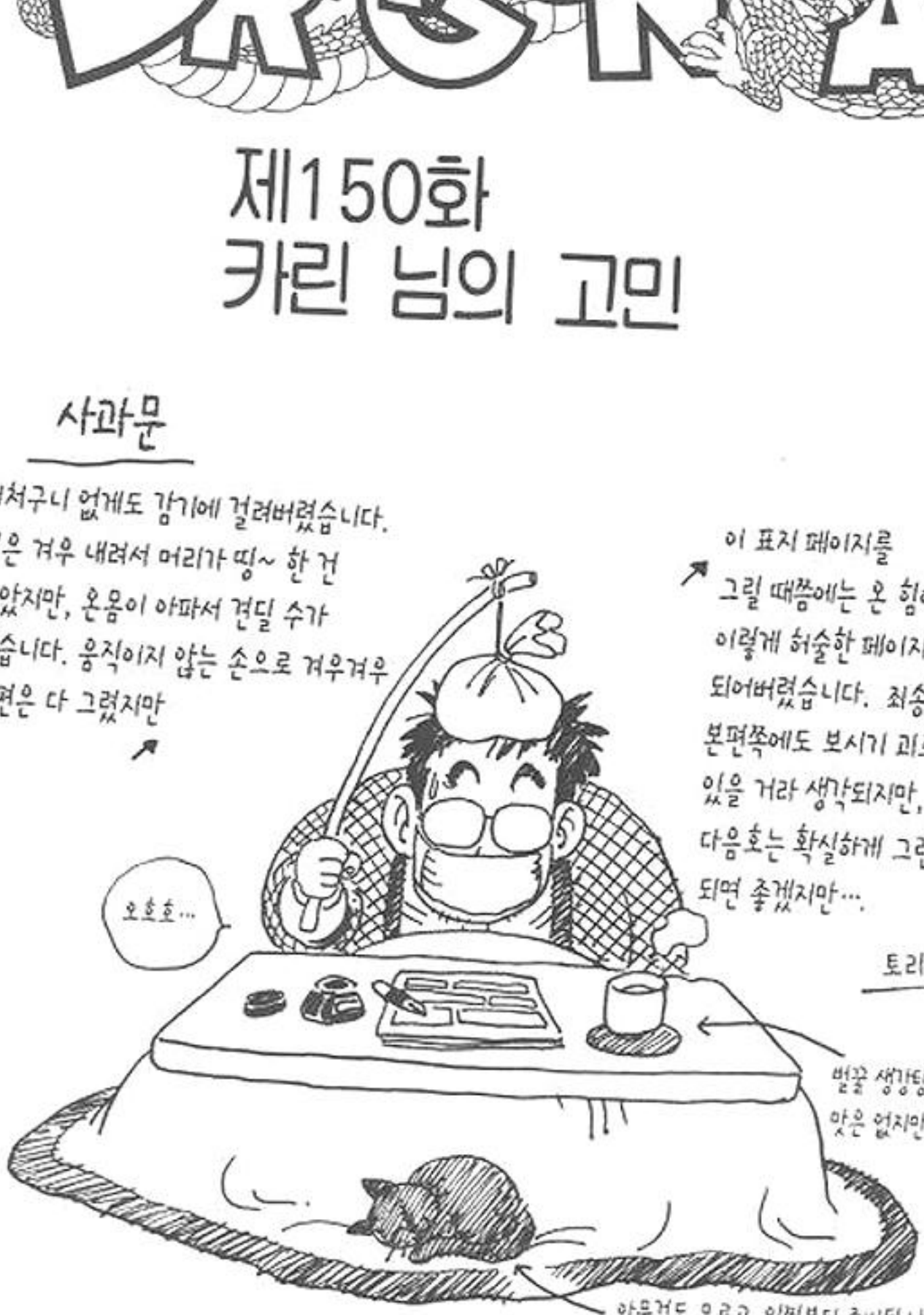
제150화
카린 님의 고민

사과문

어처구니 없게도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열은 겨우 내려서 머리가 띵~ 한 건
나았지만,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겨우겨우
본편은 다 그렸지만

이 표지 페이지를
그릴 때쯤에는 온 힘이 다해버려서,
이렇게 허술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편쪽에도 보시기 괴로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용서해주세요.
다음호는 확실하게 그린다!!…가
되면 좋겠지만….

토리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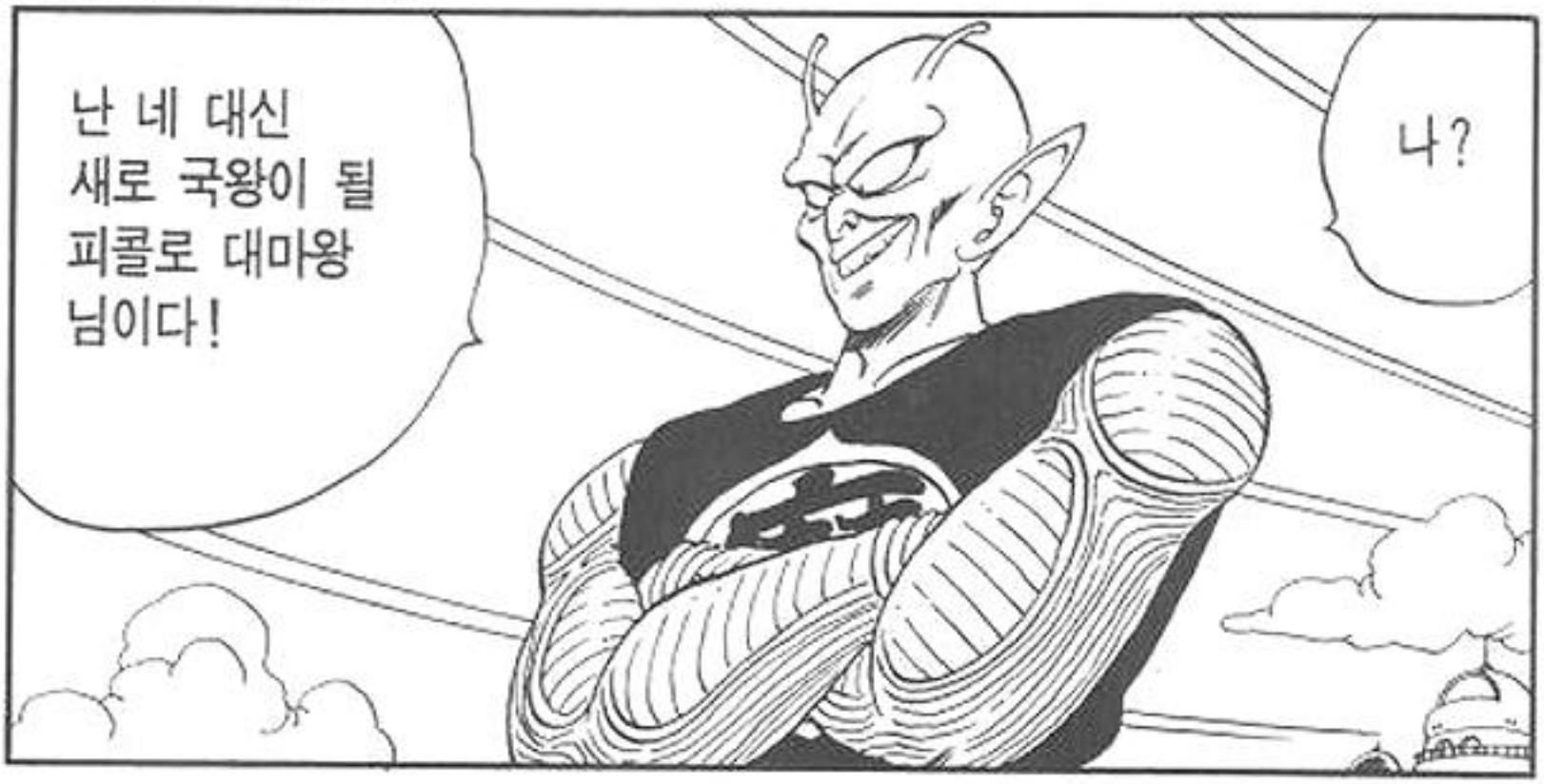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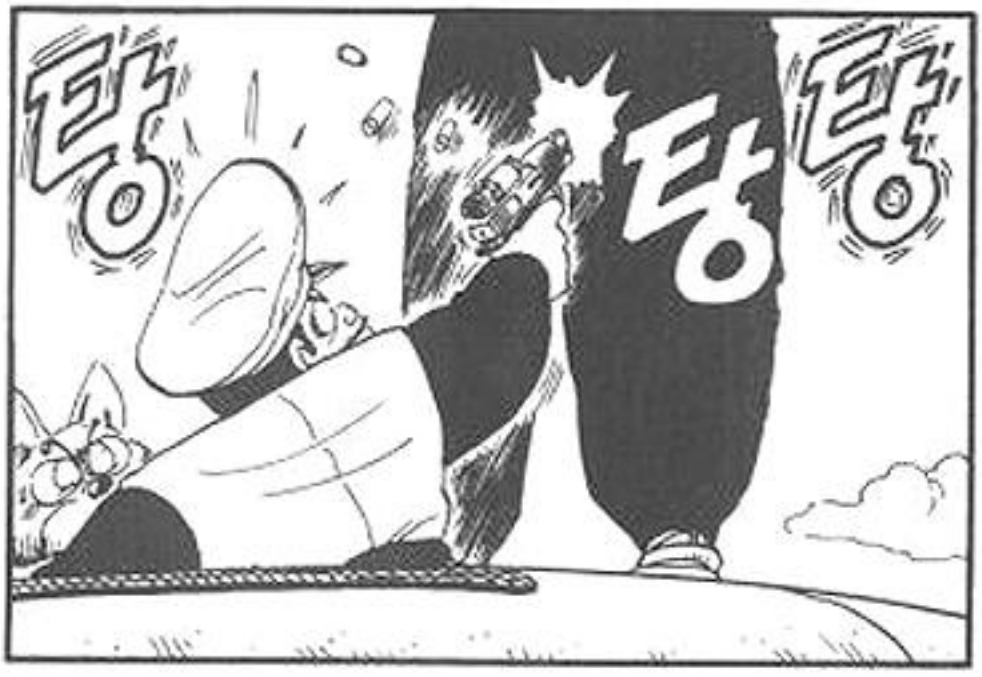
벌꿀 생강탕.
맛은 없지만 효과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찍부터 준비된 난로에
너무 좋아하는 고양이 깡장. 정말 한가롭다.
덧붙여, 깡장의 자는 얼굴을 보고
카린 님의 얼굴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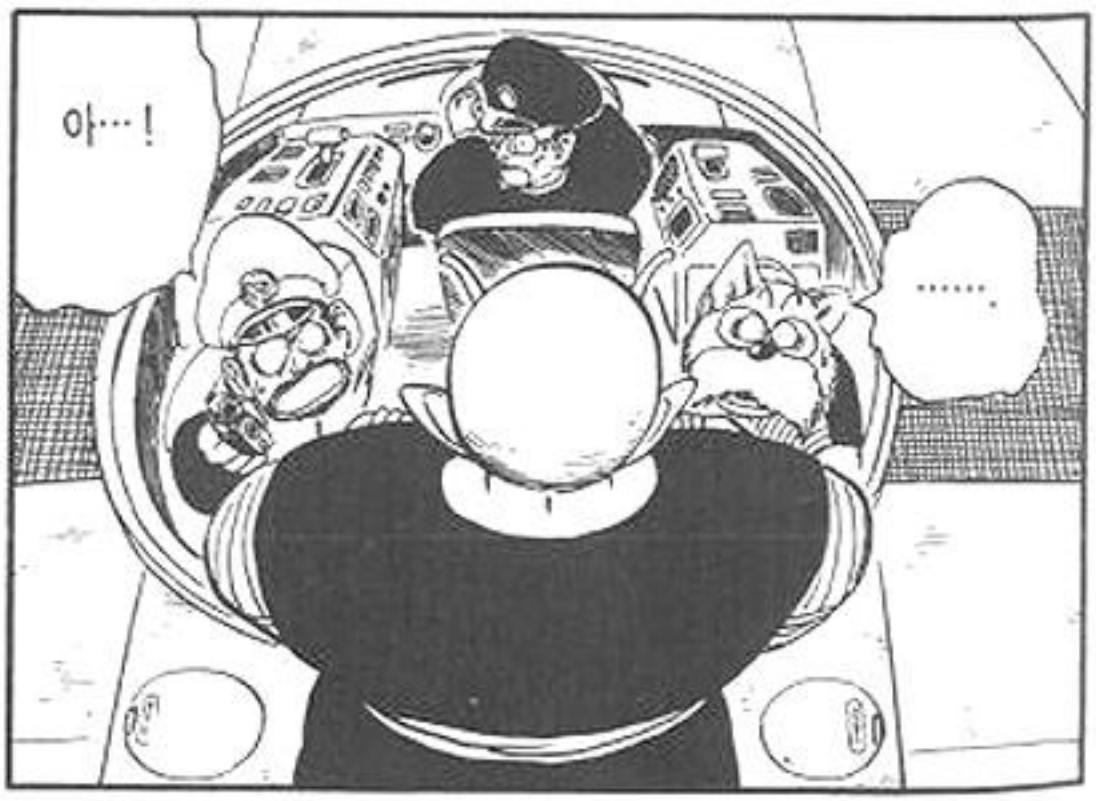
휘이이 잉-
으아아 아아!!
K41320
국왕이란 자가 도망 치다니….
네, 네놈은 뭐냐!?
파야
힉!!


난 네 대신
새로 국왕이 될
피콜로 대마왕
님이다!
나?


탕
탕
탕


다,
닥쳐!


아직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너….


아…!
……



으아아!!
쓰윽…
앗!!
덥썩
툭
힉!!
이, 이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둬!
마…, 말해 봐라….
나…,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
으아아 아아…!!

넌 그걸 분명하게
전세계에 발표하면 돼.
세상은 모두 피콜로
대마왕님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말야!

뭐 간단하지.
좀 전에 말했듯이
지금부터 나 피콜로
대마왕님이 네 대신
국왕이 되는 거야.

보여
주마….

후후후….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멋진 쇼까지
준비해 뒀지.

우…,
웃기는 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뭐…
뭐냐!?

부르르르….


잘 봐둬….
곧 생각이
바뀔 거다….


핫!!!


후후후


ZIGZ

!!

마, 마을이…!
마을이
사라졌다…!!

아…,
아앗!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여기서 보이는 경치를
몽땅 폐허로
바꿔주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조차
식은 죽 먹기라구….

네…
네 얘길
따르겠어….

아…,
알았다….

으하하하!!

푸하하 하하…!

겨, 겨우 올라왔네!

헉헉!

고마워, 야지로베.

오… 오공을 등에 업고 이 탑을 올라오다니…!

얘도 정말 무서운 놈이네….


카린 님!
오랜만이야.
뭐?
이, 이게…?
오냐!


엄청
당했지?
피콜로
대마왕한테.
응?
뭘 알아?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다.
저어…,
나….


지주 여기서
하계의 모습을
내려다
보거든.
하도
심심
해서….


어,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런데…,
내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 거지?
에엑-?
여, 여기서
밑이 다
보인다고!?

그,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조, 좀더 날 수련시켜줘. 난 꼭 놈을 처치해 버릴 테야!

글쎄, 잠깐….

우선 그 엉망인 몸부터 치료해야지…

자, 먹어!

암마-! 이게 무슨 맛있는 음식이야! 짜샤!

아니, 이게 선두라고 !?

선두!?

어?

이건…, 선두 잖아?

우씨! 역시나! 정말 맛도 하나 없네!

덥썩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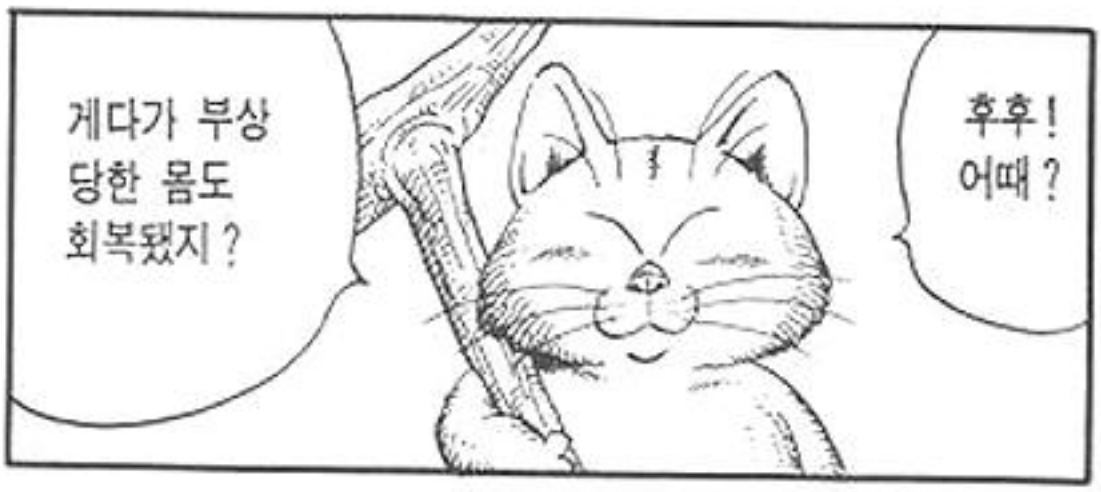
이, 이런 콩 때문에 죽을 똥을 싸며 여길 올라오다니!


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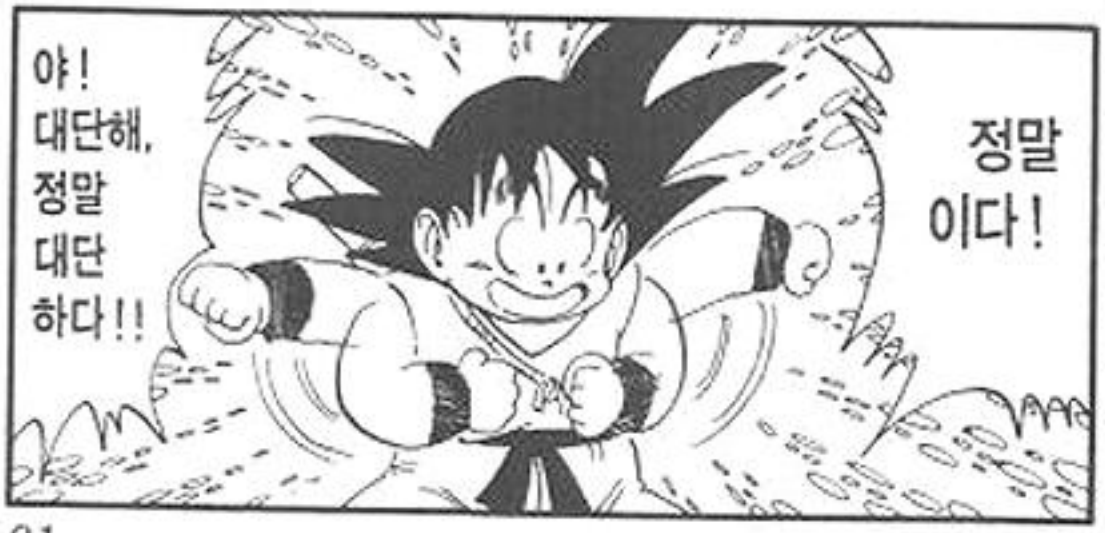

아아…!


하하…. 바보!
선두 한알이면
10일은 안 먹어도
될 정도인데….
으~!
으~!
아악~!
아무것
아무것




게다가 부상
당한 몸도
회복됐지?
후후!
어때?


어!?


야!
대단해,
정말
대단
하다!!
정말
이다!

더이상 네게 가르칠 게 없어….

미안 하지만….

……

그럼 다시 날 수련시켜 줄 거지!?

그래…. 네 기분은 알겠지만…, 이미 넌 나조차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거든….

어, 없다고!?

뭐!?

으음…. 분하지만, 아무래도 피콜로 대마왕에겐 이길 방법이 없어…. 그놈의 파워는 차원이 다르거든….

그, 그럼….

거, 거북신선 할아버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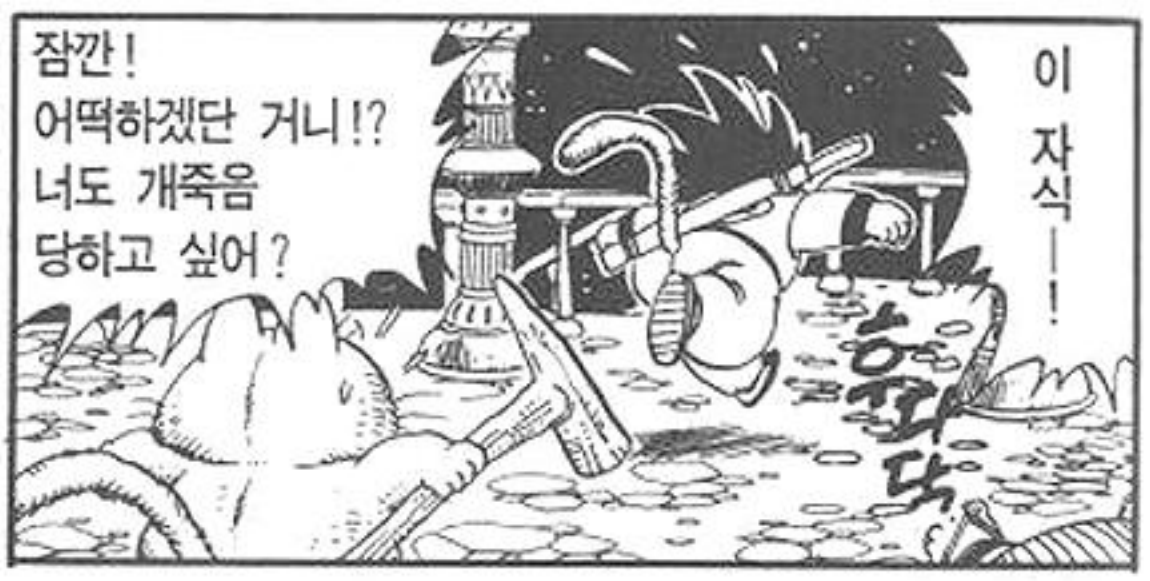
뭐!?

죽었어….

무천 도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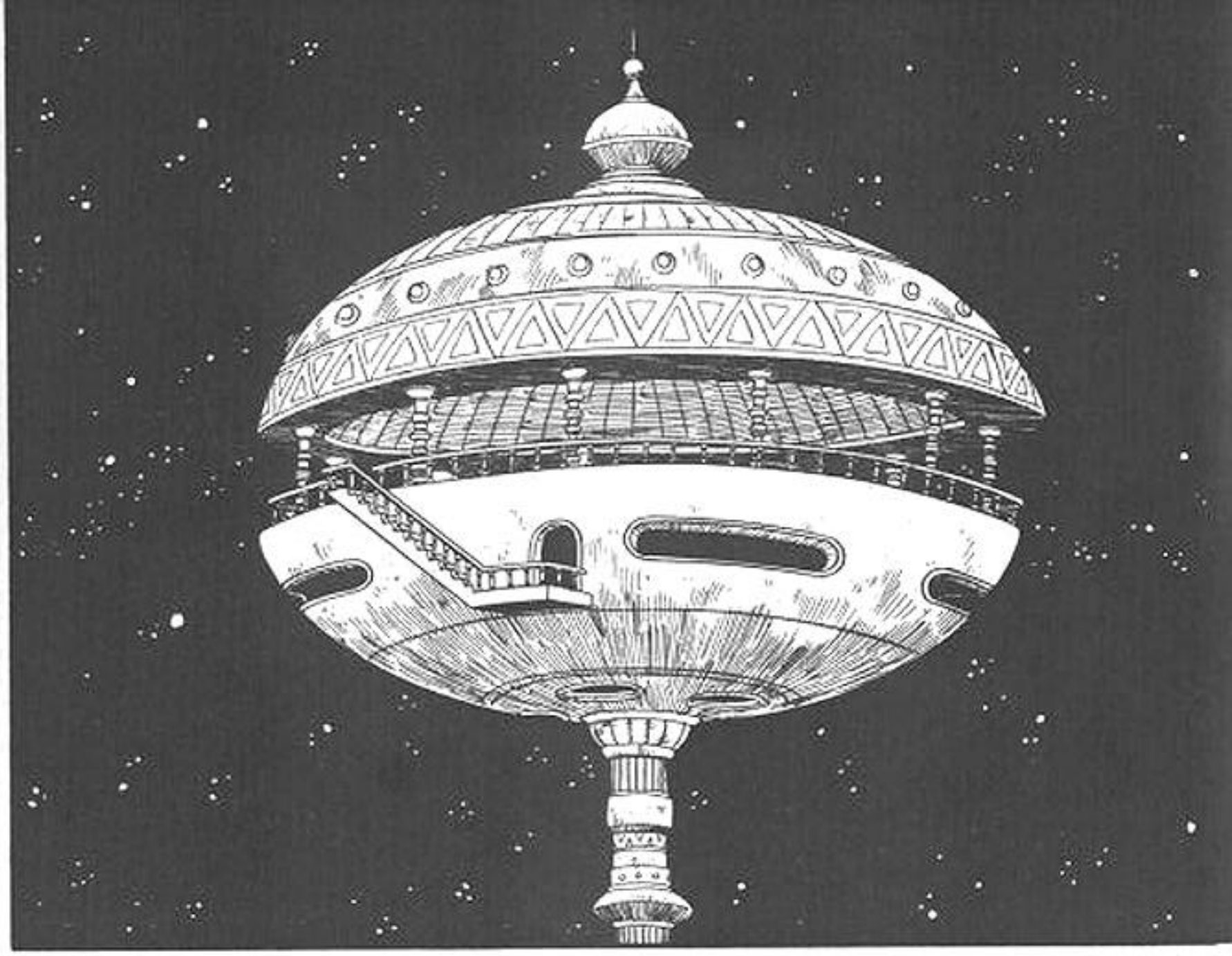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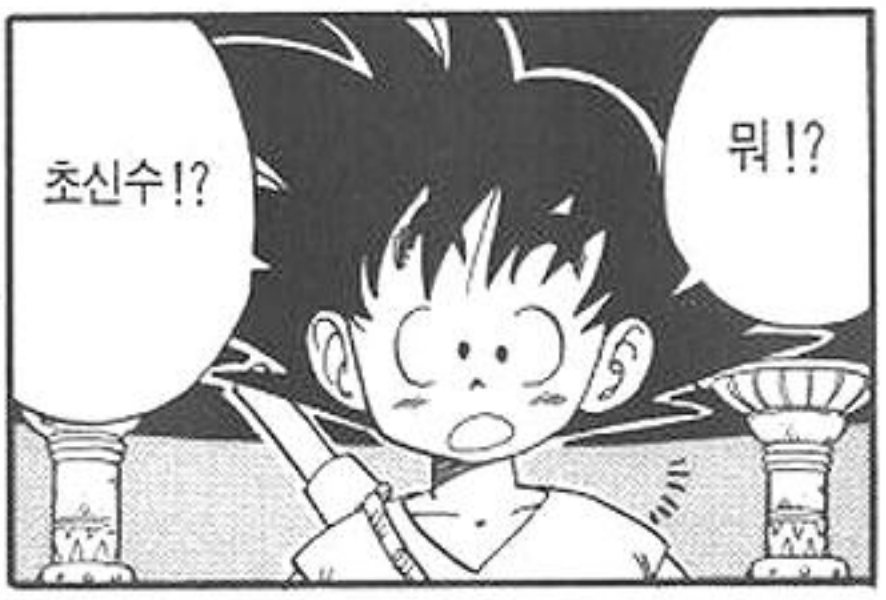




다음은, 제151화 초신수!!




놀라운
신의
물이야.
그래.


초신수!?
뭐!?


몰라….
그걸
마시면
강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미 수련을 통해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라면 초신수를 마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초신수는 초성수처럼 사기가 아니야. 네 안에 숨겨져 있는 힘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물이란다….

그래!

어쨌든 마셔서 손해볼 건 없잖아?

흐음….

글쎄…? 내게 아직 숨겨진 파워가 있을까?

무시무시할 정도의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생명력이 없으면 즉시 죽고 말지….

이 초신수란 건 사실 무서운 독이야….

그런데 말이야.

골치 아프군….

도…, 독이라….

그 독을 이겨내야만 숨겨져있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

그럼 지금까지 대체 몇 사람이나 그걸 마시고도 살아남았지?

넌 마셔 봤니?

마신 적은 있지만, 참지 못하고 금방 토해 버렸어….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

초신수는 지금까지 14명이 마셨어…. 모두들 유명한 뛰어난 실력의 강자들 뿐이었지….

뭐… 뭐야…? 그럼…, 혹시 별로 없나 보지?

꼭…, 알고 싶어…?

한 사람도?

!!

아, 아냐! 초신수는 먼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분명한 거야….

그건 그냥 독 아니야?

말도 안 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물이 숨겨진 힘을 이끌어내는 물인 줄 알아!

엑!?

나 마실래!

……

난 안 죽어!

너, 바보 아냐!? 그런 건 용기가 아니야, 이 멍청아! 자살하고 싶냐!?

난 말리고 싶은데….

괘…, 괜찮겠니?

그치만 어차피 이대로는 피콜로를 이길 수 없어. 죽게 된다구.

제발 다시 생각해봐-! 살아남을 가능성이 빵(0)이라구, 빵! 만약 운이 좋아서 산다고 해도 마시기 전이랑 전혀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잖아.

싫어! 크리링은 친구야! 거북신선 할아버지는 날 많이 도와줬어! 원수를 갚아야 해!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 피콜로 따위를 상대하지 말라구.

그러니까 널 바보라는 거야….

어차피 난 네가 죽는 거 상관 안 할 거니까.

됐어…, 마음대로 해….

세상은 그놈 마음대로 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라구….

맞아…. 지금 상황에서 피콜로 대마왕은 천하무적이야….

죽지 마….

자….

마시겠다!

좋아!

이거야….

쪼르륵…

달깍…


쿵쿵…!
내…, 냄새는
나쁘지
않은걸….


이거….
이걸 다
마셔야
돼….
초신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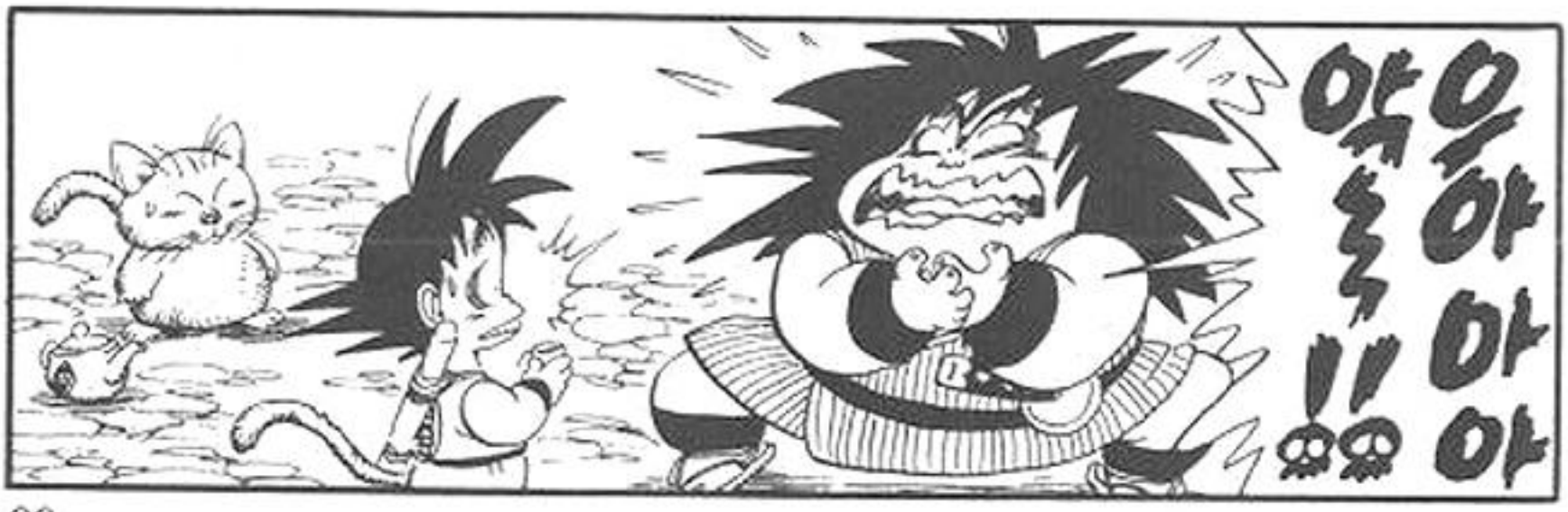

냠냠…


……


어디
조금
맛 좀….
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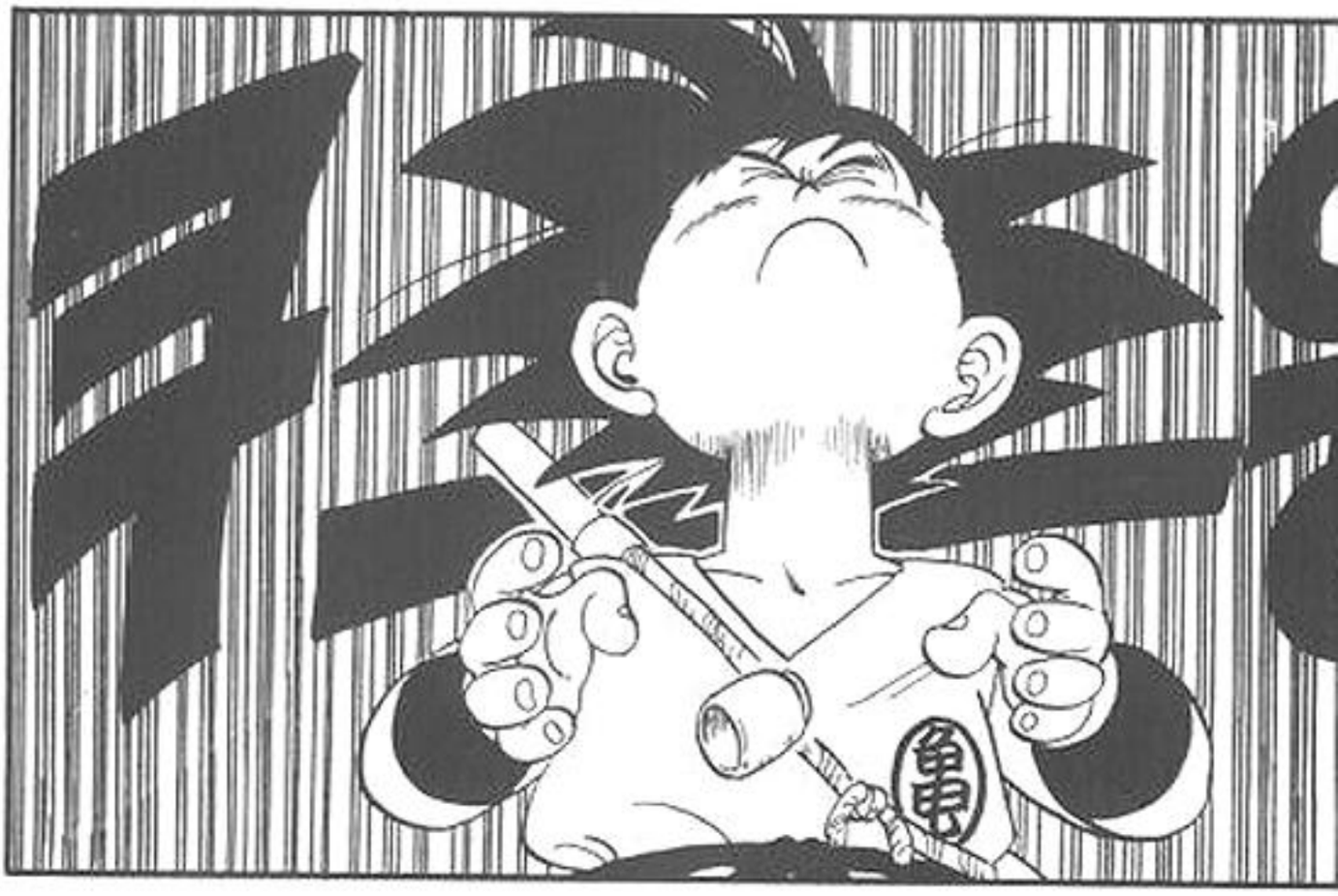

!!


……


으아아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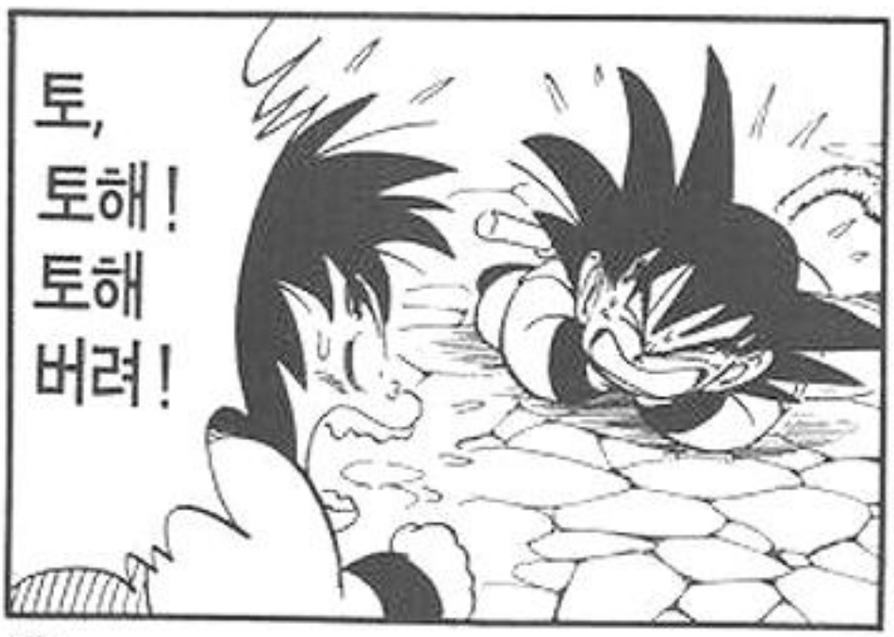


쓰…, 쓸데없는 소리 마…. 괜히 겁나게….
마, 마시지 마! 부…, 분명 죽을 거야…!
웩웩
퉤퉤
그렇게 오래 그놈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제부터 몇년 더 수련을 쌓으면 피콜로와 싸울 수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
포… 포기해도 좋아….
훽
앗!
에잇!
꿀꺽


龜


크아아아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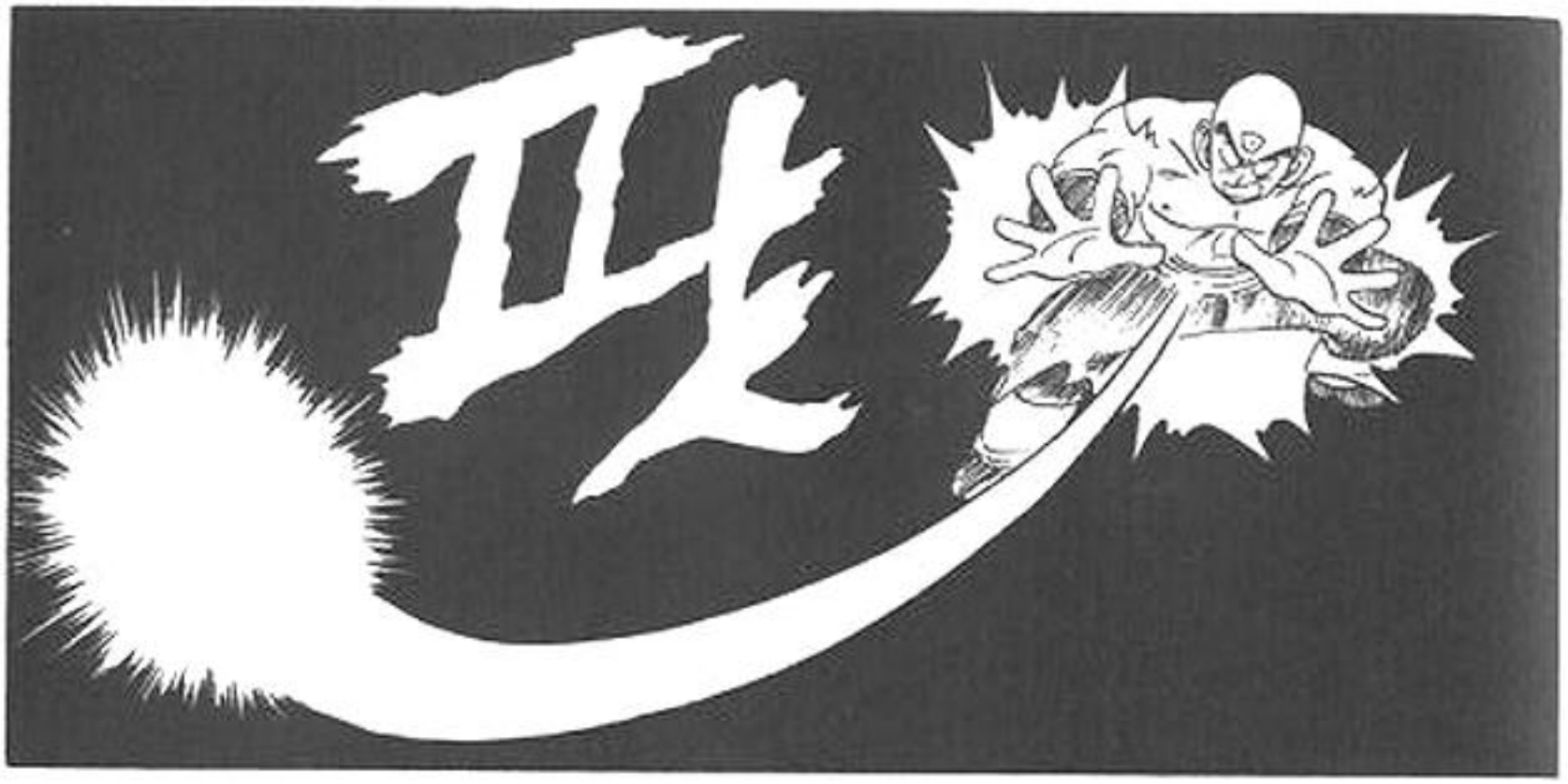

토,
토해!
토해
버려!

나…,
난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으윽…!!

우아아
아악…!!

하앗!!

파


파!


팡


탓!!


아아


털썩

헉헉!
제, 제길…!
또 빗나갔네….

이… 이런
성공률로는
실전에서 그놈을
봉인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무천도사 님처럼
실패하게
될 거야….

난 개죽음
당하긴
싫어….

어차피
마봉파를 쓰고
죽는다면
꼭 성공시키고
말 테야!

두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어!

두,
두고
보자!

피콜로
대마왕…!

으…
으으…!

여…
여섯 시간이나
괴로워하고
있잖아….

버…,
벌써
아침이네….

저…,
정말
대단한
생명력
인걸…!

으아아
아아…!

아!!

앗!!

아…
아아아….

왜, 왜 그래…?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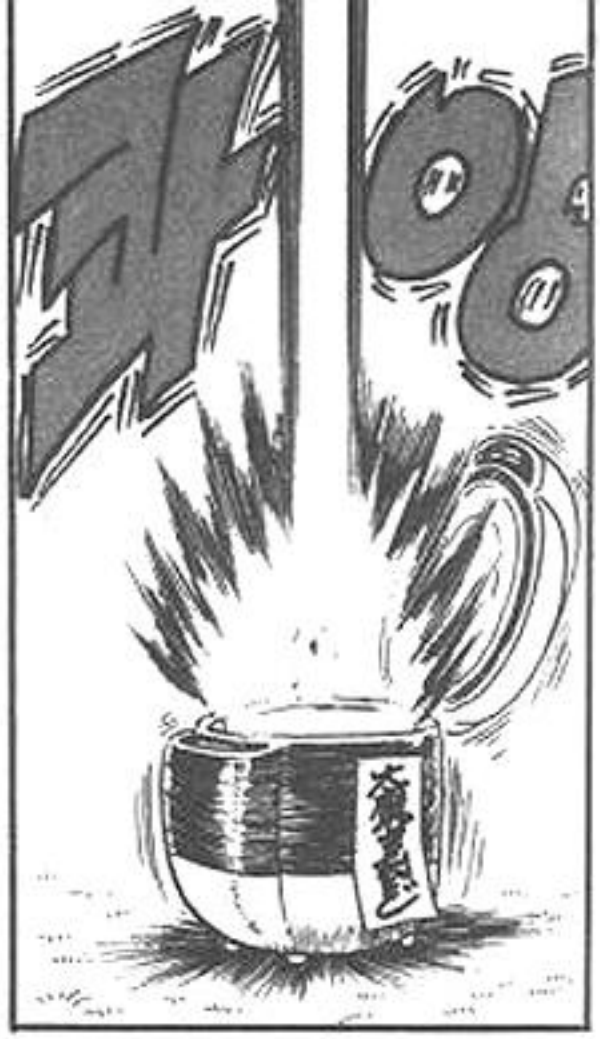
파…
파워다…!

지… 지금
손오공의
숨겨진 엄청난
파워가 보인 것
같았어….

돼…,
됐다!
와…,
완벽해…!

허허
억억

철컹…



만세~!
죽지 않았어!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너!

홀륭하다,
홀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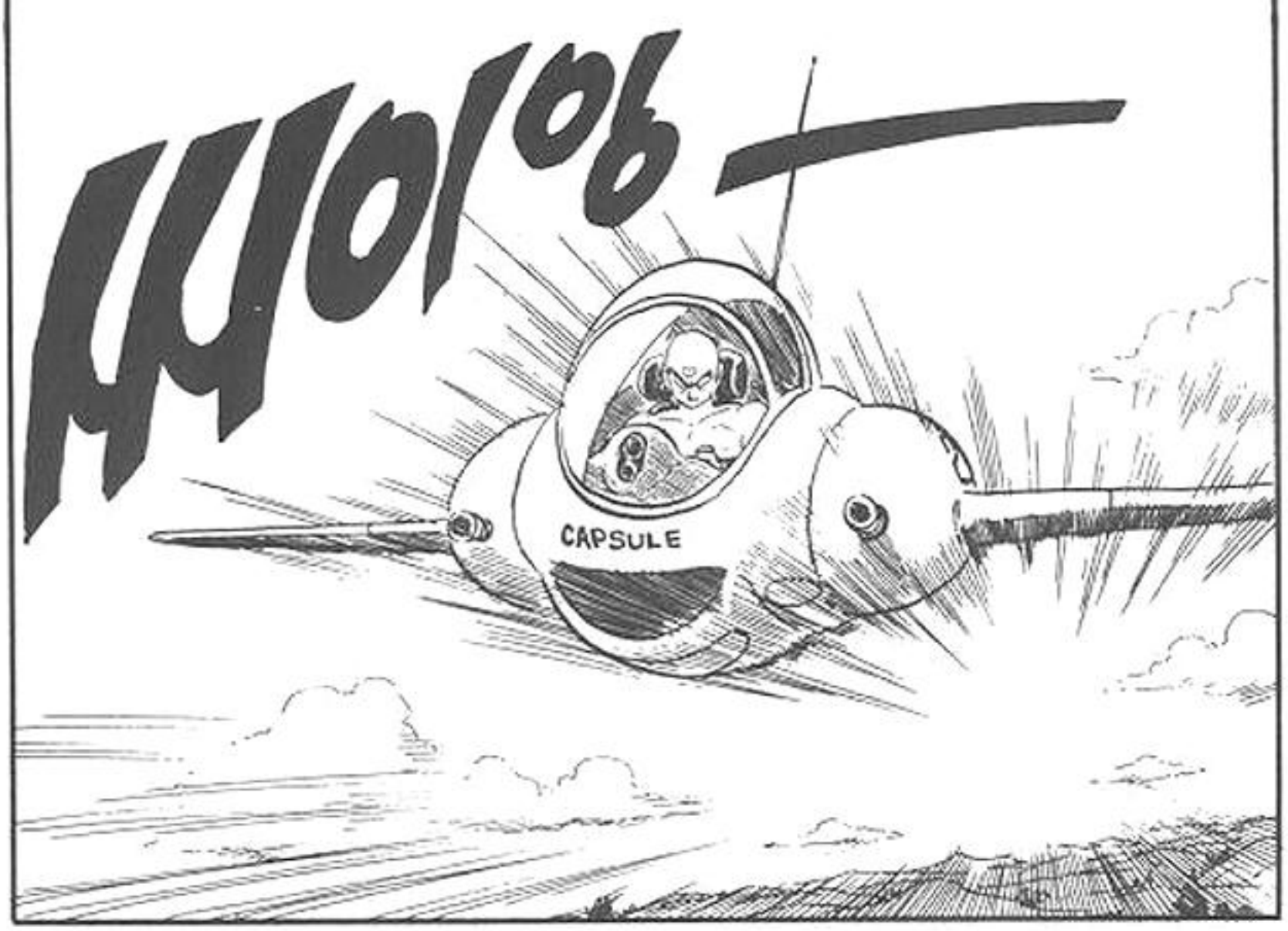
껌벅

기다려라,
피콜로!!

힘이
넘쳐…!

히…,
힘이다….

다음은, 제152화 손오공, 마침내 발진!!


CAPSULE


어,
어떻게
된
거야!?
천진반
이냐!?


거북하우스
응답
바람…!
여기는
천진반!


그…
그래….
미안해!
구슬 모으기는
실패했어….

그리고 놈은
용신을 불러내
젊음을 얻었어….

드래곤 볼은
피콜로
대마왕에게
빼앗겼어….

죽었
다구….

두 사람은
막으려고 최선을
다 했지만…,
당했어….

그래….
무천도사 님과
차오즈는….

젊음
이라고
…?

엑?!

뭐,
뭐라고!?

그놈을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으로
변한다….

239

놈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젊음을 손에 넣으면서
그 힘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버렸다구….

주…,
죽다니….

거… 거북
신선님이….

미안하지만
두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줘….
장소는 BFK의
2235지점
부근이야….

난 지금 피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
놈이 탄 비행선을
찾고 있다.

뭐, 뭐!?
마봉파를!

난…,
마봉파를
몸에 익혔다.

돌아와!
일단 돌아
오라구!

잠깐!
그렇게
무서운 놈을
어떻게
하려고!!

무술가로서
녀석을
이겨보고
싶은 생각
뿐이지….

착각하지는 마….
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
놈을 쓰러뜨려서
잘난 체하겠단
생각은 안 해….

마봉파를
쓴 사람은
죽게 돼….

너…너…,
죽을 각오
구나….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아서 오공과 크리링,
무천도사 님, 그리고
차오즈를 살려달라고
하면 돼!

KAME HOUSE

한번 더
드래곤 볼을
모아서 놈을
없애달라고
하면 된다구!

서두를
필요
없잖아?

뭐?
텔레비전이
뭐 어떻게
됐는데?

자, 잠깐
기다려!

텔레비전 좀 봐!
피, 피콜로가
무슨 얘길
하는데!

뭐!?

뭣이!?

이… 이 세계의
국왕은…,
피콜로 대마왕이
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누, 누가
이 무법자를
좀
처치해다오!

이, 이런 놈이
왕이 되면
세상은
파멸이야-!

그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직
죽고 싶진
않겠지?

내 힘은 아까
보여준 파괴된
거리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아,
잘 봐둬라.
내가 네놈들의
새 국왕이 되신
피콜로 대마왕님
이시다.

그래!
킹 캐슬에
있었군!

이…
이놈이
피콜로
대마왕….



그것은
「정의」와
「평화」다!

우선 내가
싫어하는
말을
알려주마.

魔

자, 그럼
이제 새 국왕의
플랜이라도
들려줄까나….

전쟁, 폭력, 강도, 살인…, 무엇이든 자유다! 누구도 막지 않을 거야.

경찰 따위는 폐지한다.

오히려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야.

말해두는데, 나는 국민을 억누르거나 우열 못하게 할 생각은 절대 없다.

반드시 악과 공포로 가득찬 훌륭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떠드는 자는 우리 마족이 모두 철저하게 처치해주겠다!

악당들이여! 하고 싶은 짓을 망껏 해라!

흐음! 꽤 마음에 드는 연설인걸….

……

우…, 웃기시네….

맞아.
알겠어….

이건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데….
뭐…,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힘이 막
솟아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

이… 이거
정말
놀랍군….

이… 이 녀석은
나도 상상
못할 만큼
엄청난 놈이
되었어….

뭐,
뭐야?
왜 그래?

정말이야,
굉장해!

정말이니…?
내 생각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퇴치하러
갔다 올게!

뭐, 뭐라고!?
그런
것까지
느껴져…?

피콜로
대마왕이
저쪽에
있다….

엄청난
요기가
느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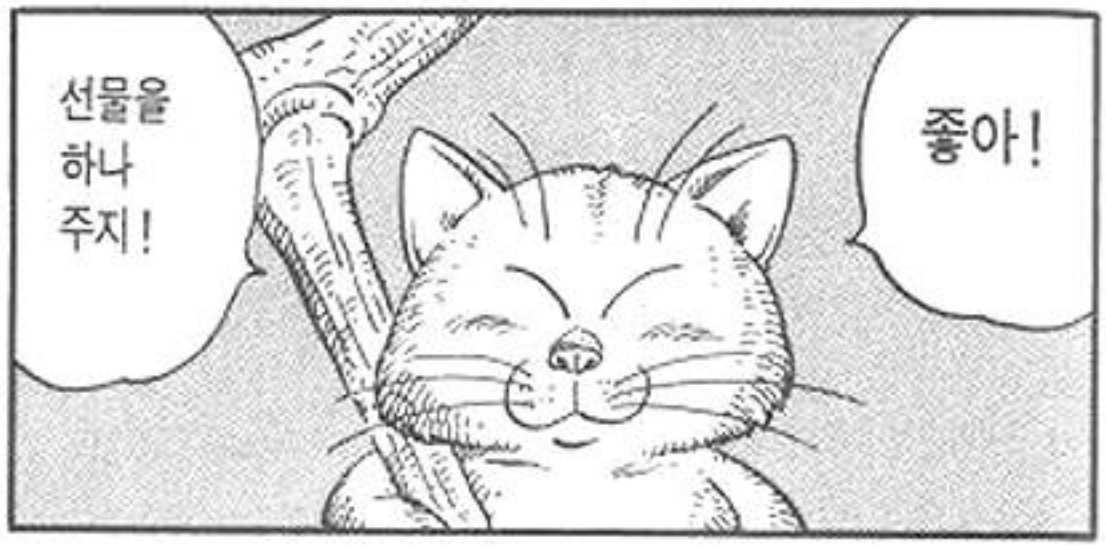
으음….
나도 네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힘내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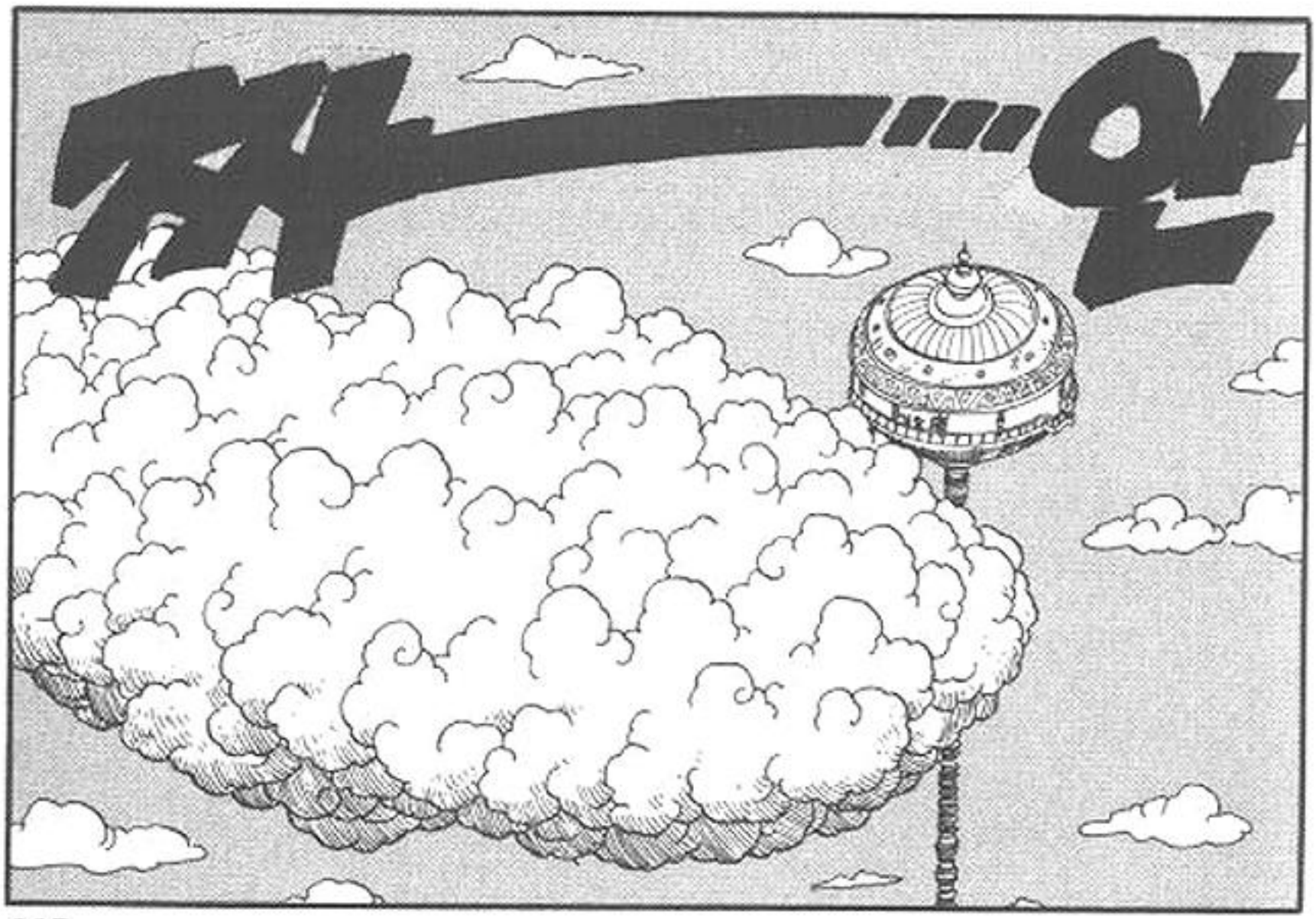
이번엔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걸!


선물
이라고?
뭐?


선물을
하나
주지!
좋아!


근두운!?


근두운
준비!


끝

이, 이게 뭐야?

정말이다! 무지 큰 근두운이야!

원하는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써도 돼.

그, 그럼 내가 거북신선 할아버지한테 받은 근두운은….

음, 그건 내가 옛날에 무천도사에게 준 거야.

와-! 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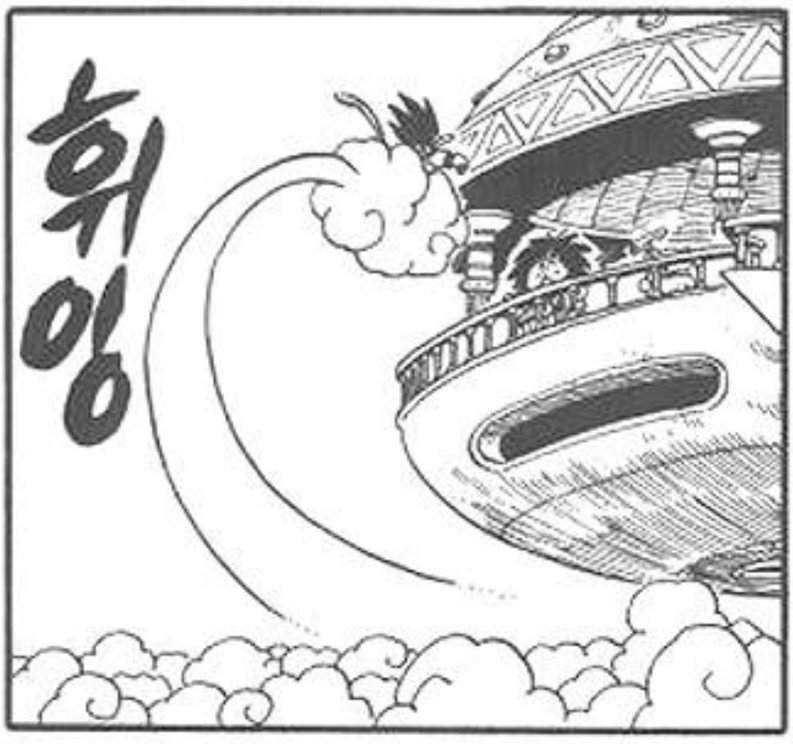
고마워!

타

앗! 구, 구름 위에 타다니!!

하하하! 그 정도 크기로 되겠니?

그럼 요만큼만 가질게!


휘
잉


얍!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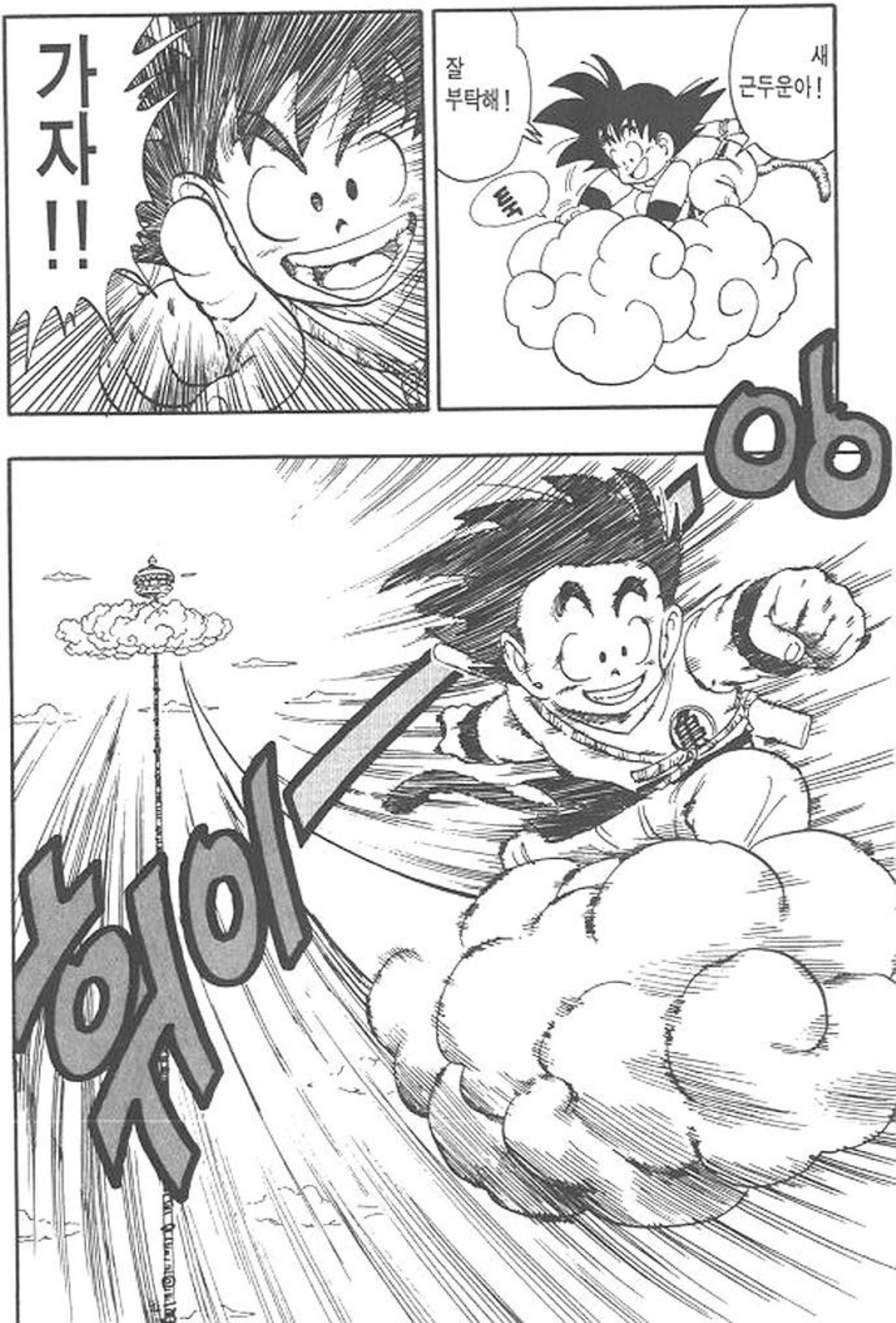

그럼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그래?


아, 아니야!
나, 난 일찍
죽기 싫어…!


태워줄 테니
야지로베도
같이 갈래?
멍
청


갔다
올게!!


그래,
절대
죽지 마라!
카린 님도
고마워!
나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게!


새 근두운아!
잘 부탁해!
툭
가자!!
ㅇㅇ
ㅇㅇ











다음은, 제153화 천진반의 결의!!

지금 전 세계는
대체 몇개의 지구로
나뉘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잘 들어라!
더 멋진 죽음의
공포란 무엇
이냐 하면!

그래서 나는
1부터 43까지의
숫자를 적은
제비를 준비했지.

그래,
43개
지구다.

그래서 매년
5월 9일의
피콜로 기념일에
제비뽑기를
하도록 한다.

오늘 5월 9일은
나 피콜로 님이
왕좌에 앉은
기념할 만한
날이다.


뭐, 내가 발사하는
폭렬마광포는
고통스러워할
틈도 없이 단숨에
그 지역을 없앨
것이다.
뽑힌 저
지구는 이 대
손


저…
저놈이!


난 단지
공포에 질린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놈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야!
나 피콜로 넘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은
언제든지 이곳
킹캐슬로 와라!
미사일을 퍼부어도
상관없다!


운이
살



끼이———————잉
좋아, 그럼 오늘을 기념하면서 첫번째 제비뽑기를 하겠다!
웃기지 마라!
곧 마봉파를 먹여주마!
자, 그럼 어느 지구가….
뒤뒤적적
흐음…!
여기서 가까운 곳이네!

곧 간다!
어서 멀리
도망쳐 봐라!

29

29번 지구!
서쪽
도시로군.

타닥

뭐라고?!

서쪽 도시!?
어, 엄마랑
아빠가 있는
곳이야!

그래,
나도
TV
봤어….

사정이
어찌 됐건
어차피 난
마봉파를
쓸 거야!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제
드래곤 볼은 소원을
못들어 주게 됐어….
볼은 단순한 돌멩이가
되어 버렸으니까.

천진반,
부탁이야!
마봉파를
써!

네가 죽으면
꼭 드래곤
볼을 모아서
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용신은
피콜로 녀석이
죽여 버렸어….

그렇구나
….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질까?

드래곤 볼은
소원을 들어주면
1년 동안은
돌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거야
괜찮아!

소…, 손오공이랑
다른 사람들은
죽어버렸고….
천진반이 제대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크…,
큰일났다.
세상은
끝이야!

부들
부들…

주…,
죽었다고… !?

요…,
용신이….

다리가
안 나았다는
핑계 대고
구경만
할 순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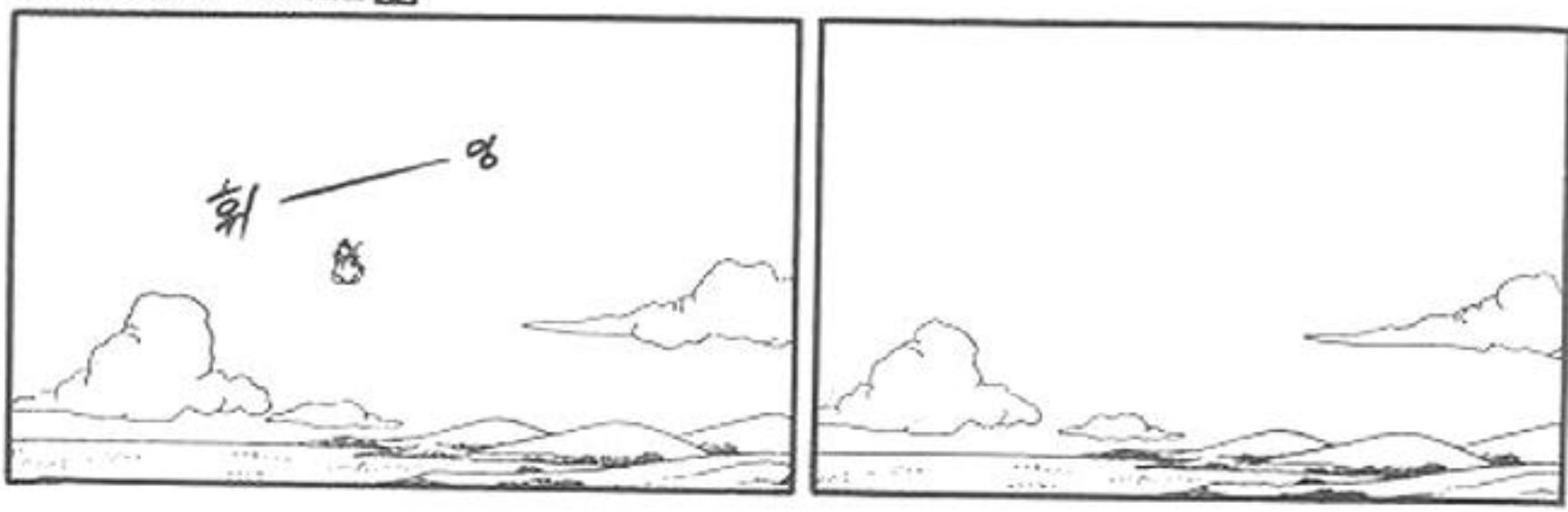
나도
간다!

다
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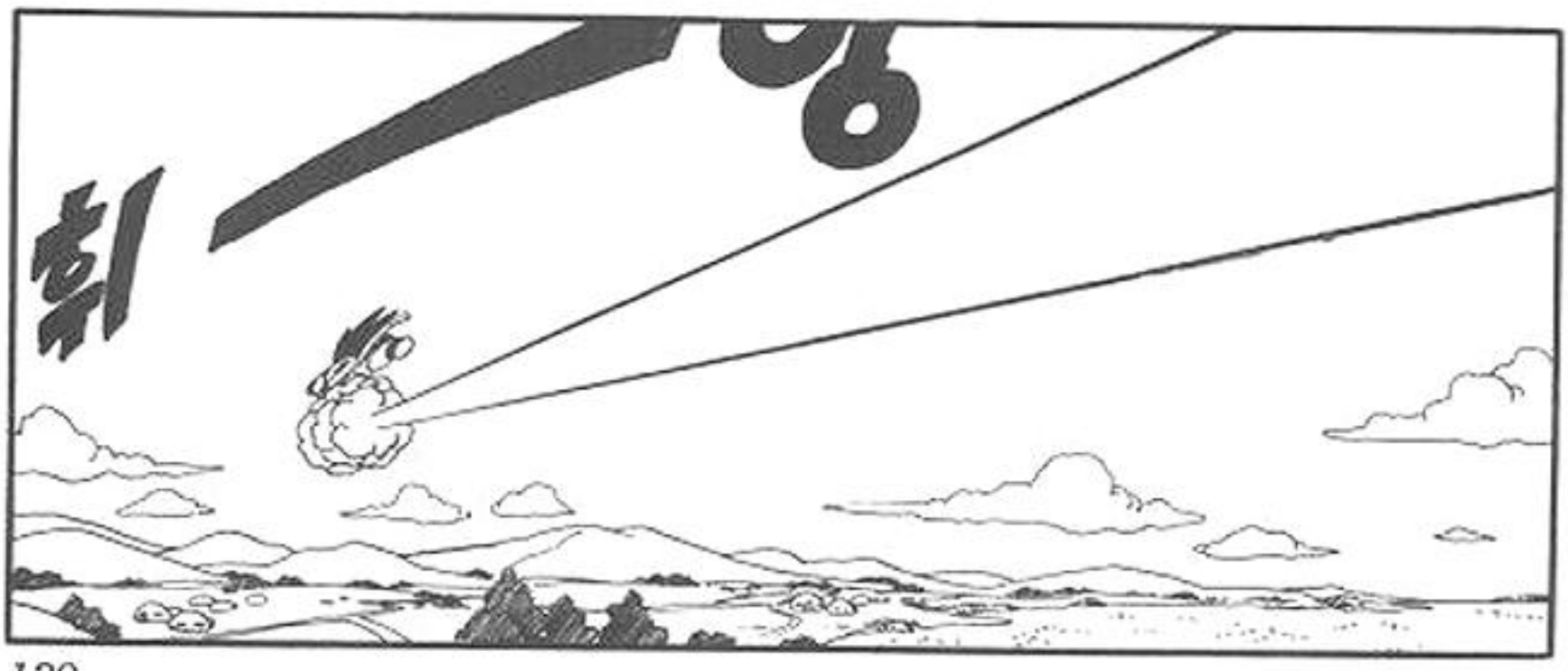
킹캐슬
이야!


지이잉
저기 있다!
저건 뭐야?
휘
앙


피콜로! 밑으로 내려와라!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239
좋은 기회다. 저놈이 죽는 모습을 TV로 보여주자. 국왕에게 반항하는 놈의 최후를….
좋았어, 잠시만 놀아줄까?
벌써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멍청이가 왔군.
저렇게 머리 나쁜 놈들이 많아요….
크흐흐! 좋습니다….
다시는 저런 날파리가 안 나오게.


휘
슝


53


휙


슈
우
사뿐
탁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특별히 놀아주마.
까불지 마라!
그 즐겁던 국왕 노릇도 이제 끝이다.
네놈한테 어울리는 성은 이 전자밥통 속이 제격이라구.

부…
부서
졌잖아…!!

이…
이걸로는
봉인할 수가
없어…!

큰일났다…!!
이럴 수가!
계속 마봉파
연습을 하는 동안
깨졌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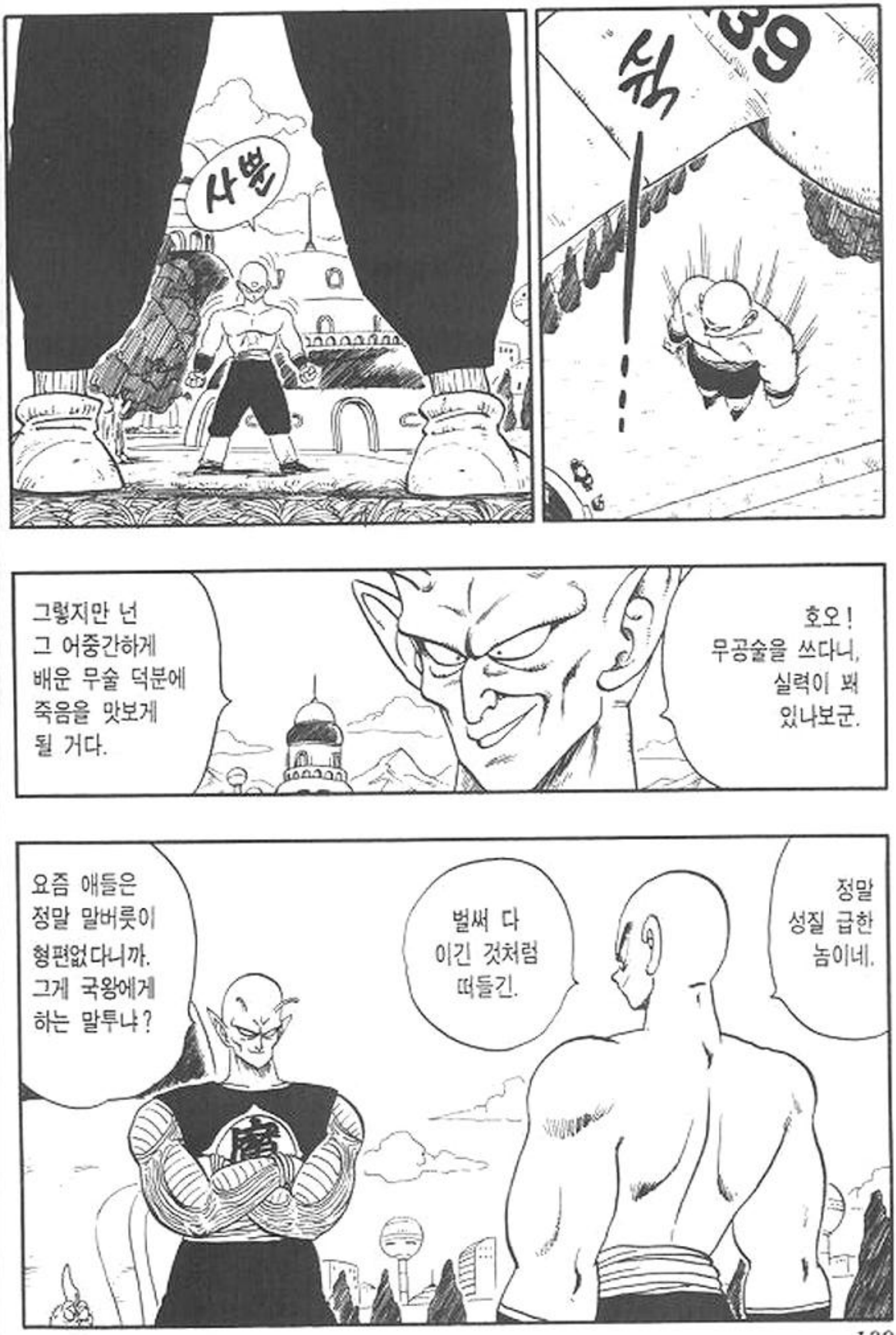
크으…!

워 해!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이젠
우서워진
거냐!?

빨리 덤벼!
도시가
소멸되길
목 빠지게
기다린
다구!

좋아….

마봉파 없이
상대해
주마…!


사뿐
쉭
호오! 무공술을 쓰다니, 실력이 꽤 있나보군.
그렇지만 넌 그 어중간하게 배운 무술 덕분에 죽음을 맛보게 될 거다.
정말 성질 급한 놈이네.
벌써 다 이긴 것처럼 떠들긴.
요즘 애들은 정말 말버릇이 형편없다니까. 그게 국왕에게 하는 말투냐?


너 같은 놈은
국왕이
몸소 나설
필요도 없어.


윱


윱...


뭐라고?


!!


쿵


짝...쩌적...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뿌직 뿌직

우리 마족 전사의 위력을 보여드려라!

네 이름은 드럼이다.

크크크!

나야말로 네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괴… 괴물…!

DRAGON BALL

제154화
천진반의 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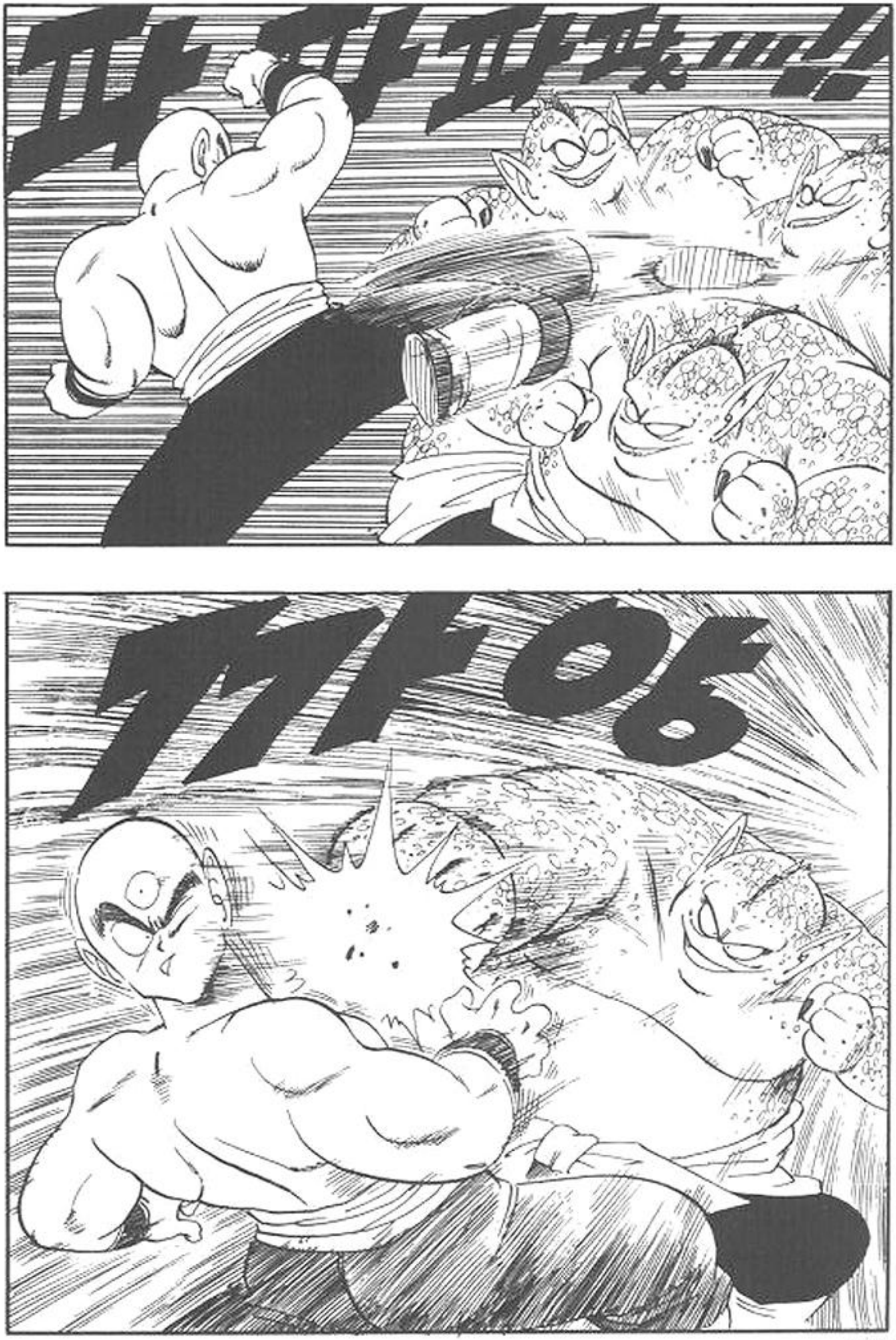
드럼아!
괜히 여유부리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
하지 말고 후딱
해치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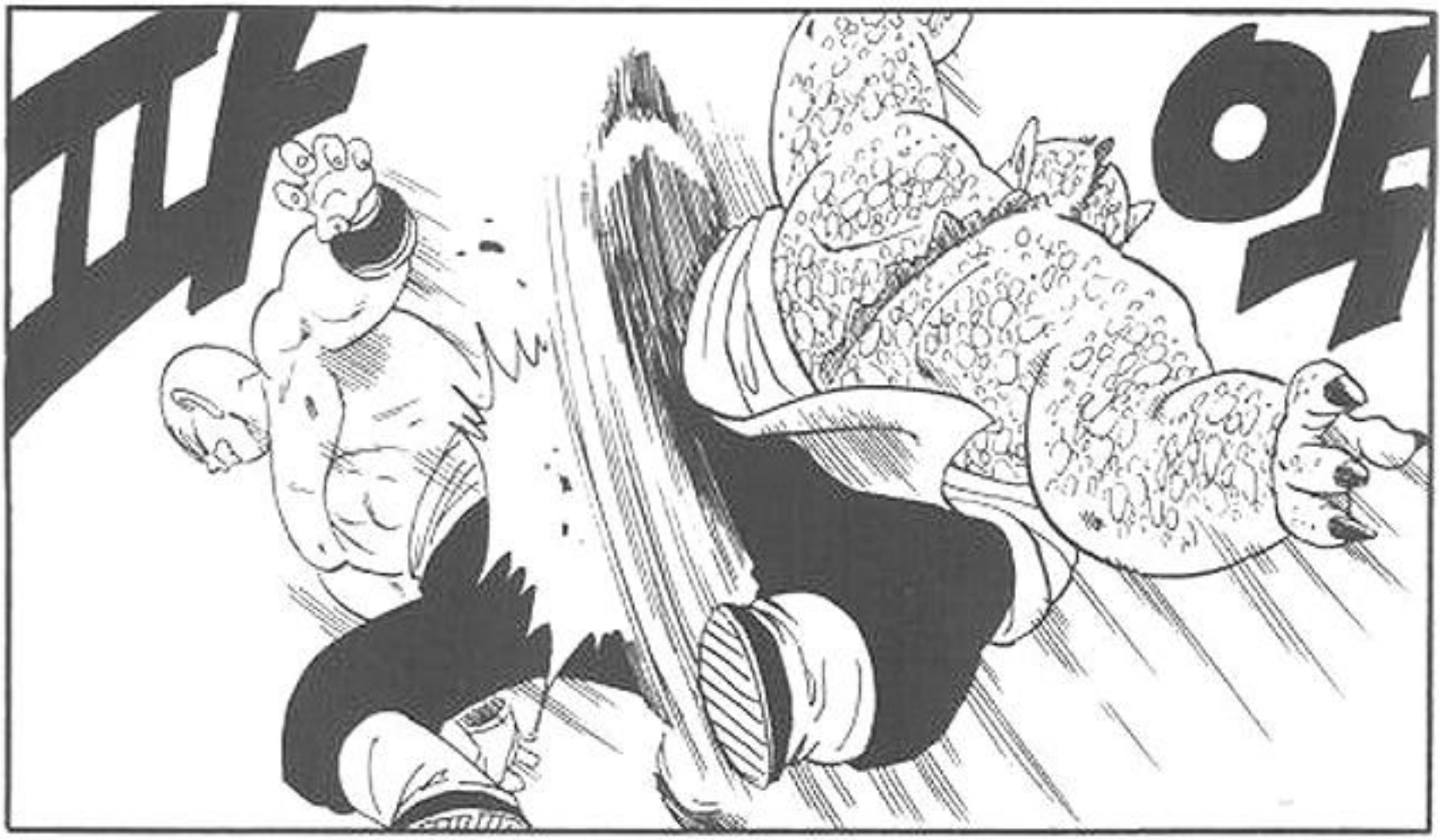
휘잉!

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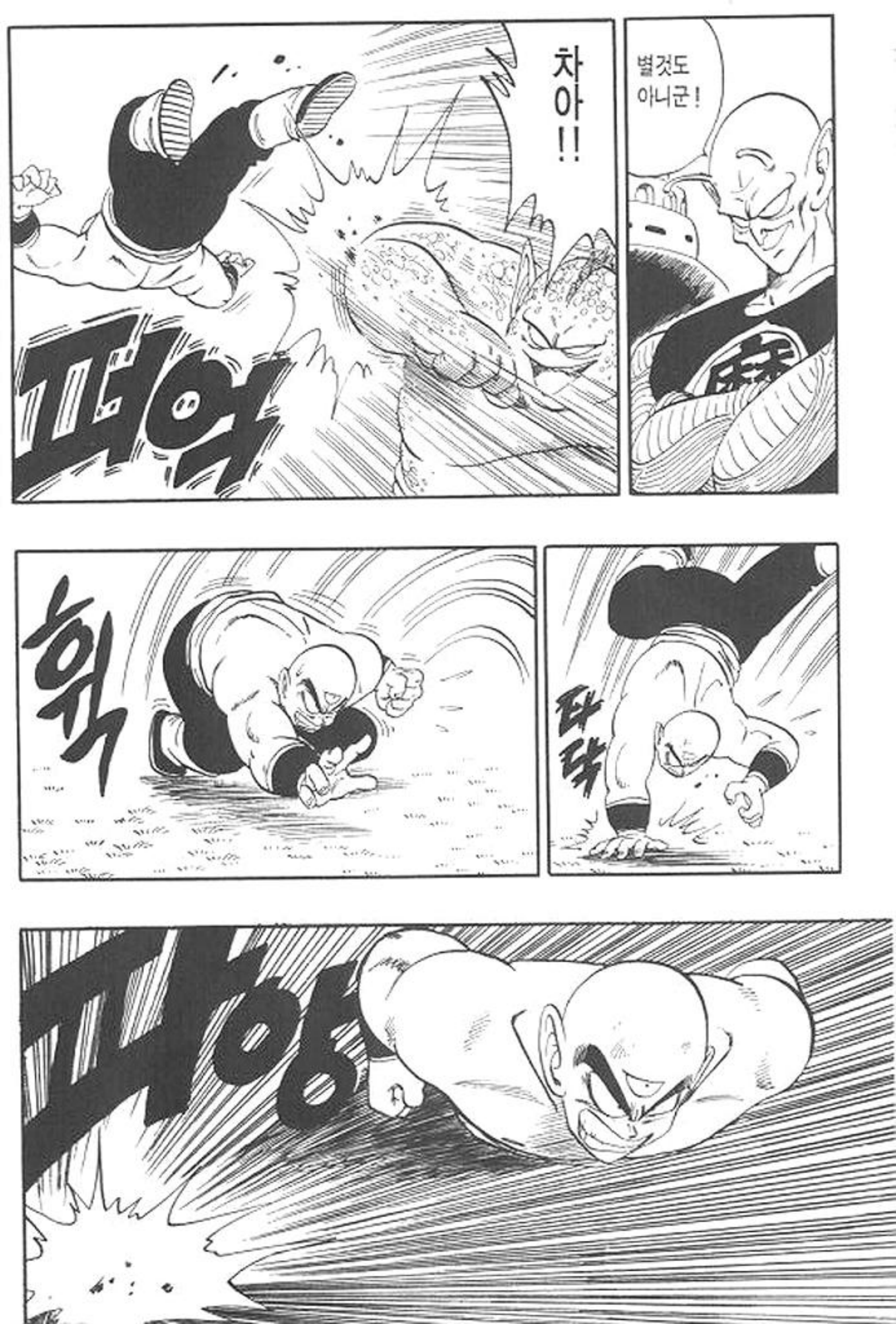
조금만
더가면
돼!


까불지 마라!
반드시 네놈들을 없애버릴 테다!
하앗!!
쾅
휘익
파밧


ガチャッ!!
ガチ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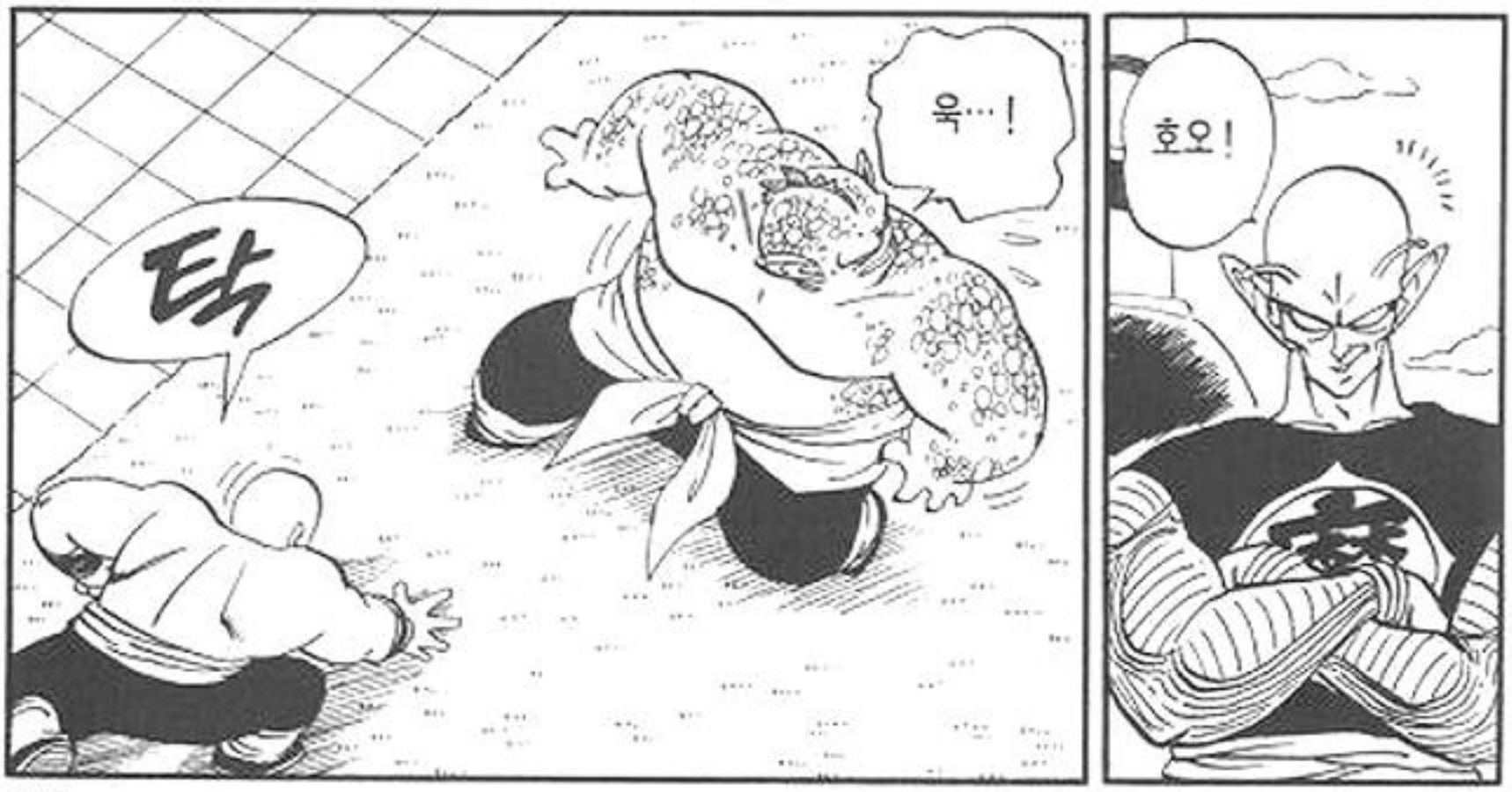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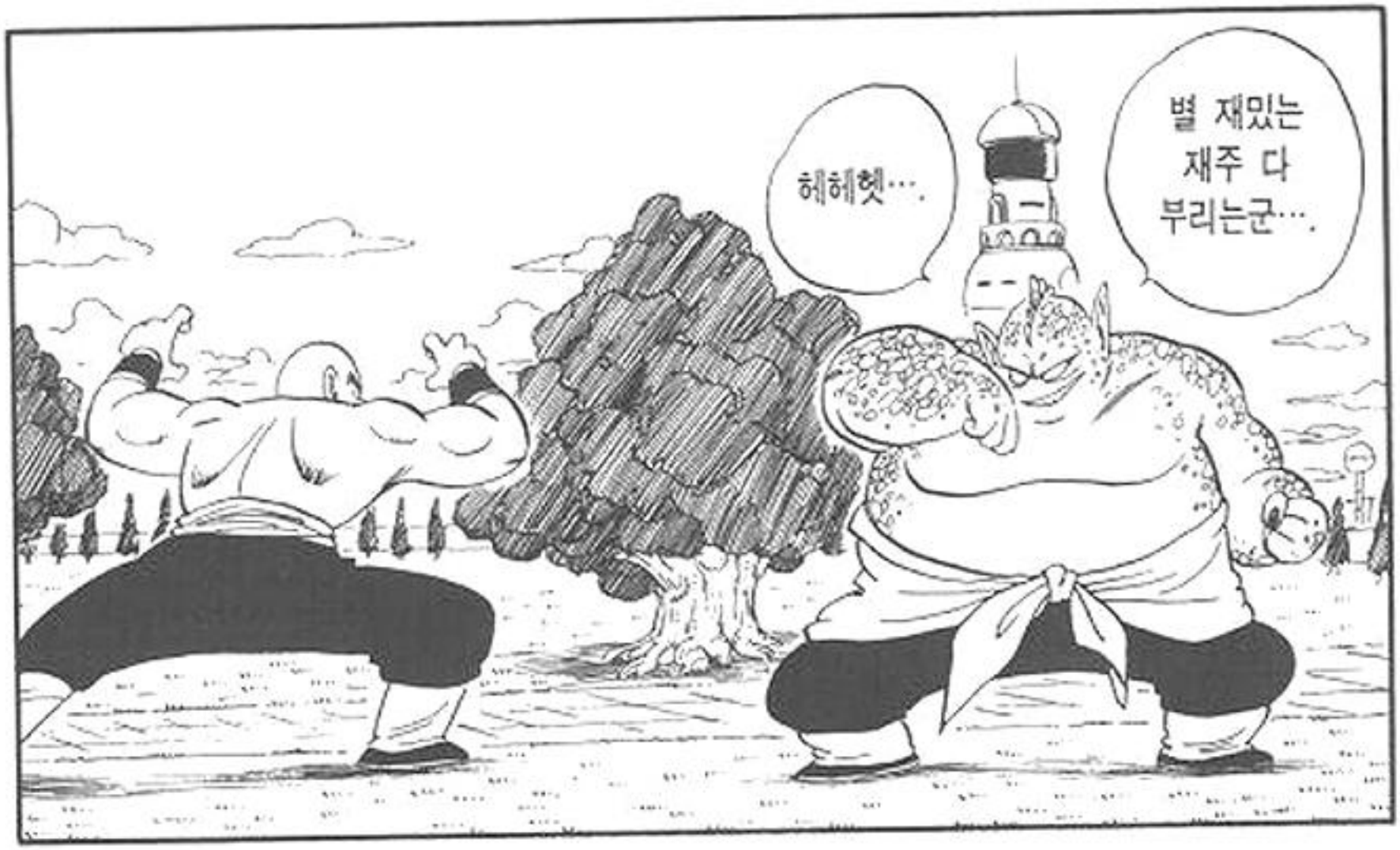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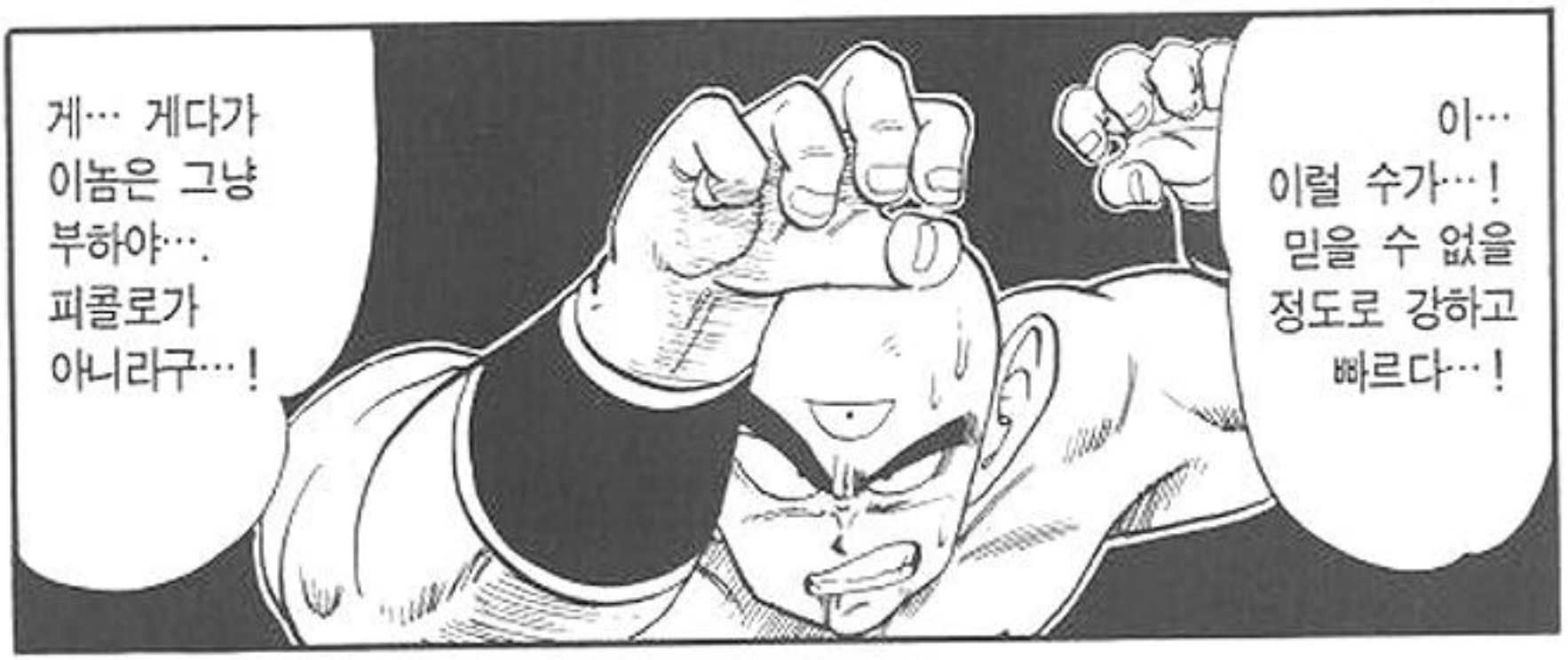

별것도 아니군!
차아!!
퍼억
타닥
휙


!!


가아아


탁
윽…!
호오!


헤헤헷….
별 재밌는 재주 다 부리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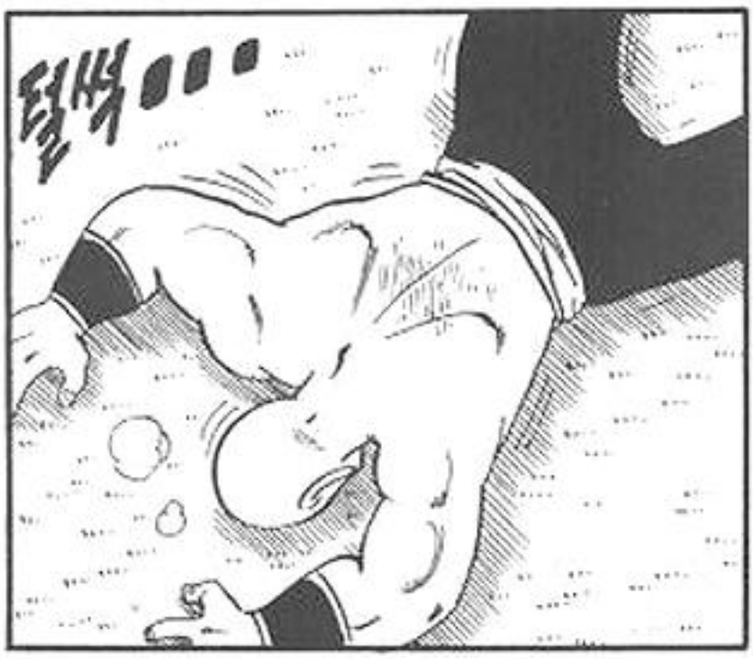

게… 게다가 이놈은 그냥 부하야…. 피콜로가 아니라구…!
이…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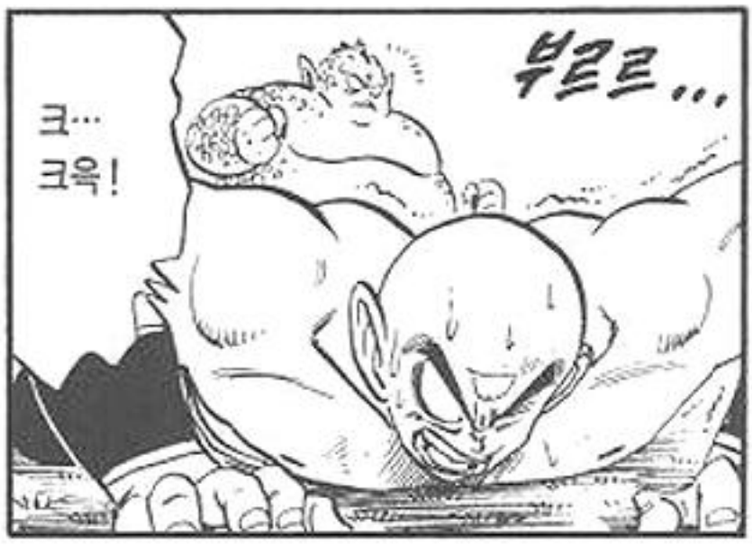

허앗
넌 이제 끝장이다!




크아아아


털썩...


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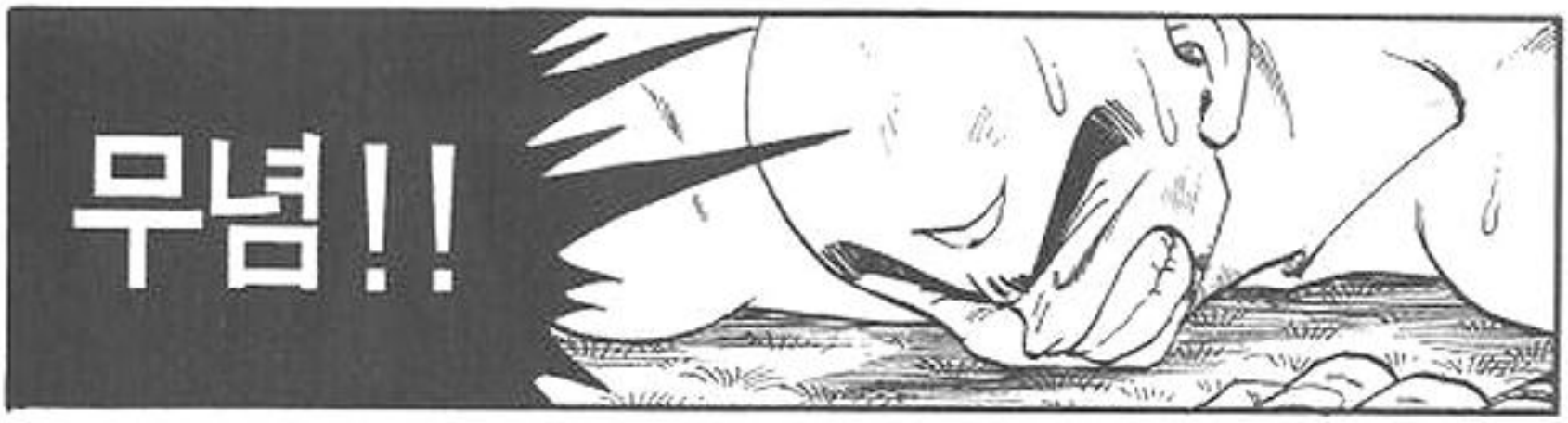

부르르...
크…
크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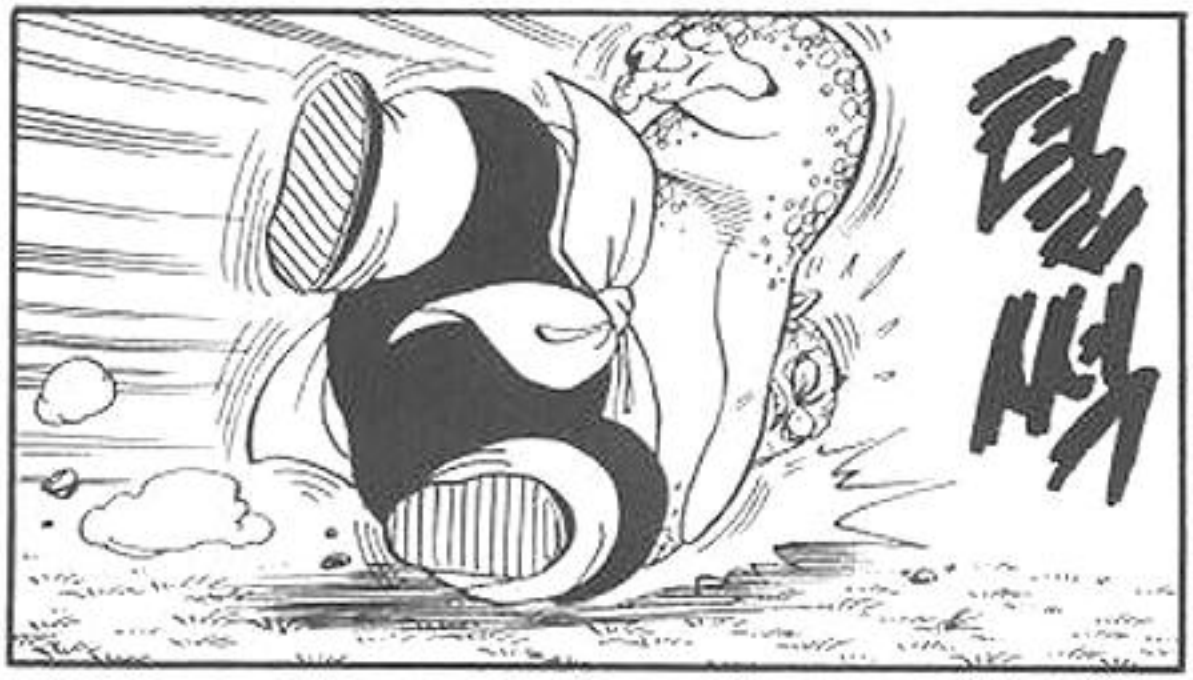

케케케…
예!


심장을 박살내 버려라!
질긴 놈이군!


카카 카카!
으…! 제… 제길…!


에잇!!


무념!!


펑


펑


아니!?

네…
네놈은…!

역시 천진반이었구나!

설마…!

소…, 손오공…!?

분명히 깨끗이 죽였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놈이네….

난 운이 좋은 놈이걸랑!

사, 살아 있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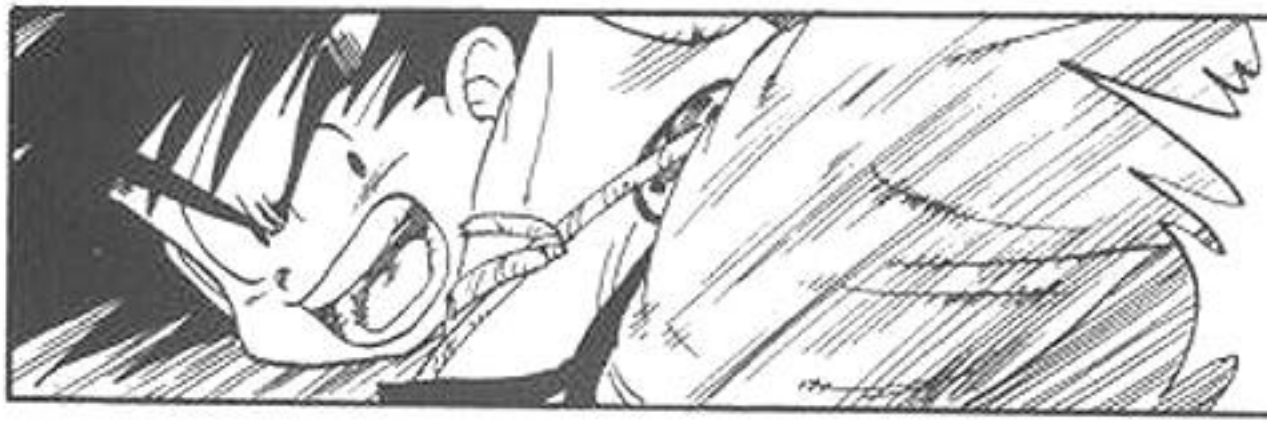
지난번에 네놈을 묵사발로 만들었던 상대가 더욱 압도적인 파워를 지니게 됐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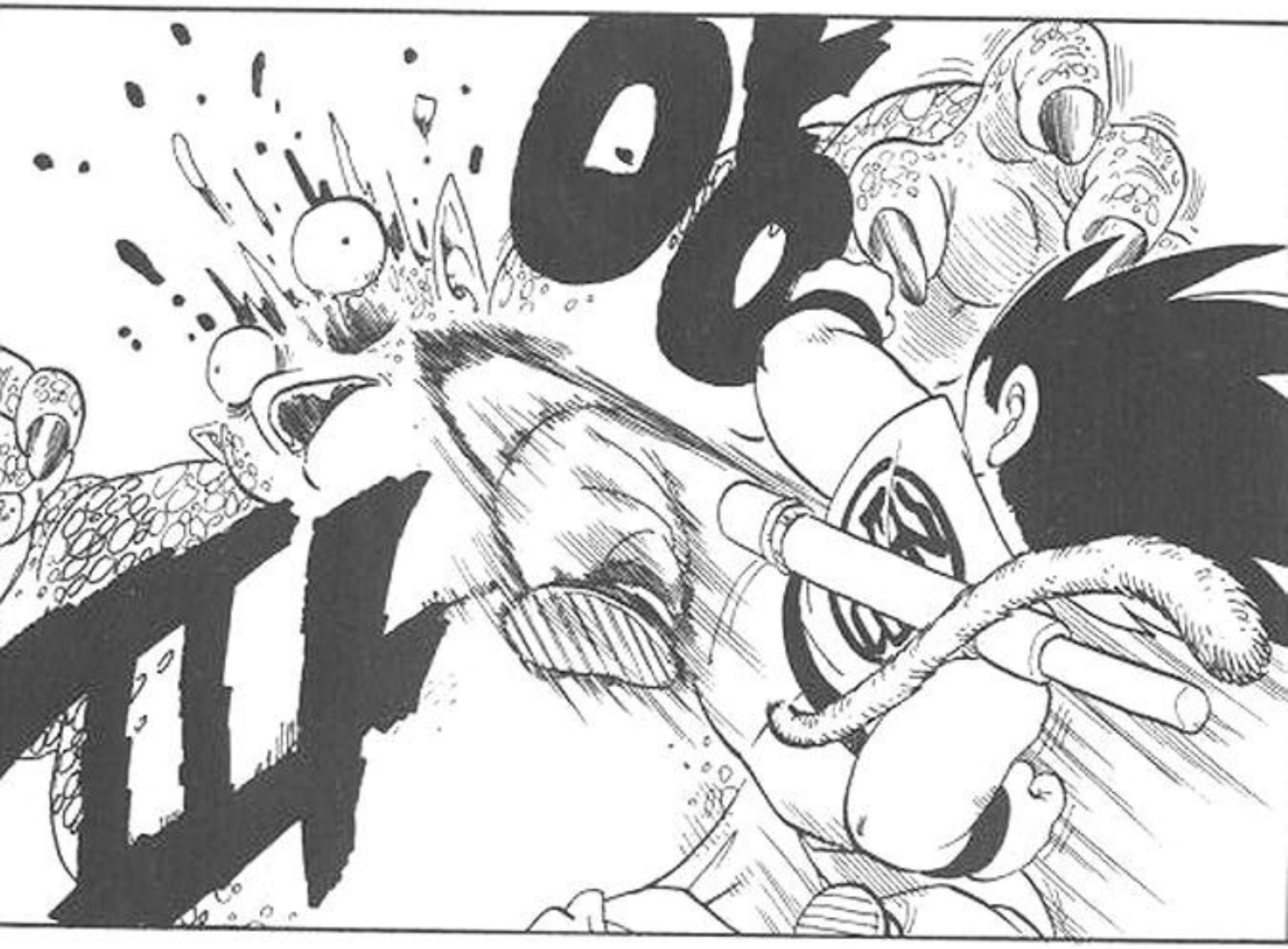
다시 젊어졌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너, 얼굴이 변했잖아?

어?


도망가, 오공!
빨리 도망쳐!
그렇게는 안 되지….
때리고도 사할 줄 면 오산 라구.
그 말이 맞다.
런 머리들은 어야만 해를 한다니까.
휘익
케켁!


얍!!


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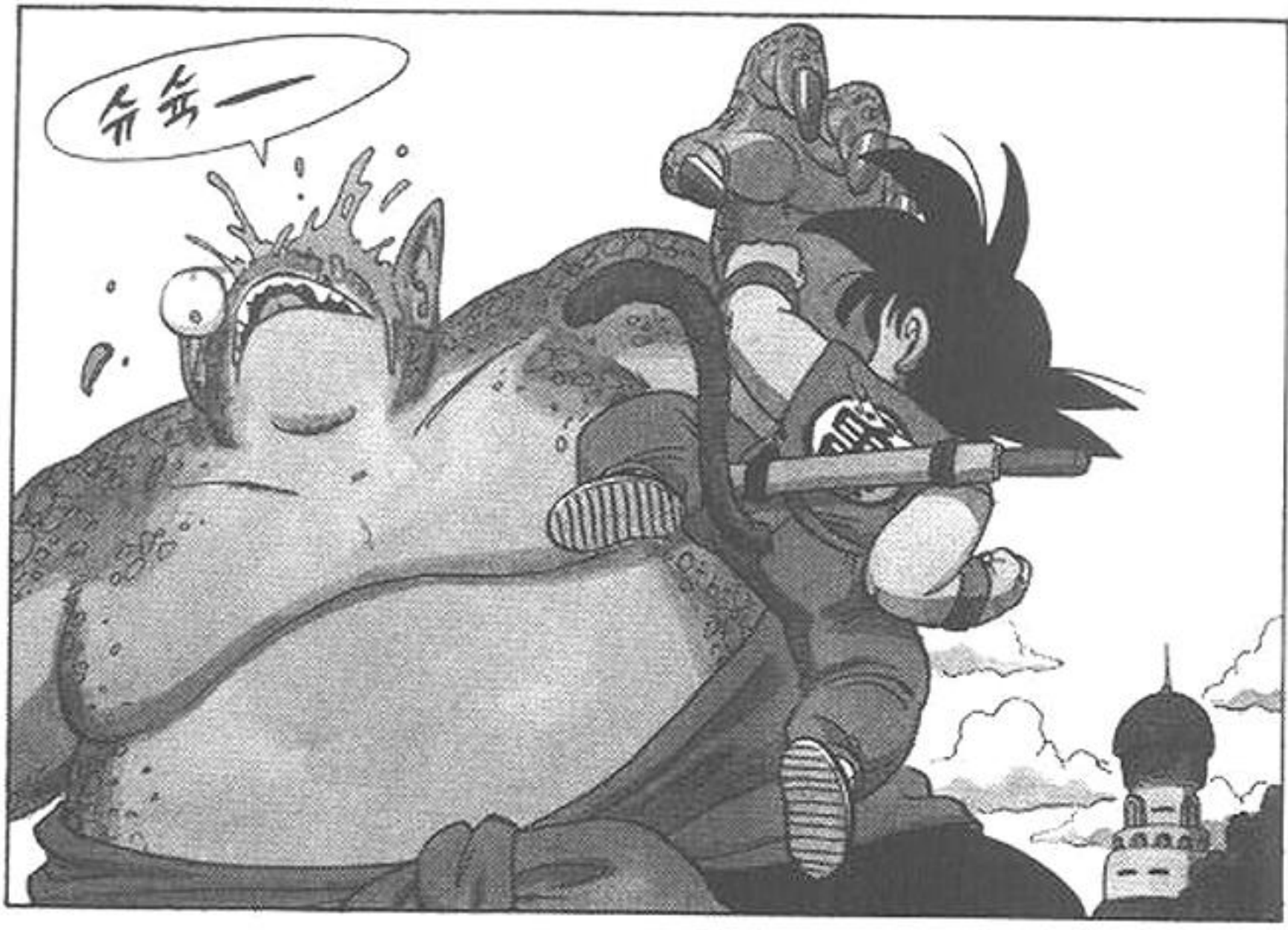




DRAGONBALL

제155화
손오공의 역습




슈슈—


!!
!!


카앗


탁

이…, 일격…!
단 일격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에… 예전의 손오공이
아니야…!

저… 저렇게까지
엄청난 파괴력은
없었는데…!

죽다 살아난
주제에 감히
나 피콜로한테
대항하다니….

꽤
까부는군….

네놈들을
처치하기
전까진
난 죽을 수
없다구!

그래!

오케이-!

오룡들은 무천도사 님과 차오즈의 시체를 찾아줘!

자, 우리도 천진반을 도우러 가자!

240

런치 씨는 이럴 때가 제일 믿음직 스러워…!

정말!

가만 두지 않을 테다!

천진반에게 무슨 일만 있어봐라!

엣취!!

어머!? 어머 나~!?

깍-! 혹시 우리 지금 소풍가는 건가요!?

……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나 피콜로 님을 처치 하겠다고?
흥! 지 주제도 모르는 놈.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새 국왕은 애들이랑 장난칠 시간 없다.
서쪽 도시가 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구….
魔


단 5초만에 네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이야아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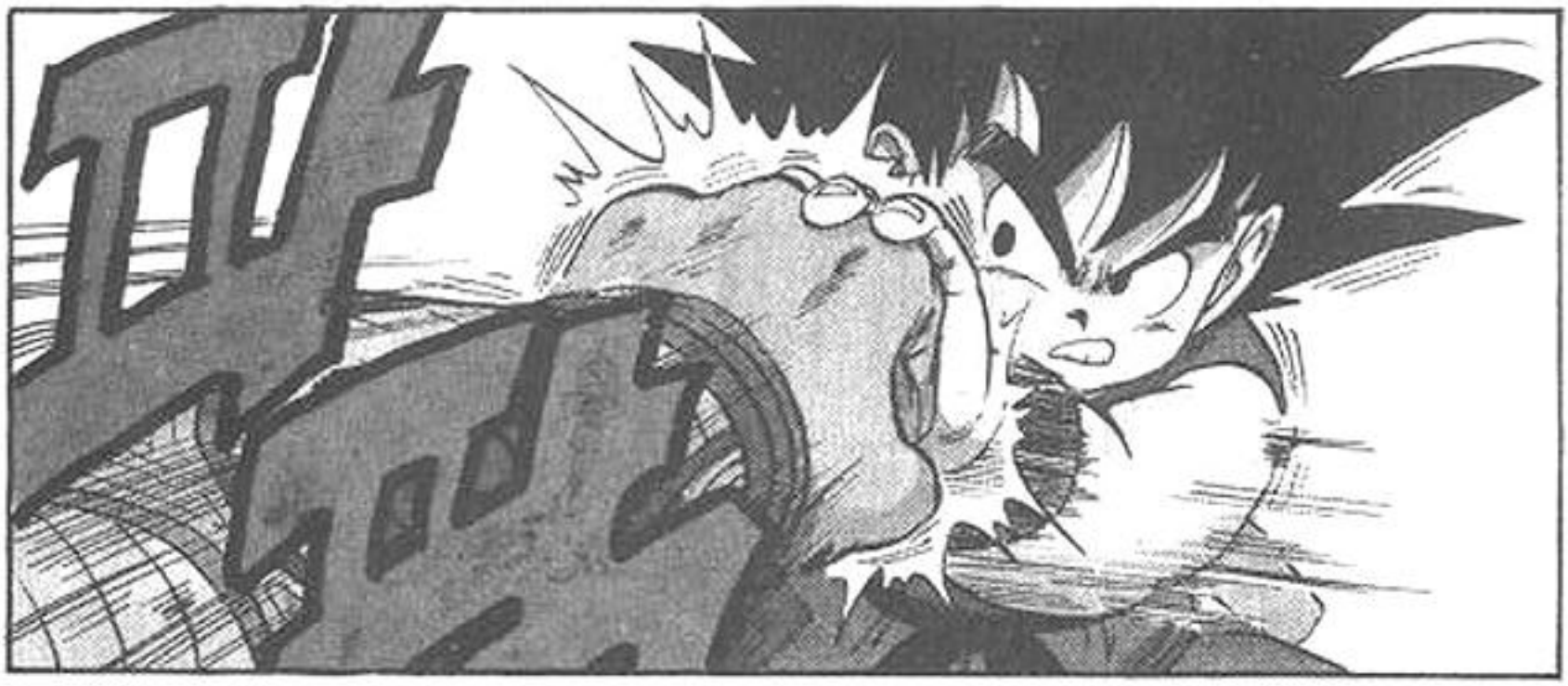




!!

앗…!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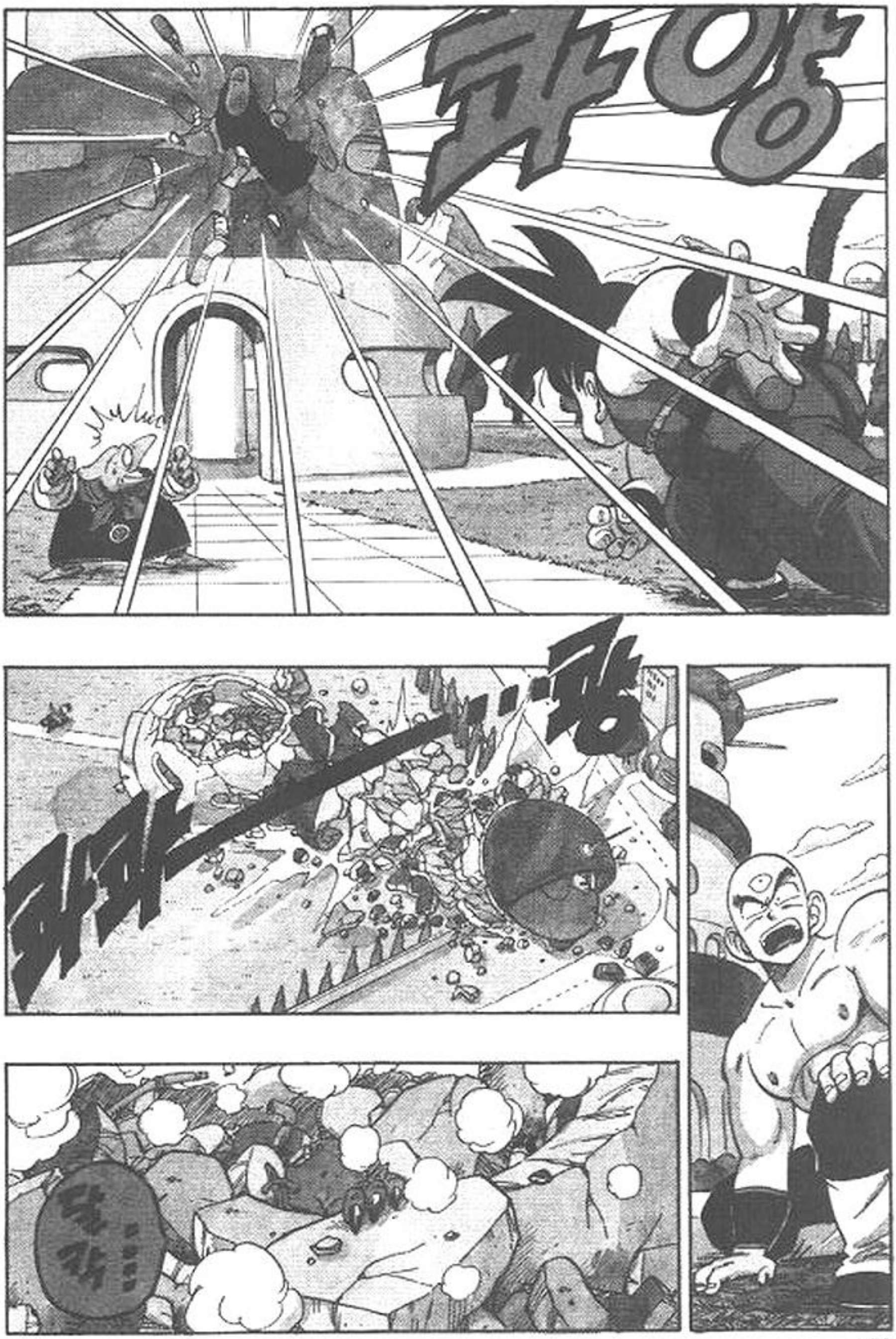









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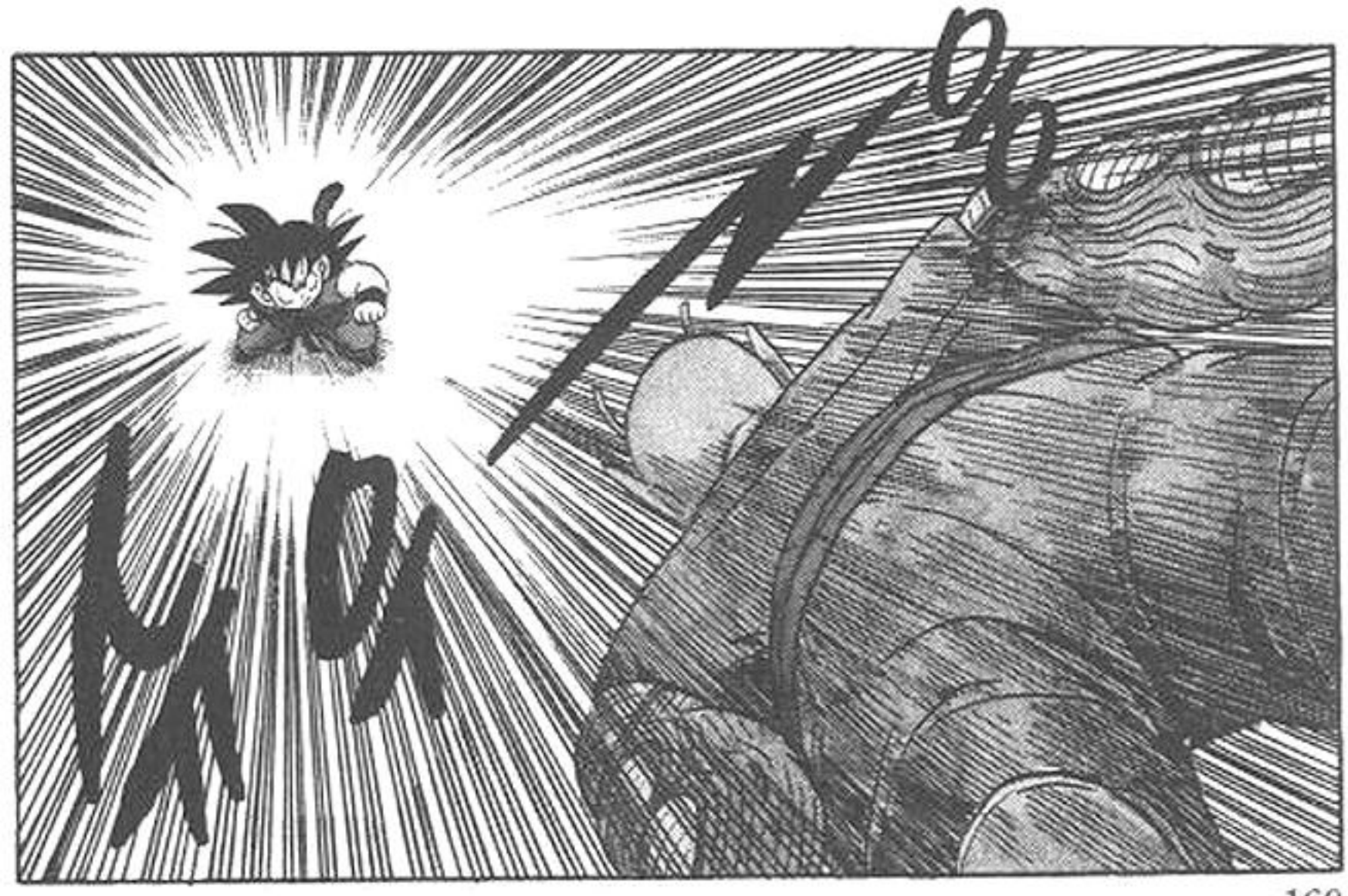

5초는
이미
지났네.


투둑...


박살을
내버릴
테다!
이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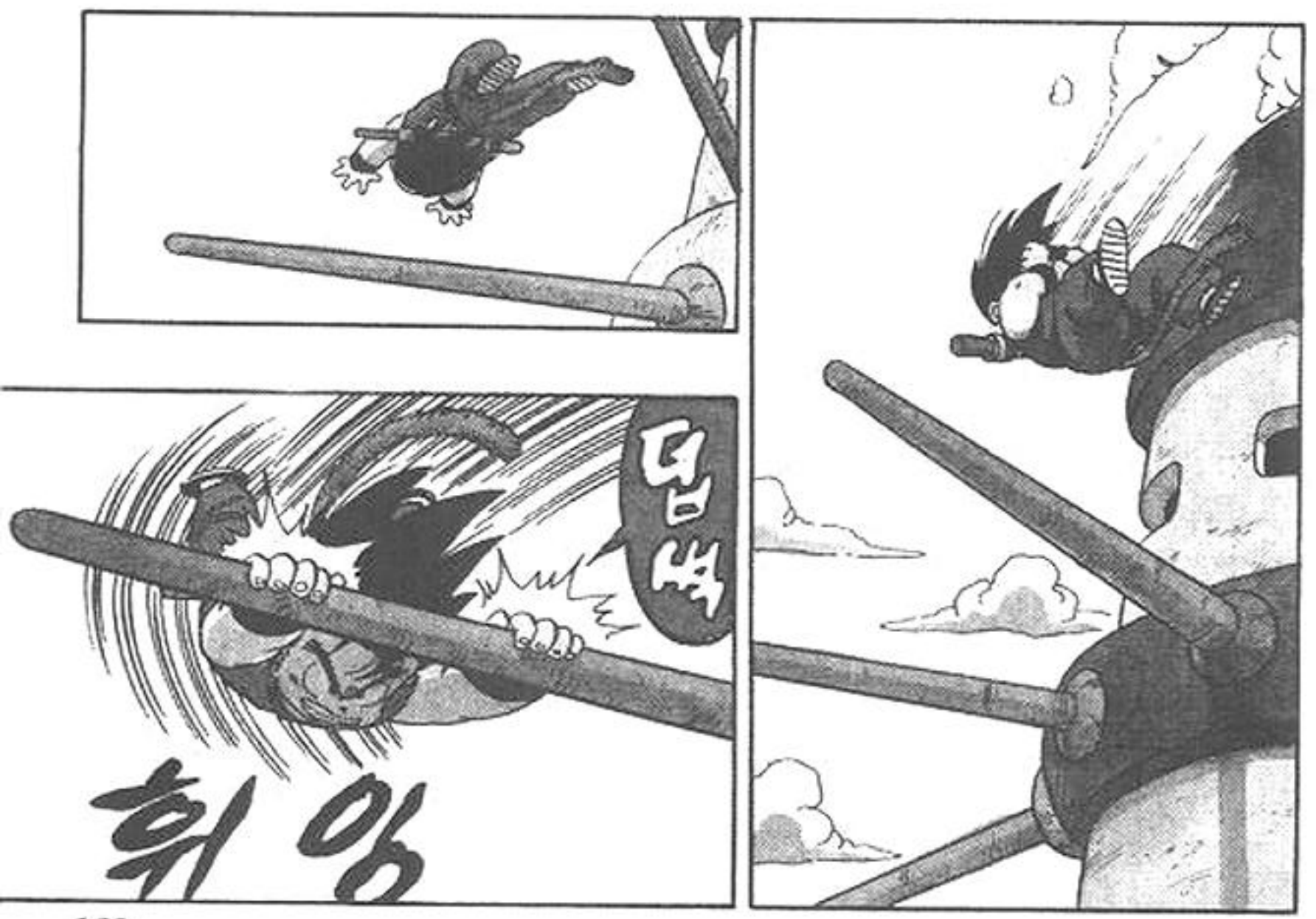

최강


기




쾅
쾅
히죽
탁


에잇~!!
차아아앗!!
파팟


휘 앙



빙그르르
타탁
아니…!
이놈이…!
도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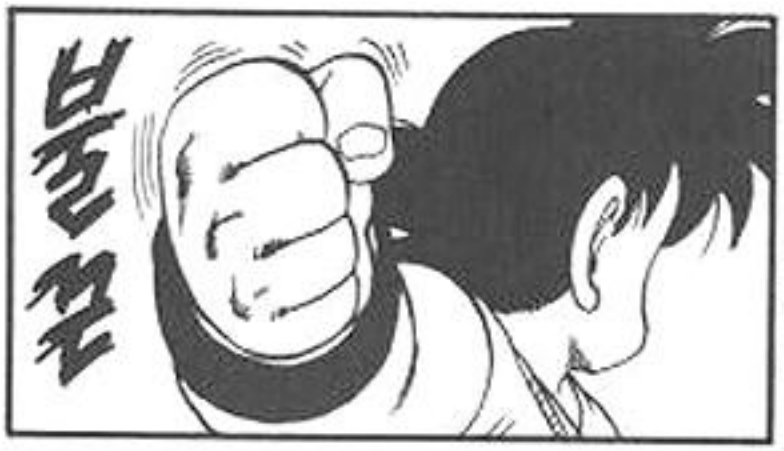

DRAGON BALL
제156화
분노!!


미…, 믿을 수 없어….
괴… 괴클로의 공격을 정면으로 쳐내 버리다니….
이… 이놈…. 대체 어떻게….
이…이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다 있냐…!
각오해라! 이번에는 내가 공격할 거니까!


나 피콜로 대마왕님한테 공격을 한다고?
공격?


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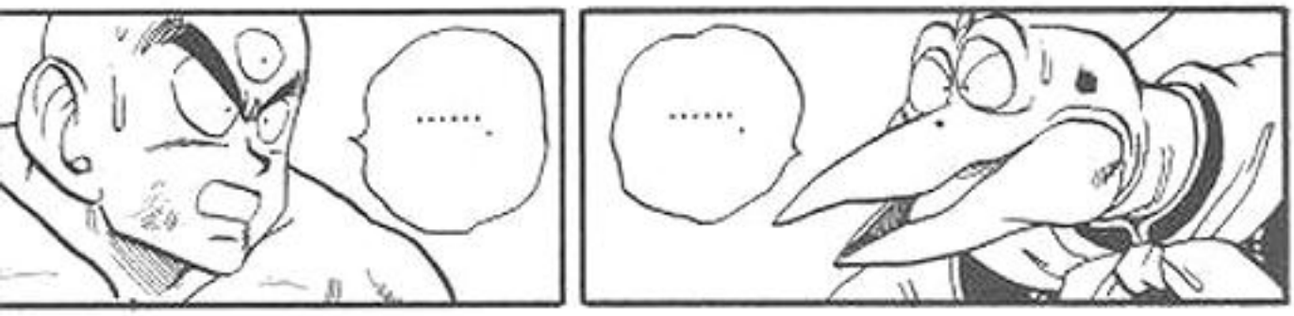

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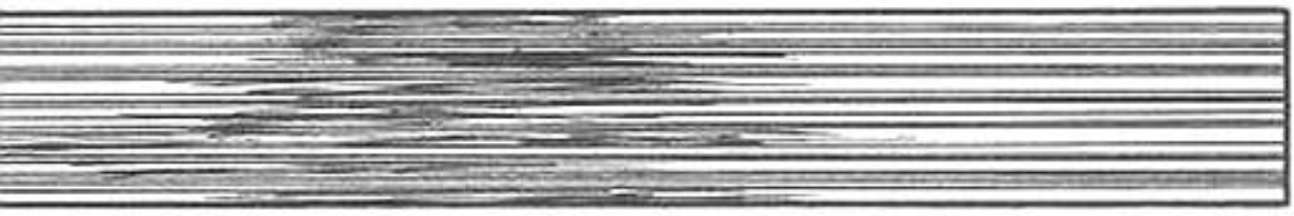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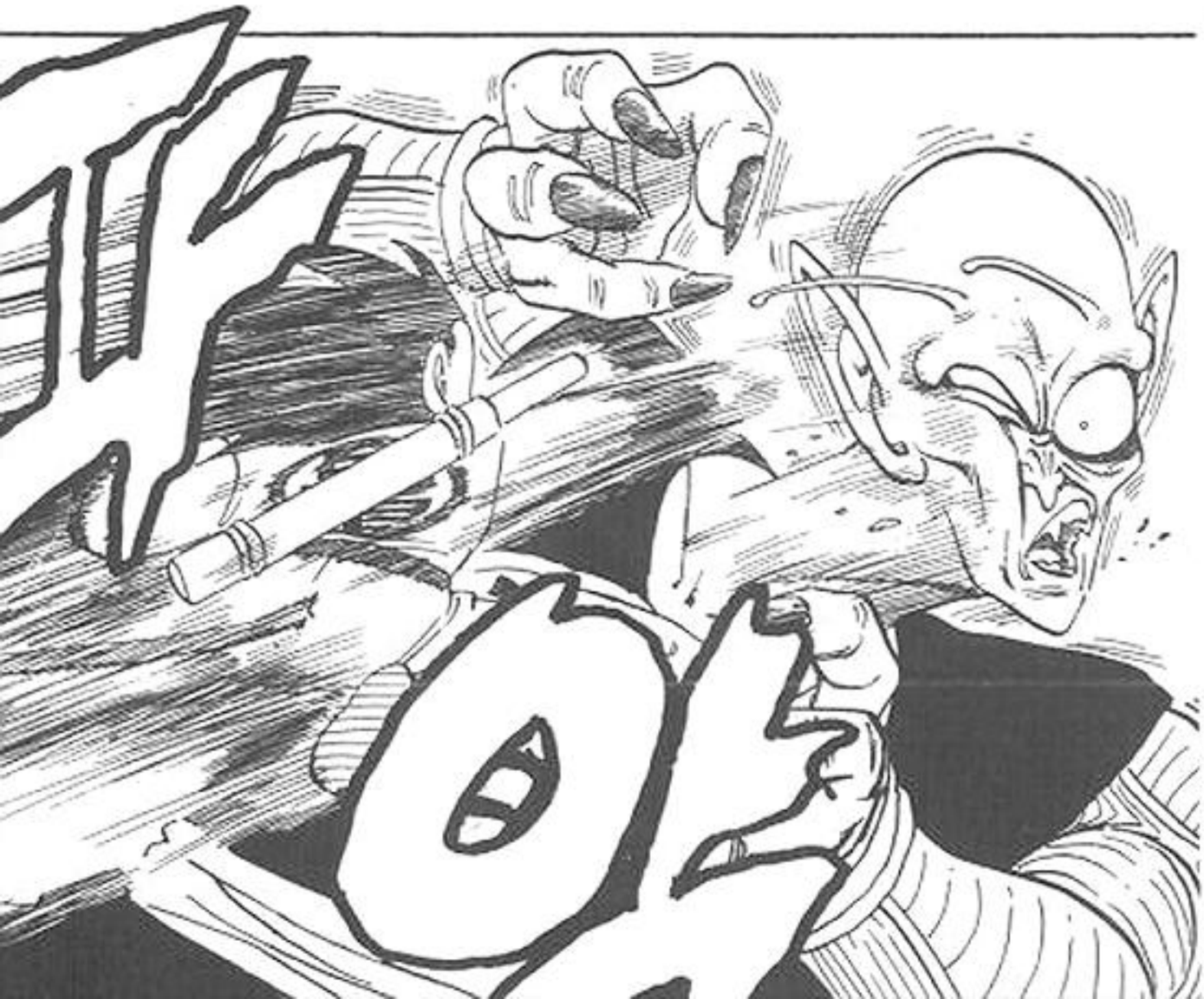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진짜 파워를 보는 순간 넌 마지막이야!!
까불지 마라, 꼬마야!










!!
왁…!!

내… 내 눈조차
오공의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다니….

보… 보이지도
않았어…!

왜…, 왠지
나까지 떨려
죽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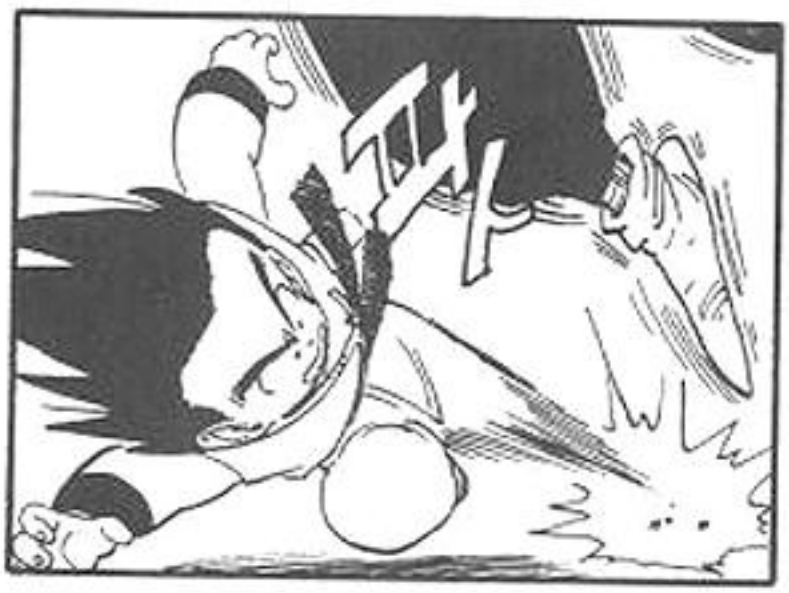
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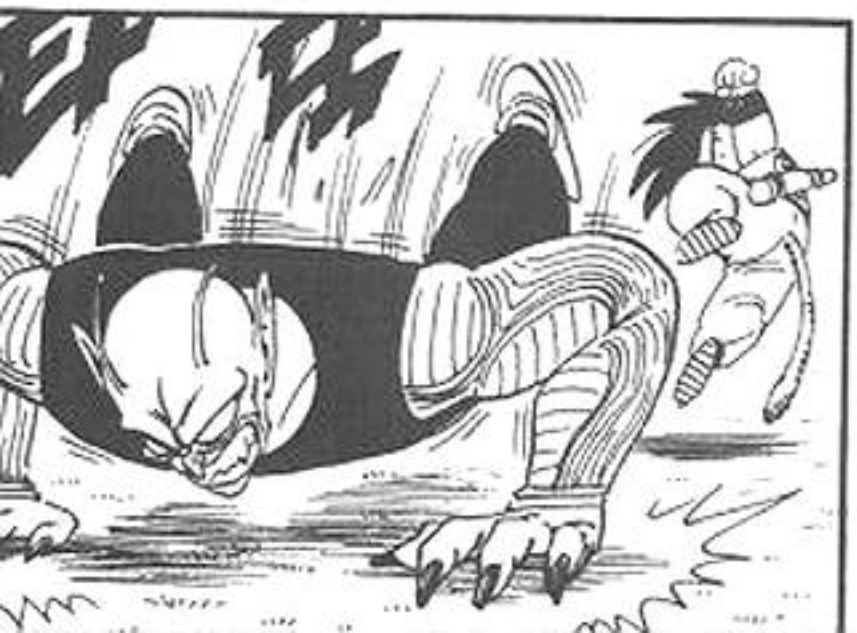
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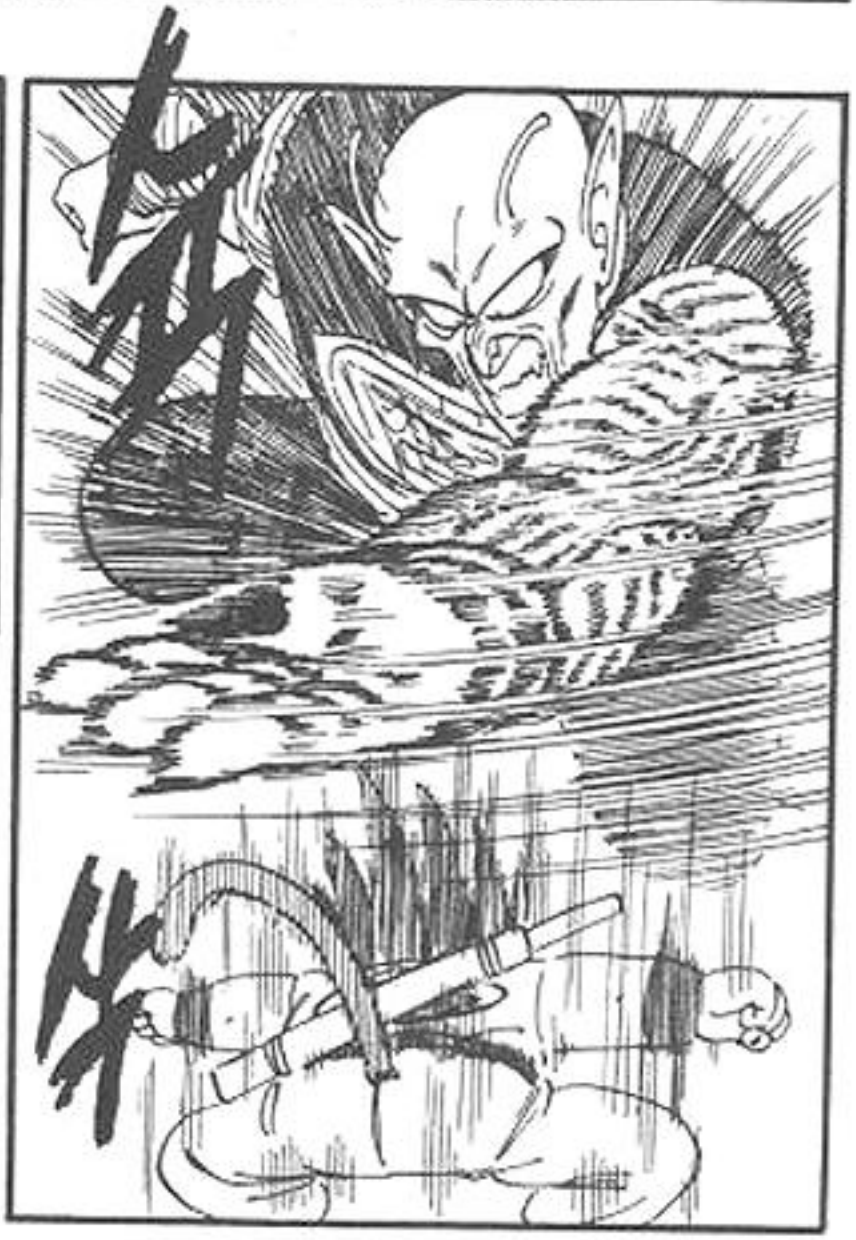

퍽


요…,
용서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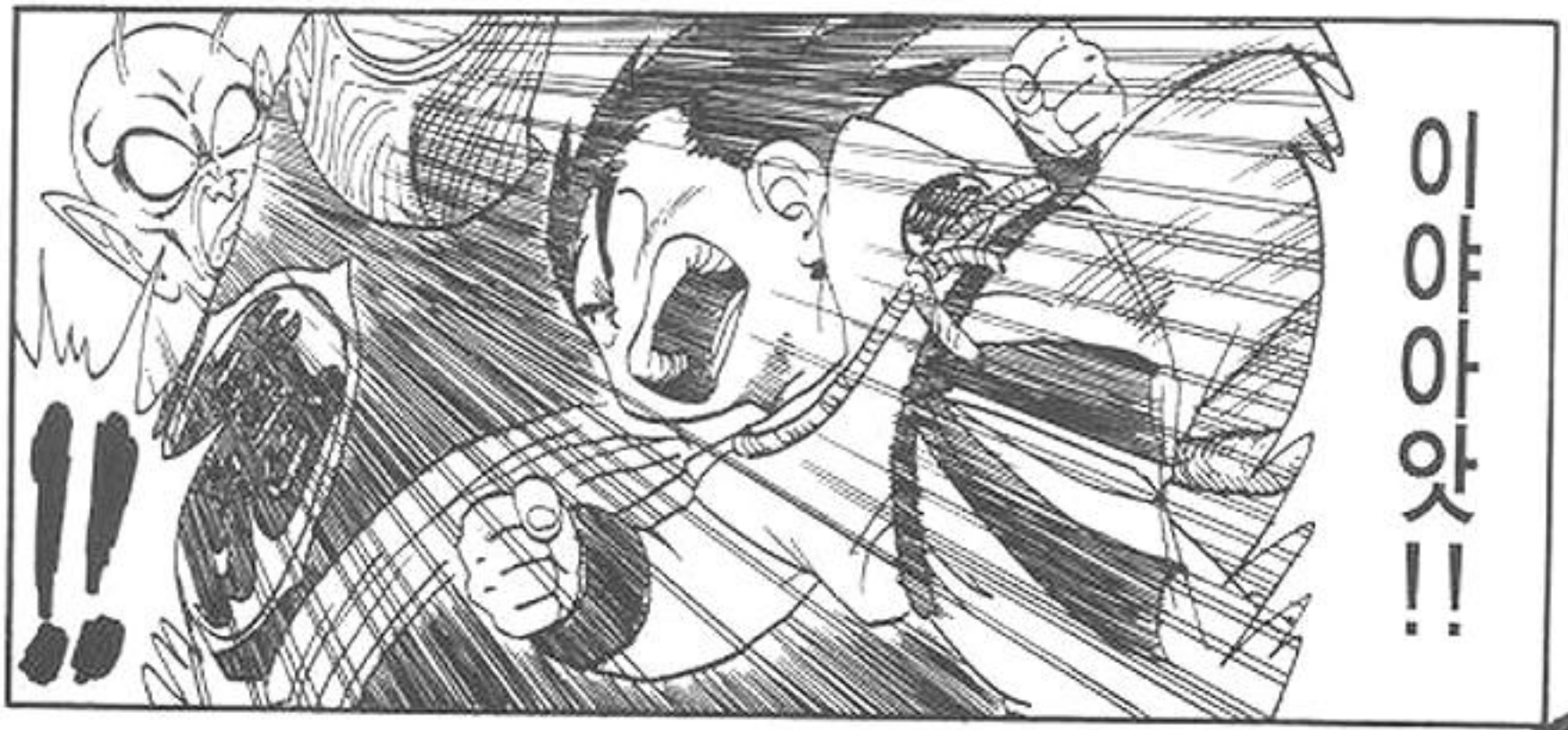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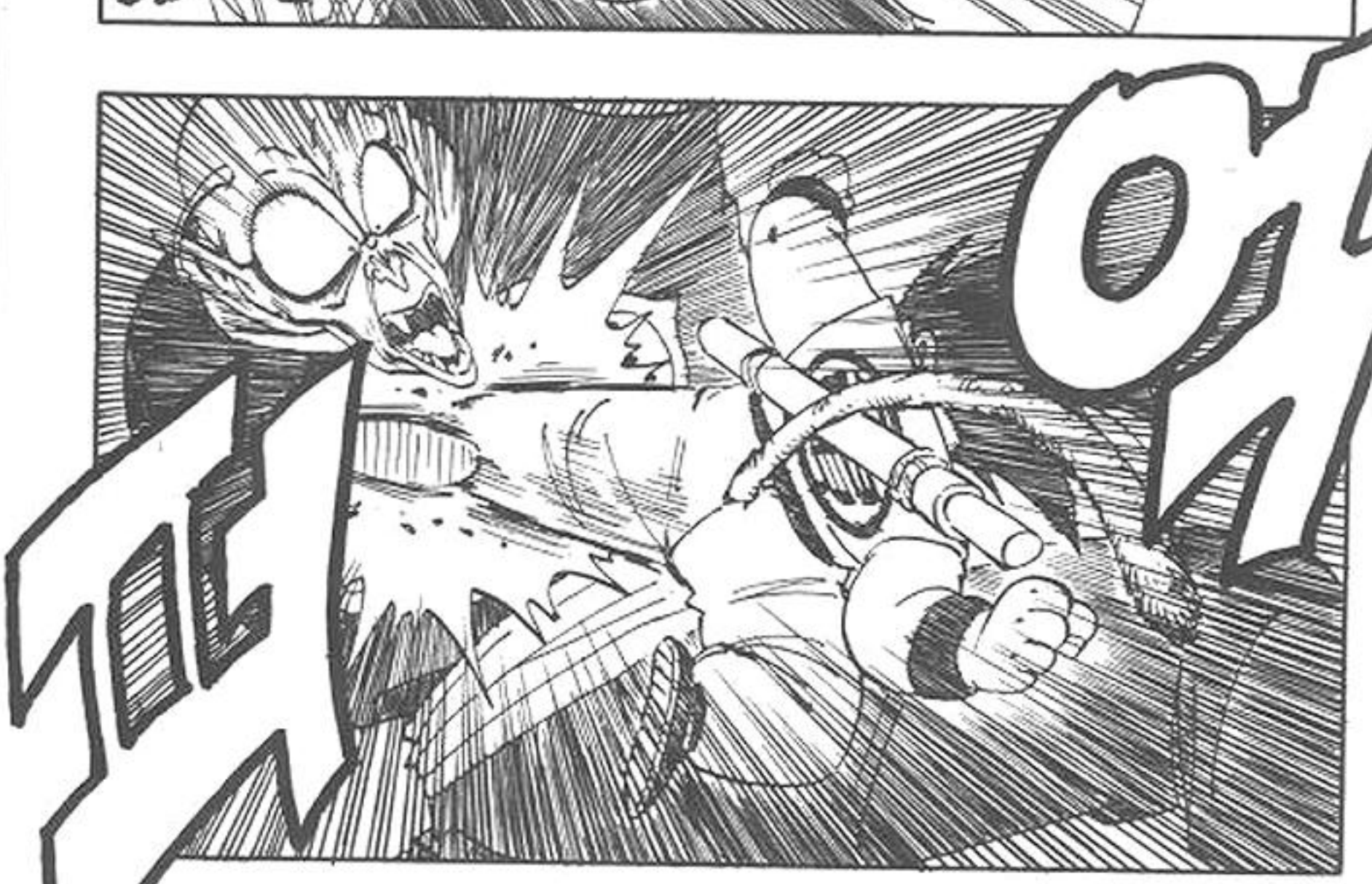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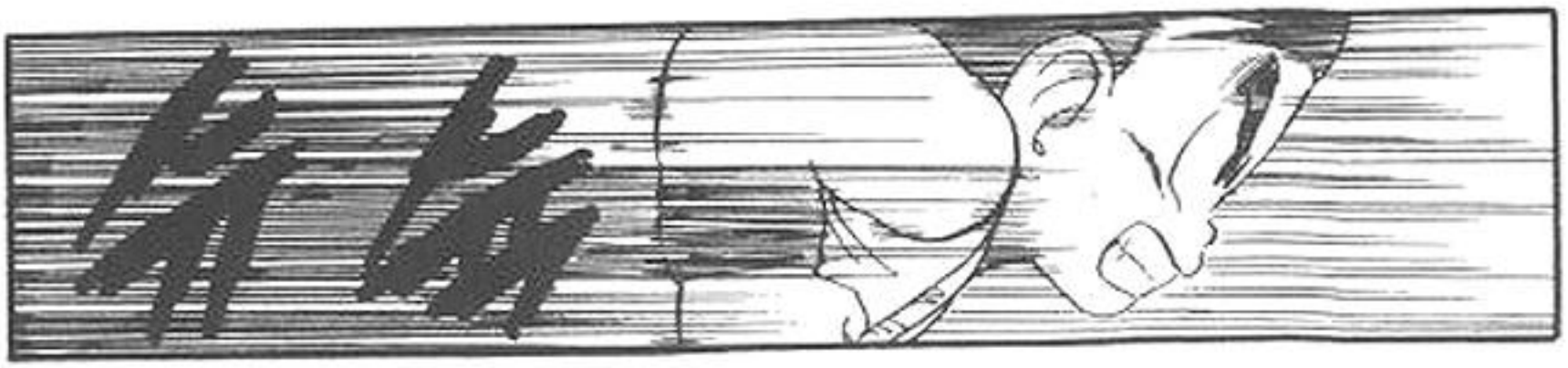







이야앗!!
!!


끼잉
컥…!
케켁…!!


Ha


HHHHH
OH

대…
대단해…!!

와…!

우…,
우…!

후…!
후후…!

이 피콜로 대마왕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뭉개 버린 놈은 네놈이 처음이다….

꽤 강한걸….

힘을 다 내지 않은 거야 …!?

워… 워라고… !?

네 모든 힘을 전부 보여봐!

자, 맘껏 덤벼라!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왜… 왜지…?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건가…?

우…, 웃고 있잖아….

잘도 아셨군. 역시나….

호오…!

가능하면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군….

풀 파워로 싸우면 내 수명이 줄어들지….

크흐흐…!

우아아…!!

아…!

하아아아아…

어…, 엄청난 기다…!

……!!

각오는 되었겠지?

하핫…!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너도 파워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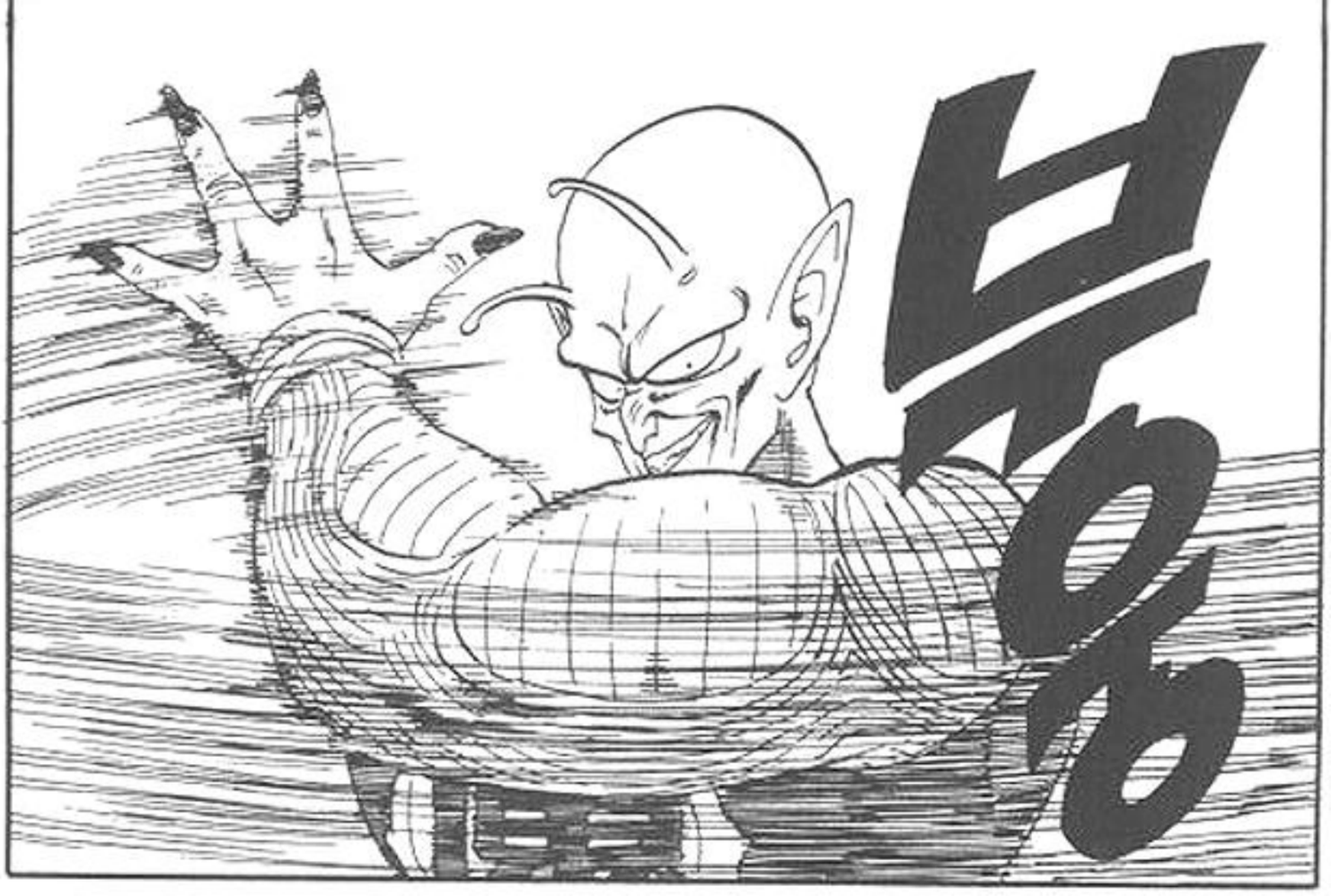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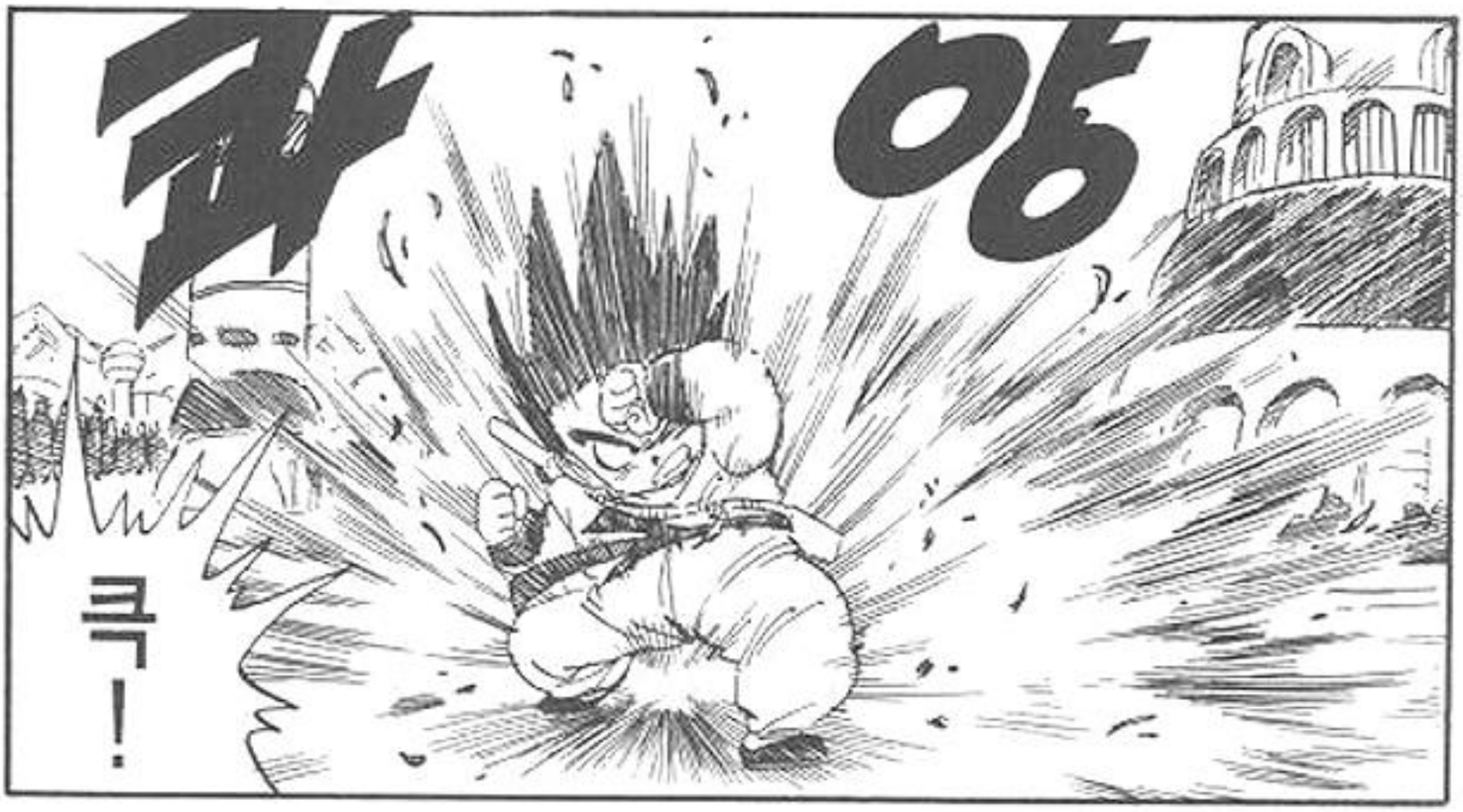
이제 나도 널 마음껏 요리해 주마! 힘을 좀 써 볼까?

너야 말로!

뻥치지 마!

보여 줄까?


부우


팡
앙
크!


매…,
맨손으로
이런
위력이…!!


역시나….
비비비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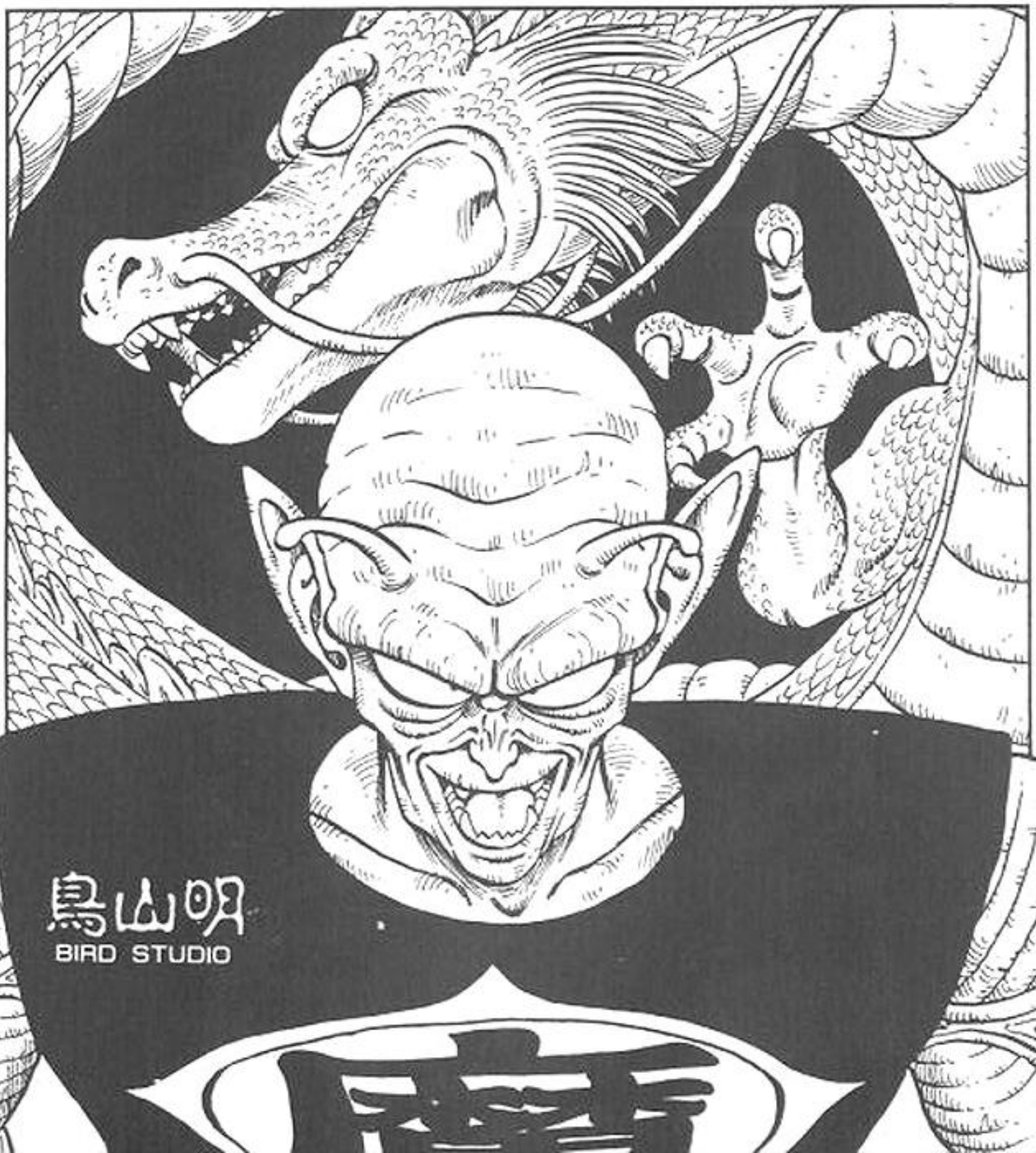
표지 페이지 대특집 XII

★ 더욱더 파워업한 오공!
다음편 제14권은 드디어 오공 대 피콜로 대마왕의 클라이맥스다!
—이고, 그 전에 표지 페이지 대특집.
(항상 마찬가지로 소년 점프에 실린 그대로입니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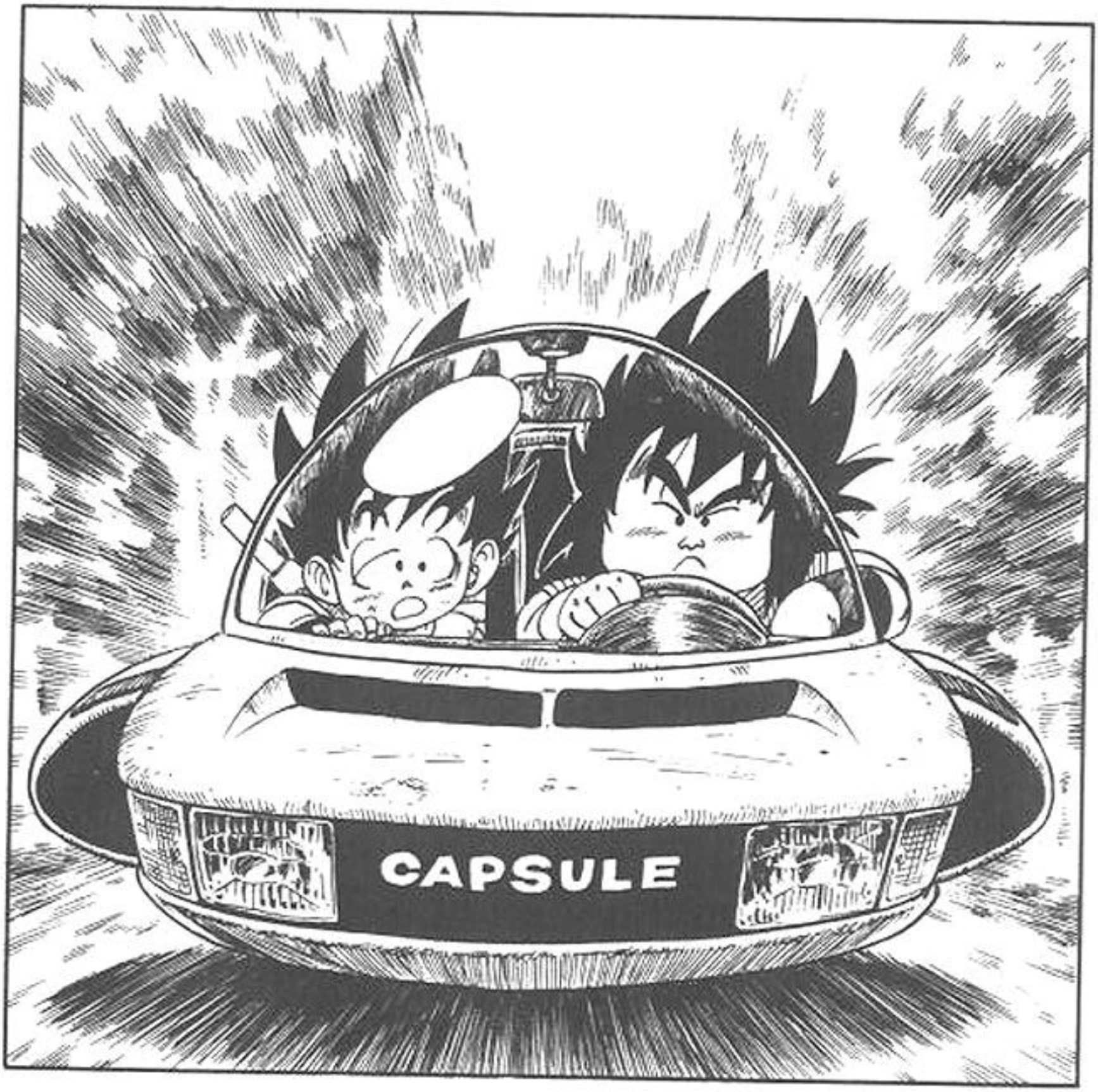
DRAGON BALL

제147화 젊어지는가!? 피콜로 대마왕



DRAGON BALL

제148화 카린 님을 만나라!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51화 초신수!!



鳥山明
BIRD STUDIO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겨우 갈기가 나았습니다.
손과 왕은 아직 조금 피곤하지만,
올 컨디션은 나쁘지 않군요.
독자와 관계자 여러분에는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리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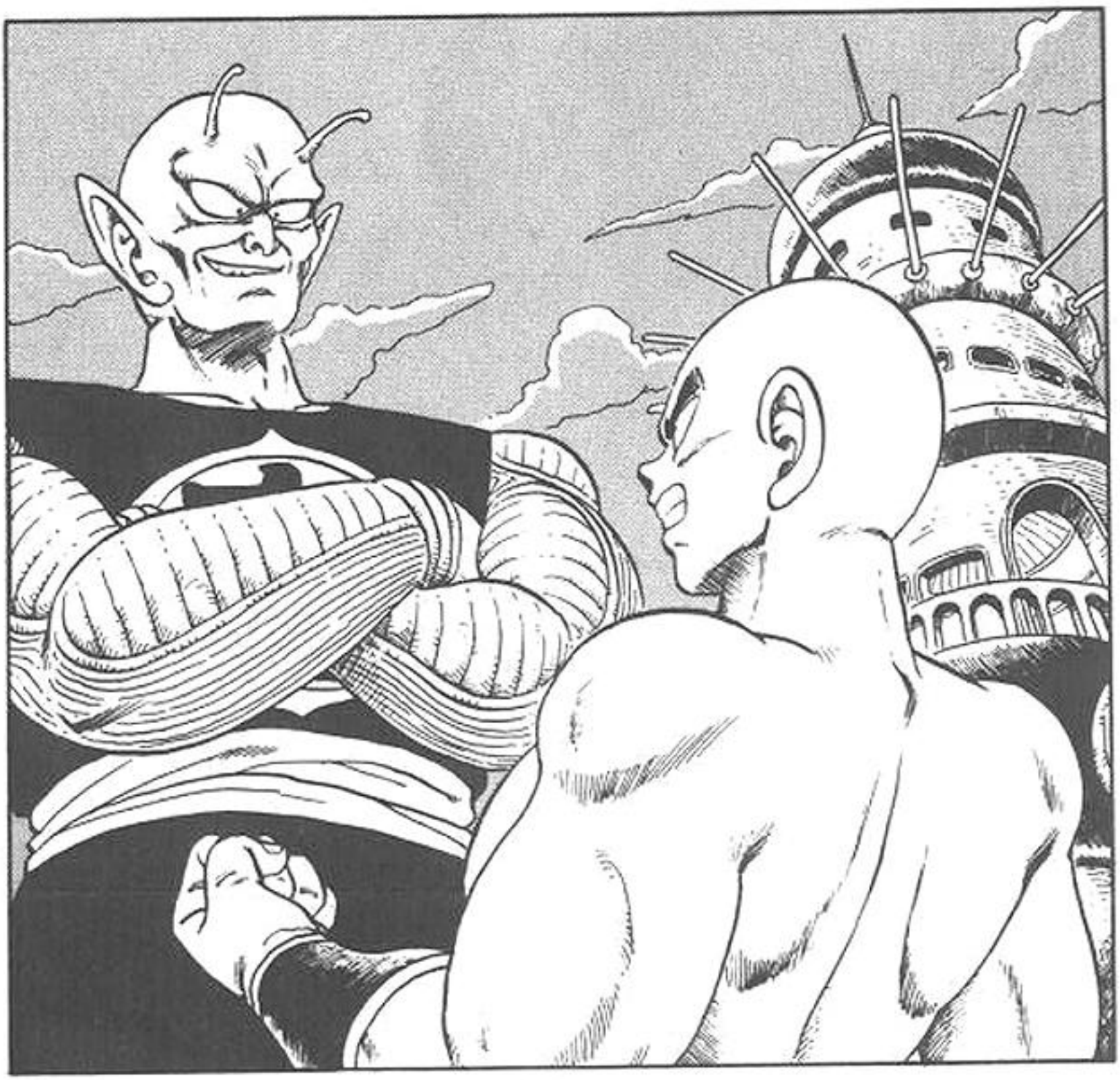
DRAGON BALL

제152화 손오공, 마침내 발진!!



DRAGON BALL

제153화 천진반의 결의!!



鳥山明 BIRD STUDIO

scanned by raprnb

아이큐 점프 코믹스



2000년 12월 10일 제1판 인쇄
2000년 12월 15일 제1판 발행

저자 ● AKIRA TORIYAMA
번역 ● 아이큐 점프 편집부
발행인 ● 백승천
발행처 ● (주)서울문화사
등록일 ● 1988년 2월 16일
등록번호 ● 2-48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전화 ● (02)7999-179~184(편집) / (02)7999-201~207(판매)
FAX ● (02)798-9991(편집) / (02)749-4079(판매)

[DRAGON BALL]
© 1984 by BIRD STUDIO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1984 by Shuei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in Republic of Korea arranged by Shueisha Inc.
through Shin Won Agency Co. and MSC Japan Inc.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인지는 작가와의 협의하에 생략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scanned by raprnb

IQ JUMP COMICS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